

도원 스님(부산 여래사 주지)
열 손가락으로 부처님 법음을…
"장애우 복지는 원력 불사"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9월 1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67호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깨달음의 길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하다.

제11대 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전국비구니회 12일 총회서 선출… 923표 얻어 '압도적 지지'



자민 스님은 245표 받아
기권 9명, 무효 8표 나와

'일하는 비구니회' 공약
회칙 개정 등 변화 예상

"공약 성실 이행" 약속

전국비구니회 제11대 회장에 육문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전국비구니회는 10월 12일 오후 1시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회장 선출 안건을 다뤘다. 이번 전국비구니회 회장 후보로는 기호 1번 자민 스님, 기호 2번 육문 스님이 등록 접수해 선거로 진행됐다.

이날 선거에는 총 1193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했고, 이중 9명이 기권해 1184명이 투표에 응했다. 투표 결과 기호 2번 육문 스님이 923표로 압도적 지지를 얻어 제11대 전국비구니회 회장에 당선됐다. 상대 후보였던 기호 1번 자민 스님은 245표를 받았다. 무효는 8표가 나왔다.

육문 스님은 당선 직후 소감 발표를 통해 "그믐이라 사찰에서는 기도들이 많아 바쁜 와중에도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해주셨다"면서 "무거운 소임을 맡겨주셔서 부담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비구니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육문 스님의 당선으로 전국비구니회를 둘러싸고 이뤄졌던 1년여 간의 내홍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육문 스님은 변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육문 스님이 제시한 공약은 △일하는 전국비구니회 △비구니 승단의 위상과 권익 향상 △비구니 스님의 노후복지 증진 △비구니승가 인재 육성에 기여 △청정한 수행자의 자세로 승가 화합 등의 5대 지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비구니회의 회칙 개정이다. 이에 대해 육문 스님 선거대책본부는 "임의적이고 애매한 회칙 조항을 명쾌하게 개정해 운영위원 구성이나 종회의원 선출과 자격요건 등 조직 구성과 운영 전반에 합리성을 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집행부 조직 개편을 비롯해 대중 여론을 반영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비구니회 재정 증대, 비구니회관 효율적 활용 방안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전국비구니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비구니회 임의단체 지위 탈피 △비구니 선거권 · 피선거권 제한 법령 개정 △비구니 원로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육문 스님은 이 같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전국비구니회 발전에 초석을 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0월 12일 전국비구니회 총회에서 육문 스님은 정견 발표를 통해 "전국비구니회 발전을 이미 내놓은 공약을 통해 이루도록 하겠다.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공심과 신심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일하는 전국비구니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의 순서를 정하고 모든 일들을 소통하고 투명한 전국비구니회로 만들겠다"면서 "변화를 이끌어 화합의 승가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문 스님 측은 11월 중순경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임기를 시작하며, 취임법회도 인수인계 작업이 마쳐지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임 회장에 바란다 31면〉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조선불교도연맹은 10월 15일 금강산 신계사 대웅보전서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남북 불교 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왼쪽)과 조불련 위원장 지성 스님(강수린)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남북 불교의 수장이 만나는 것은 8년만의 일이다.

南北불교 수장 8년 만에 금강산서 만나다

조계종 민추본 · 조불련, 15일 신계사 낙성 8주년 법회

8.25남북공동선언 이후 민간교류의 첫 신호탄을 남북 불교계가 알렸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와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지성)은 10월 15일 금강산 신계사 대웅보전에서 '금강산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남측 65명과 북측 40명 총 105명이 참석했다. 이는 2007년 신계사복원 준공식에 3백여 명이 참석한 이례 가장 큰 규모다.

특히 그간 중단됐던 민간교류가 다시 활로를 찾은 만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조불련 위원장 지성 스님(강수린)이 공동 참석했다. 남북 불교계 수장들이 공동 참석한 것은 8년 만의 일이다. 지성 스님은 법회 전 날인 14일,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서 물러나며 합동법회 참석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 바 있다.

민추본 사무총장 진효 스님과 조불련 중앙위원회 부장 혜안 스님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합동법회는 대웅전 앞마당서 봉행됐다.

자승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함께 신계사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매우 안타깝다. 이제 남북합동법회를 계기로 금강산 길이 다시 열리고, 공존과 상생으로 나아가길 발원한다"며 "불교의 성지이자 통일의 상징인 금강산을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불련 위원장 지성 스님은 "남북이 착공 첫 삽을 함께 뜨고, 완공식 때도 함께 문을 열었던 신계사는 남북 화해와 화합의 상징"이라며

8.25선언 후 첫 민간교류 행사
불자들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자승 스님 · 지성 스님 첫 만남
"할 수 있는 일은 다해보자"

오찬 가지며 협력 의지 다져

민간교류 활성화 '신호탄' 전망

"8 · 25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위태로운 남북관계지만, 오늘의 인연공덕으로 신계사에 불법이 넘쳐 통일도량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남측 대표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과 북측대표 리현숙 조불련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 부회장이 남북공동발원문을 봉독했다. 남북은 "남북 전체 불교도들은 남북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자등 · 법등으로 삼아 이 땅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용맹정진 하겠다"며 "금강산 관광길을 앞장서 열고 신계사 순례로도 반드시 이어놓겠다"고 발원했다.

법회 후 점심공양에 이어 남북 스님들은 함께 금강산 구룡연 산행에 올랐다. 남측 자승 스님, 지홍 스님과 북측 지성 스님을 비롯한 11명의 남북 불교도 관계자들은 산행 이전의 점심 식사 자리서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홍 스님은 "공양을 하는 동안에도 남북불교는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고 마음을 모았다"며 "정세에 따라 불교계 교류가 다시 끊길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양측 모두 같았다. 11월 묘향산 보현사 추계재향도 실무 관계자들과 논의 후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산 개발이 재개되면 108산사순례를 금강산 및 개성 등 북측서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며 "내후년 10주년 법회 때는 1천여 명이 함께할 수 있도록 남북불교계가 합심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신계사 법회에 대해 전문가들은 8.25 선언 이후에도 남북 간 마찰이 이어져 민간교류의 전망이 좋지 않았으나 불교계가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금강산 방문단에 합류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8 · 25공동선언 후에도 민간교류 전망이 밝지만은 않았는데 불교계가 첫 출발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며 "북측 민간사회단체들서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불교계를 시작으로 당분간 민간교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강산 신계사=박아름 기자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법회에서 남북 불자들이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종사 특별전형 대상자 혜성 스님

법계위 14일 회의서 확정

청담문도회 문장 혜성 스님이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로 확정됐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는 10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34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 접수한 혜성 스님을 품수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날 법계위원회는 혜성 스님이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로 결의했다. 혜성 스님은 중앙종회의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치면 종정 진제 스님으로부터 대종사 법계를 품서 받는다. 신성민 기자

사고

기자를 찾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전문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전형절차 2차
경력기자 수습기자	각 0명	① 경력기자 2년 이상 경력자 ② 수습기자: 201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③ 공 통: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서류전형	필기시험 (경력제외) 면 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접수기간 : 2015년 10월 23일(금)까지

2.접수방법 : 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http://www.hyunbul.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현불뉴스(http://www.hyunbulnews.com)에 접속하시면 모집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cgseo@hyunbul.com

3.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경력 기자는 자신의 기명 기사 추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시험 당일 제출

4.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 02-2004-8204)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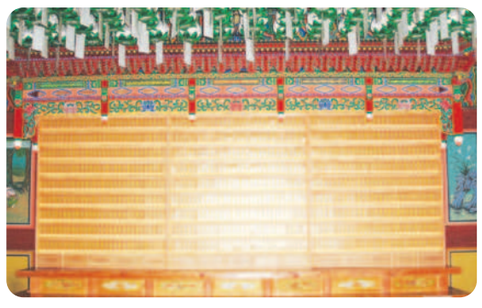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공단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교구중심제 실현 방안 논의 세미나 열린다

불교사회硏, 22일 전법회관서

교구중심제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오는 10월 22일 오후 4시 조계종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교구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종단 현실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구 운영의 틀을 정리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조기룡 동국대 교수가 '교구(중심)제 실현을 위한 본사의 기능과 역할' 을, 박재현 화쟁문화아카데미 사무국장이 '교구의 바람직한 운영(인사, 재정, 사업) 방향' 을, 박문수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이사가 '타종교(가톨릭)의 교구제 운영 사례' 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중앙 · 교구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덕문스님과 총무원 총무국장 명본스님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며, 박문수 연구이사가 발표하는 타종교 사례에 대한 토론은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서양철학 · 불교사 등 동영상 강의 강화

조계종 교육원 이러닝 강좌 확대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승가교육 일상화와 평생교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러닝학습센터(edu.buddhism.or.kr)에 교양강좌인 '21세기 불교를 철학하다' 와 기본교육기관 필수교과목 '한국불교사' 동영상이 탑재된다.

'21세기 불교를 철학하다' 는 미붓아 카데미가 지난 7월 10일 개강한 대중 인문학 강좌로 '강남발 불교철학 열풍' 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매 강좌마다 100여 명에 이르는 수강생이 몰리고 있다.

권오민 경상대 교수가 '불교와 지성', 김성철 동국대 교수가 '중관논리와 역설', 염승준 원광대 교수가 '칸트의 초월이상학과 유식불교' 등을 강의했다.

교육원은 '21세기 불교를 철학하다' 강좌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조계종 스님이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이러닝학습센터에 탑재했다. 앞으로 2주에 한 차례씩 2~3개 강좌를 업로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본교육기관 필수교과목인 '한국불교사' 강좌도 연내 업로드 한다. '한국불교사' 는 고영섭, 이철헌, 김용태, 김경집 교수가 강사로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화합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조계종 중앙종회, 16일 종단 화합 조치법 공청회

"종단의 진정한 개혁은 내부 점검부터 시작돼야 한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동료 수행자를 외면하는 것은 화합승가를 포기하는 일이자 승가 운영의 최고 이념인 화합 역시 저버리는 일이다."

이자랑 동국대 교수는 10월 16일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가 개최한 종단 화합 조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종단 화합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날 '종단 화합 조치의 필요성' 제하의 발제에서 승려법 46조의 멸빈 기준과 1994년 개혁 당시 멸빈자에 대한 과정이 올바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승려법 46조에 대해서는 "불조에 대한 불경 행위가 무엇인지, 도당을 형성한 반불교적 행위가 무엇인지 멸빈 기준이 애매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멸빈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4년 개혁 당시 9명의 승려들을 대상으로 멸빈 징계가 내려졌을 때의 승려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멸빈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당시 9명의 승려가 자신에게 가해진 멸빈 징계에 사유를 인지하고 소명 절차를 거쳤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구족계 멸쟁법에 따르면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문제 당사자를 출석하게 해 죄상을 물어야 한다"면서 "일반사회법에서도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재판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권리가 있다. 당시 멸빈된 9명 승려의 죄는 인간으로서 최소한 권리도 못 누릴 정도의 대역죄였나"고 반문했다.

이어 "화합의 진정한 의미를 고려하지 못한채 이뤄진 1994년 종단 개혁의 마무리 작업은 분쟁의 씨앗을 남기고 지금과 같은 사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의현 스님 집행부에 느꼈던 분노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비상수단을 동원했던 점은 고려하지만 개혁 후 20년이 흐르는 동안 그 가치가 퇴색해 버린 감은 없는지 이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현 스님 재심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교수는 종단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 종단 개입 방법으로는 특별법 제정이나 호계원법 제54조의 특별재심 청구 활용이 제안됐다.

이자랑 교수, 종단 적극적 개입 요구

"특별법 제정 · 특별재심 등 활용해야"

'멸쟁법 의거 징계했나' 문제 제기도

이 교수는 "1994년부터 1998년, 최근의 선학원 사태에서도 멸빈자가 발생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면서 "의현 스님 재심 판결 논란이 승가 모습을 숙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중앙종회의원 만당 스님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화합을 위한 개혁'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당 스님은 "역대 종정 스님과 원로 스님들이 1994년 멸빈자를 사면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누차에 걸쳐 중앙종회에 요구하는 뜻을 이제 종도들이 헤아려야 한다"면서 "승가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을 합리적 해결 방법을 찾아 해소시킴으로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호계원의 특별재심청구 확장 방안과 더불어 종헌 개정을 화합 조치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만당 스님은 "승가 공의가 이뤄진다면 멸빈자 사면을 금지하고 있는 종헌 128조 개정을 통해 사면을 열어주는 방법이 있다"면서 "개정에 문제가 있다면 종헌 부칙에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면할 수 있도록 종헌 개정을 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교수가 '조계종단 분규와 징계의 상관성'에 대해 발제했으며, 토론자로 중앙종회의원 선광 스님, 권오영 법보신문 기자,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 조직개편 이뤄진다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감사실 설치 등 골자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 예고

11월 중앙종회 회의 상정 예정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이 시대 변화에 맞는 종무행정을 위해 조직 개편에 들어간다.

조계종 기획실은 10월 15일 총무원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은 △총무원장 직속 감사실 설치 △중앙 · 교구 균형발전을 위해 사찰 업무를 총무부로 일원화 △재무부 소관 업무인 사찰 분담금 및 예 · 결산 업무를 총무부로 이관 △홍보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기획실 산하 감사국을 감사실로 승격해 총무원장 직속 기구로 둔 것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부는 대각회 특별교구 지정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은 재단법인 대각회의 법인등록과 대각회 특별교구 지정에 따라 마련됐다. 제정안은 특별교구의 명칭과 소재지, 소속사찰, 소속 사찰 주지 임면, 특별교구 본사주지, 분담금소속사찰의 권리와 의무, 분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대각회 특별교구는 서울 대각사(서울 종로구 봉익동2)에 두도록 했으며, 대각회에 재산과 사찰을 등록한 사찰을 '대각회 특별교구 소속 사찰' 로 규정하고, 사찰 명칭 앞에 '대한불교조계종' 이라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대각회 소속 사찰 주지 임명의 경우 대각회 특별교구본사 주지의 요청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명시했으며, 대각회 특별교구 본사주지 역시 대각회 이사회에서 추천해 총무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대각회 본사주지 자격은 산중총회법에 명시된 본사주지 후보 자격에 맞춰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70세 미만의 승려' 로 했으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교구 지정에 따라 종단에 중앙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은 오는 26일,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 오는 25일까지며 두 법안은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3일 열리는 중앙종회 정기회에 상정된다. 신성민 기자

"한 · 인도 불자 네트워크 중심돼달라"

인도 하원의원들, 13일 자승 스님 예방서 요청

"최근 인도에는 기독교계의 선교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구호활동을 비롯해 기술학교, 어학당 등을 통한 다양한 복지 · 개발 사업을 벌이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번졌던 불교 개종 바람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불교계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인도의 하원 국회의원인 우딧 랏 국회의원은 10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과 인도 불교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딧랏 국회의원은 인도에서 소수인 불교신자로 역시 불자인 델리 소득세 위원인 시마 랏 위원과 함께 예방했다.

이날 우딧 랏 국회의원은 자승 스님에게 한국 불자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심 역할을 해줄 것과 인도 성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우딧 랏 국회의원은 1960년대 인도에서 불었던 암베드카르의 네오부디즘 운동을 예로 들며 현대 인도에서 다시금 불교개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딧 랏 의원은 현 총리인 모디 총리가 종교를 아우르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불교에 대한 중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국회 정각회를 중심으로 인도의 불자 정치인들과 모임을 갖는데 노력하겠다"며 "양국 정치인들이 함께 한국 인도 친선에도 나서는 한편 불교 개종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승 스님은 "40여년 전 발원한 100만 개종의 목표가 꼭 이뤄지길 바란다"며 "한국불교도 다각도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우딧 랏 국회의원에게 연꽃등 선물을 전하고 있다.

"본분사 잊지 말고 부단히 정진하라"

선학원, 10일 사미 · 사미니 수계산림 회향

선학원이 5명의 자체 첫 예비수행자를 배출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10월 10일 부산 금정사 금강계단에서 '제1회 사미 · 사미니 수계식 및 회향식' 을 개최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진성, 구공, 성일, 도경, 원통 등 다섯 명의 사미 · 사미니가 전계대화상 철오 스님으로부터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수계식에 이어 열린 회향식에서 철오 스님은 "어제 듣던 소리와 오늘 듣는 소리가 같은지 다른지 대중은 정신차리고 잘 들어야 한다"고 법어를 내렸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수계식에 앞서 진행된 '선학원사 강의' 에서 출가란 일신의 영달과 안위를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고 죽음을 벗어나 해탈의 경지를 이루기 위함"이라며 "출가자로서 본분사를 잊지 부단한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선학원 사미 · 사미니들은 10월 5일 입재해 엿새 간 기본 위의 습의, 염불 습의, 의식문, 초발심자경문 등 예비수행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신성민 기자



재단법인 선학원은 10월 10일 부산 금정사 금강계단에서 '제1회 사미 · 사미니 수계식 및 회향식' 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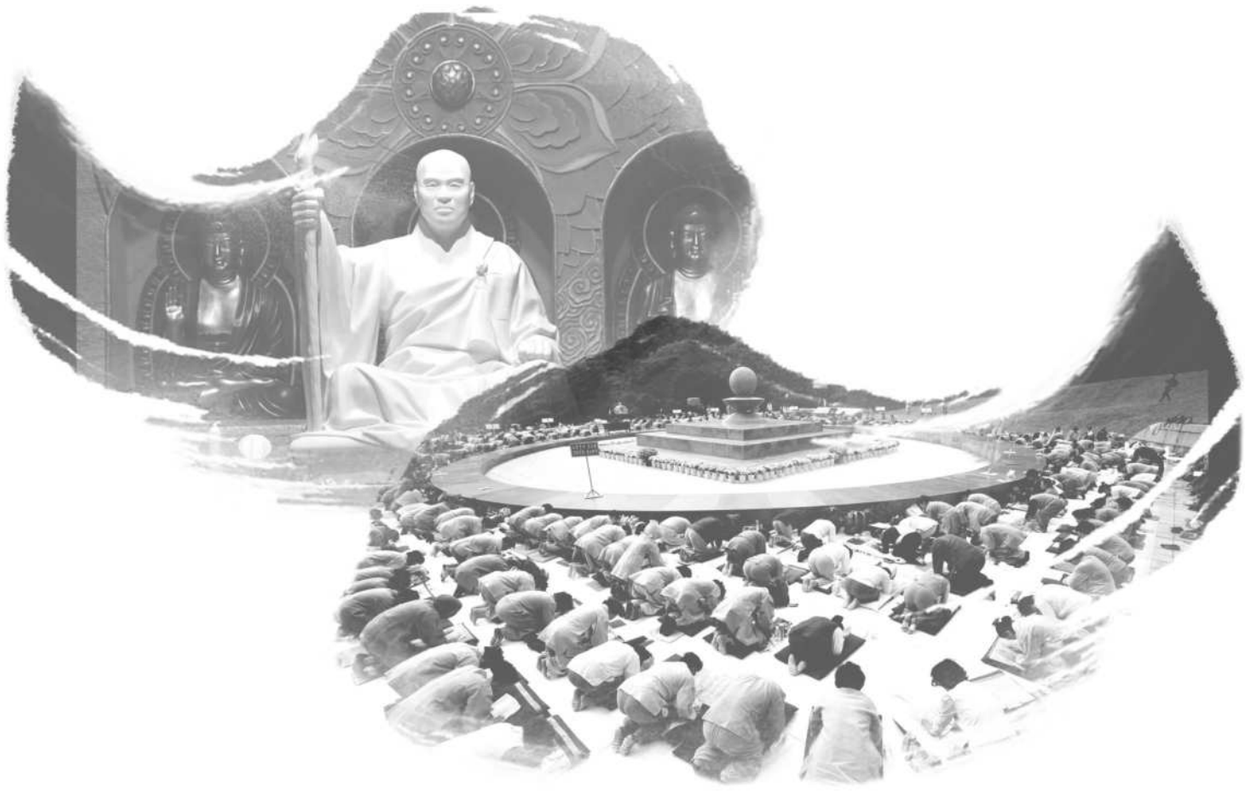
성철 대종사 열반 22주기 추모참회법회

성철 큰스님 열반 22주기(양력 11월 1일, 음력 9월 20일)를 맞이하여 성철 스님 문도회는 '성철 대종사 추모참회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참회법회는 10월 28일 입재하여 만 4일동안 4만 8천배 참회를 백련암에서 올리며 10월 31일 사리탑전 삼천배, 11월 1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의 추모다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법석에 수희동참하시어 성철 큰스님의 '자기를 바로 보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남 모르게 남을 도우라'는 가르침을 실천하여 마음에 큰 공덕을 쌓기를 바랍니다.

주요일정
10월 28일(수) 오전 7시 : 입재식(해인사 백련암 고심원)
10월 31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사리탑전 삼천배
11월 1일(일) 오전 7시 : 회향식(해인사 백련암 고심원)
11월 1일(일) 오전 10시 : 성철 대종사 추모재(해인사 대적광전)

문 의
서울 백련불교문화재단(02-2198-5101, 5372)
부산 고심정사(051-464-0068)
합천 해인사 백련암(055-933-5775, 055-932-7300)



해인사 백련암 · 성철 스님 문도회
www.sungchol.org

성철 스님 법어, 랩으로 재탄생

조계종 포교원, 랩 경연대회… 모집 마감 31일

'힙합(Hip-hop) 열풍'이 불교계에도 불어왔다. 성철 스님 법어로 '창작 랩'을 선보이는 무대가 열려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집무대행 송묵)은 11월 14일 '랩 창작곡 대회-성철 스님, 래퍼되다'를 개최한다. 젊은 세대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음악 장르인 힙합을 통해 기존 포교 프로그램을 탈피, '노래와 랩'이라는 새로운 포교 패러다임을 개척하기 위한 시도다.

이에 앞서 포교원은 10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상임이사 법경 스님, 포교원 신도국장 덕산 스님, 가수 아웃사이더(아싸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참석했다.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 법문 말씀과 젊은 층의 음악 문화를 접목시키는 것 자체가 '큰 포교'라 생각한다"며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응모돼 새 포교의 장을 열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유명 래퍼 아웃사이더는 "요즘 세대가 표현에 매우 인색한 경향이 있는데 성철 큰스님 말씀을 자신 만의 랩으로 승화하며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1·2·3등을 가리는 것보다 가사를 해석·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포교"라고 말했다.

창작곡은 성철 스님 법어를 편사한 '지정 가사' 16개와 비트(MR) 5곡 중 각 1개씩 활용해야 한다. 랩과 힙합을 기본으로 한 댄스곡·레게·트랩·발라드·록·국악 등 장르 불문하며, 전통 악기 및 불교 사물 이용 시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0월 31일까지로, 중학생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비공개 예선을 통해 선발된 10여 팀이 14일 본선무대를 갖는다. 상금은 △대상 500만원 △금상 청소년 100만원, 일반부 200만원 △은상 청소년 50만원, 일반부 100만원 △동상 청소년 30만원, 일반부 50만원 △인기상 청소년 20만원, 일반부 30만 원 등 총 1,08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은 음원 및 앨범으로 제작·배포함으로써 지속적인 포교 효과를 창출하고, 불교계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백련문화재단·파라미타 후원
심사위원에 래퍼 '아웃사이더'
대상 500만원 등 상금 1,080만원
수상작 음원·앨범 출시 계획도

심사위원으로는 가수 아웃사이더, MC메타 등 나선다. 아웃사이더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철 스님 법어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이라며 "운율을 위해 말을 약간 덧붙이는 등 개사는 허용하지만 되도록 법어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겉으로만 멋있게 보이기보다 표현력과 전달력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 밝혔다.

이어 아웃사이더는 "힙합이 큰 인기를 끌며 대중화되는 시점에 스님 말씀을 랩이란 장르에 접목한 시도는 힙합인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라며 "힙합이 디스(디스리스펙트-disrespect 준말로 상대방 허물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힙합 문화)로 유명하지만 그 본질에는 '리스펙트(Respect, 존중) 문화'가 있다. 이번 대회가 존중·존경 문화를 일깨우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서 및 지정가사와 제공 비트는 파라미타홈페이지(www.paramita.or.kr)서 다운로드 해 데모파일과 함께 이메일(723-6166@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포교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백련불교문화재단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며, 조계사와 아싸커뮤니케이션이 후원한다. 본선 무대에는 아웃사이더, MC메타, 투탁&루팡(프리마테) 축하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문의 (02)723-6165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은 10월 10일 대웅전 상량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불사는 마음 키워가는 수행의 연장선"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10일 대웅전 상량법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대웅전 상량법회가 10월 10일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해 김용건 경남도의회 의장, 김용철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고문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축사를 통해 "대행 큰 스님께서는 생전에 절을 짓는 불사의 과정은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 외형의 것이 아니라 신도님들과 더불어 마음을 키워가는 공부를 한다는 한마음 한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며 "통영지원 대웅전 불사도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김용건 경남도의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무량하신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포교도량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남은 기간동안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발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용철 고문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상량법회를 계기로 다시 불사를 시작한다는 초발심으로 더욱 더 정진해 대웅전 불사가 회향되는 그날까지 내면의 불사도 함께 꾸준히 이어갈 것을 서원한다"고 말했다.

통영=김주일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교계 반대 잇달아

불시넷 등 반대 성명 발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불교계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불시넷)는 10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정화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불시넷은 성명서를 통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역사교과서를 검인정화 또는 자유화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역사관의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담론 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미래세대에게 역사에 대한 획일화된 시각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사회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10월 13일 입장문을 내고 "획일화되고 단선적인 역사교과서를 만든다면 이는 심각한 역사왜곡이자 역사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성민 기자

"인력·콘텐츠 투자 확대로 방송 역량 증대"

선상신 불교방송 사장, 13일 간담회서 밝혀

지난 10월 8일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사진>이 글로벌미디어센터 건립 등 향후 운영 방안을 밝혔다.

선상신 사장은 10월 1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사옥 건립, TV 부문 분리 등의 사업 계획 등을 설명했다. 선 사장의 불교계 기자 간담회는 9월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교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로 보여진다.

이날 간담회에서 선 사장은 전임 사장 시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옥 건립에 대한 계획을 가장 먼저 설명했다. 선 사장은 "현재 상암동 DMC 안에 630여 평 부지가 나왔지만 고도 제한이 있어 임대 수익 등이 발생하기가 어려워 부절적하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차후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신사옥 건립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방송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TV 부문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선 사장은 "TV 부문을 분리하되 경쟁력 갖춰 업그레이드해 외부 투자를 유치할 방향으로 모색 중이다. 또한 불교방송이 최대 지분을 갖는 주식회사 형태로 연계성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 역량 강화를 위한 꾸준한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 선 사장은 "불교방송은 인건비 비율이 42%로 다른 회사보다 높다"면서 "하지만 방송국의 재산은 사람과 콘텐츠다. 인력과 장비, 콘텐츠에 대한 투자 없이 방송 역량 강화는 이뤄지지 않는다. 선 투자, 후 매출 증대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방송은 오는 11월 1일 부실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진용을 갖출 예정이다.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불교방송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정식으로 발표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7년 4월 달라이라마 방한 성사 노력"

방한추진회, 공식 발족하고 본격 활동 시작

올해 말까지 추진단 구성
100만명 서명 운동 추진

그간 준비위원회 형식으로 활동을 펼쳤던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가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민과 불자들의 염원을 모아 오는 2017년 4월 방한 성사를 목표로 사업에 들어간다.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상임대표 금강, 이하 방한추진회)는 10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경과 보고와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방한추진회는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공식 발족을 결의하고 상임 대표에 금강 스님, 공동대표에 진옥 스님·박광서 교수, 집행위원장에 월호 스님을 추대했다. 또한 9월 5일부터 12일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고 방한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달라이라마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가장 우선적으로 방문해 한국인을 만나고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한추진회는 2017년 4월 달라이라마 방한을 위한 범국민적 지지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순회법회와 학술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승가 100명, 재가 100명으로 이뤄진 추진단 구성과 UCC 홍보영상 공모전, 1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상임대표 금강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지난 2000년 이후 수차례 타진됐지만 한국의 비자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추진회는 향후 조계종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연대활동을 펼칠 것이며, 한국 외교부를 비롯해 미국·중국 대사관에도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는 10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경과 보고와 향후 활동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방한추진회는 2013년 10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 7월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후 울산, 부산, 대전 등을 순회하며 지역 법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10만명 서명을 받아냈다. 02)730-5911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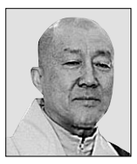
비구니승가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삼보전에 지극한 정례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비구니 원로 대덕스님들을 비롯해서 비구니회장 선거가 여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제10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및 대중스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이번에 전국비구니회장 선거를 통해 저는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구니 승가의 변화를 염원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열망이 투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비구니의 권익향상을 위해 일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종단발전의 한 축으로서 비구니 승가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첫째도 화합이요, 둘째도 화합입니다.
부득이하여 선거를 통해 당락을 결정하긴 했지만 다 같이 비구니 승가의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승자와 패자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선의의 경쟁을 함께 한 자민스님의 공약도 수렴하여 십분 비구니회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격언처럼 비구니 승가를 둘러싼 수많은 난제를 우직하게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초석을 다지며,
원칙을 세워 전국비구니회의 위상과 청정성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만하지 않고 제방의 비구니스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초심을 잃지 않는 전국비구니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6천여 비구니스님들의 관심과 지지는 전국비구니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비구니들의 구심점이 되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호흡하는 전국비구니회로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 화합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 비구니 승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동안 고단한 여정을 함께한 선거대책위원회 증명 및 고문스님, 후보추대위원 이하 모든 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총회에 참석하신 제방의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2559(2015)년 10월 12일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당선자 **육문** 합장



일 주 문



국회 정각선원서 법문

정찬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스님은 10월 7일 국회 정각선원에서 육조혜능선사의 일화를 주제로 법문했다.



금강대 청년일자리 창출 특강

한광수 금강대 총장은 10월 7일 본관 5층 사이버강의실에서 '청년고용정책과 진로지도' 특강을 개최했다.



법림대구선원 개원법회

이제열 대구 법림대구선원 선원장은 10월 24일 오후 2시 법림선원 개원법회를 봉행한다.(053)628-0108



제15회 삼국유사학술문화제

정진원 동국대 연구교수는 10월 15일 군위 인각사에서 열린 제15회 삼국유사학술문화제에서 대상인 문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법보신문, 독립언론 10주년 기념법회

법보신문(대표 남배현)은 오는 10월 27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독립언론 1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남배현 법보신문 대표는 "독립 언론으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고 바른 언론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독립 언론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수의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100세 선도 스님, 동국대에 장학금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직무대행 정윤길)는 10월 15일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선도장학회(이사장 선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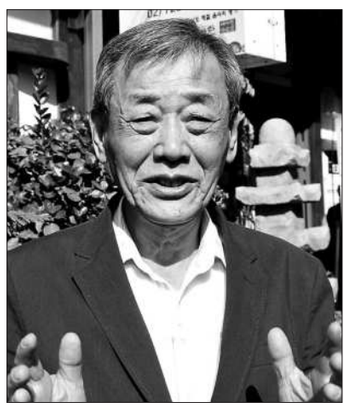
선도 스님은 경남 통영 신광사 주지로 불교종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불자청년지도자 육성을 위해 2002년 전 재산을 동국대 경주캠퍼스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선도장학회를 설립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0여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100세를 맞은 선도 스님은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방문해 3명의 학생에게 총 3백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편, 선도장학회 장학금 전달에 이어 개최된 태영장학회(이사장 김광호)와 나무심장학회(이사장 김순이)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4명의 학생이 총 4백만원의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노덕현 기자

"민족 정체성 수호한 만공 스님 유공자 선정돼야"

이은윤 경허·만공선양회 자문위원(前 중앙일보 종교전문 대기자)



만공의 할, 일제 골수 풍비박산 시켜
항일독립 본질인 민족 정체성 사수
총독 꾸짖은 一喝, 생사초월의 항일
"독립운동 개념 새롭게 확립돼야"

조선불교계에 대한 일본의 내선일체 정책에 강력 항거한 것으로 알려진 만공 선사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교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 경허 · 만공 선양회가 만공 스님을 일제 식민지 불교정책에 항거한 독립유공자로 선정해 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요청했으나 현재 심의 보류 상태다.

이에 경허 · 만공선양회 자문위원인 이은윤 前 중앙일보 종교전문 대기자 〈사진〉는 10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대가 발전되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으면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개념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항일독립운동을 인정하는 기준이 폭탄투척, 무력투쟁, 투옥 등을 삼는데 이것은 형이하학적이고 문화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나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 대열에 낀 우리나라의 수준을 고려하면 정신적인 측면을 봐야한다. 그 투쟁이 오히려 값지다고 볼 수 있다. 정신적 항일독립운동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바로 만공 선사이다. 이제부터 독립운동의 개념을 새롭게 확립해야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만공 스님은 식민정책에 의해 왜곡된 조선불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일제에 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조선불교의 전통 수행방식을 왜곡시키려 하자 총독에게 호통을 친 일화는 유명하다. 1937년 3월 11일 총독부가 조선 13도 도지사와 31본산 주지들을 소집하고 '조선불교 진흥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 '진흥책'은 조선승려들이 일본식 혼례를 올리게 하고 음주와 육식을 하게 하는 등 조선불교의 전통을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만공 스님은 前 총독 데라우치는 조선불교를 망친 사람으로, 전 승려로 하여금 대처, 음주, 식육을 마음대로 하게 해 부처님의 계율을 파하게 한 불교에 큰 죄악을 지은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조선불교에 대한 간섭을 멈추라고 일갈했다.

이 외에도 만공 스님은 1941년 식민불교정책 항거를 위한 고승대회를 주도하고 1942년 조선광복을 기원하는 천일기도를 하기도 했다.

이은윤 위원은 "독립운동의 최종 목표는 민족 정체성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5천년 동안 민족 정체성을 지켜왔기에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입니다. 황하 갠지스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등 고대문명은 모두 소멸 됐지만 중국만은 중화민국이라는 문명이 버젓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만공 선사도 어전회의서 당시 절대권력인 미나미 총독을 향해 목숨을 걸고 할을 했습니다. 민족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일본을 꾸짖은 것입니다. 생사를 걸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잠시 후 이은윤 위원은 격앙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건물 전경

"할을 함으로서 일제 침략의 핵심인 우리 민족의 정체성 말살 야욕에 도끼질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폭탄을 던진 것 보다 몇 배의 위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만공 스님의 할은 무한한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돼야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독립운동 개념과 유공자 선정 기준이 발전돼야 하고 수정돼야 하지만 관계자가 세속적인 인식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도 어떻게 보면 행동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단계 더 진화된 다른 차원의 영원한 독립을 지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한한 정신적 가치를 높게 사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은윤 위원은 "만공 선사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돼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하며 절개를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삼청공원서 밤에 만해 스님을 만나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라며 돈을 전해줬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제가 한국불교를 다 매수하고 조작해서 일본불교와 합치려 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선학원을 설립해 유교법회를 주도 했다는 점도 큰 공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불교계가 만공 선사의 민족정신을 후학들도 본받고 선양할 수 있도록 독립 유공자 선정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김주일 기자



"편견을 넘어 골프 포교에 도전합니다"

'제1회 종교화합 골프대회' 여는 천상 스님

골프에 대한 편견이 가득하다. 사치를 상징하는 스포츠로 불교 수행과 포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골프에 대한 편견에 과감히 도전하며 계층 포교를 위해 과감히 나선 스님이 있다. 부산 해운대 반야선원 주지 천상 스님〈사진〉이다.

"골프는 대중 스포츠입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 일부 편견에 부자 스포츠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의 400만명이 골프를 하며 실내 골프장 까지 포함하면 골프 인구는 600만명에 달합니다. 특히 박세리, 양용은, 배상문, 최경주 등 수많은 골퍼가 한국의 위상을 올리며 특히 배상문은 불자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골프 대회는 2015년 프레지던츠 세계골프대회 성공기원, 광복 70주년 및 신장 장애 후원을 위해 개최됩니다."

현재 천상 스님은 한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관광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오마이골프 협회는 '세계 최초 제1회 종교 화합 골프 대회'를 10월 21일 오전 11시 경주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경주 시의원과 함께 티업 시타에 나선다.

스님은 골프에 대한 편견을 깨고 나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미국에서의 생활이 가장 큰 영향이 됐다고 했다.

스님은 미국에서 미8군 용산부대 군인에게 참선과 관선무를 지도했다. 한의학 석사, 미국 한의사 자격증 취득, University of West 종교 불교학 박사과정 수학 및 시민단체 운동을 통한 유학생과 이민자 돕는 일도 담당했다.

앞으로 스님은 국제관광연합회 활성화, 오마이골프협회와 정기적 골프대회 행사, 베스트경전독송집 염불 CD 제작, 붓다 골프와 반야심경 책 출판, 관선무 영어 교본 출판 등 국제적 교류활동과 한국 포교와 방송과 문서 포교에 매진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국군교도소 자장면 공양 · 수계법회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10월 14일 장호원 국군교도소 법당 원등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군종교구장 정우스님을 계사스님으로 20명의 수용자가 수계를 받았다.

이날 수계법회에 앞서 국군교도소 수용자 100여명과 교도소 관계자 등 총 300여명과 함께 여주 송암사 법진스님과 봉사자들의 후원으로 자장면을 공양했다. 노덕현 기자



제3회 사하불교 불자의 밤 한마당

부산 사하구불교교연합회는 10월 8일 부산 천마산 약수사에서 '제3회 사하구민을 위한 사하불교 불자의 밤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하불교연합회 회장 혜우 스님, 사하구불교연합신도회 김흥남 회장, 이경훈 사하구청장, 조경태 국회 의원 및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 혜우 스님은 "불자의 밤 한마당을 통해 사하구민의 행복을 열고 화합의 장이 되길 발원한다"며 "이 행사를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게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로터스월드, 수원시와 양해각서 체결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10월 14일 수원시청에서 캄보디아 프놈끄라옴-수원마을 3단계 지원사업 협력을 위해 수원시(시장 염태영), (사)행복캄(이사장 홍순목)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로터스월드는 내년부터 3년동안 진행되는 3단계 지원사업을 통해 △프놈끄라옴-수원마을 중, 고등학교 신축 △학교 신축에 따른 마을 도로 정비 및 통학로 확보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전신주 교체 및 전선정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로터스월드는 11월 17일 캄보디아 프놈끄라옴-수원마을에서 3단계 지원사업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한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10월 30일 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외국어로 노래하고 춤추니 불교가 재미있네



운문사 승가대학 단체팀의 경연 모습. 'I'm Everything' 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는 단체 최대 인원인 27명 참여했으며, 한편의 종합예술공연으로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단체팀의 경연 모습. 'SHOW ME THE BUDDHA' 팀은 영어 랩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청암사 승가대학 고우 스님의 경연. 고우 스님은 'H3 비타민' 을 통해 108배, 명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1회 대회 대상 수상자들. 운문사 승가대학 단체팀 대표 혜정 스님(사진 왼쪽)과 개인 부문 동학사 승가대학 진홍 스님(사진 오른쪽)

조계종 교육원, 14일 제1회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

See! What is Buddhism.(자! 불법이란 무엇인가)
I fought the Dead and Live.(나는 삶과 죽음과 싸웠지)
You can't but never know.(당신은 절대 알 수 없어)
Four Noble is a truth.(네 가지의 진실한 진리를)
Buddhism is never fault.(불법은 절대 틀리지 않아)
Do you know what it means?(이 뜻을 알겠는가?)

경쾌한 비트박스가 대회장을 채우니 이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분한 학인 스님이 영어로 랩을 친다. 다른 편에 서 있던 달마대사가 부처님의 랩을 받아 대승불교를 설명하는 랩을 이어간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10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개최한 '제1회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 결선은 학인 스님들의 외국어 실력과 회색 장삼 속에 숨은 재기 넘치는 '끼' 에 다시 한번 놀라는 자리였다.

9월 예선을 거쳐 선발된 개인 13명(중국어 2명, 일본어 2명, 영어 10명)과 단체부 6팀(영어 5팀, 중국어 1팀)이 1달 간의 준비 기간을 통해 수준 높은 발표를 선보였다. 외국어 스피치의 발표 방식도 영어 랩부터 뮤지컬, 연극, 토크쇼까지 다양했다.

유창한 외국어에 불교적 메시지까지

개인 부문 경연은 주로 발표 형식으로 이뤄졌다. 5분 간 혼자 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학인 스님들은 이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불교적 메시지로 채웠다. 특히 예선보다 훨씬 깔끔한 진행이 돋보였다.

'승가 교육 현대화의 중요성' 을 주제로 발표한 영어 개인 부문의 동학사 진홍 스님은 사찰을 찾은 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쓰레기를 치우는 자신을 가리키며 "너도 공부를 못하면 저렇게 된다"는 말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었다. 스님은 승가 이미지가 현대인에게 친숙하지 못하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승가교육 현대화'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염불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청암사 승가대학 고우 스님은 'H3 비타민' 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었다. 고우 스님은 108배와 명상, 미고사(ITI,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로 이뤄진 'H3 비타민' 은 치유(Healing), 희망(Hope), 행복(Happiness)의 효능을 가져온다고 재미있게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어 개인 부문의 통도사 승가대학 금행 스님은 자신의 출가 인연과 사리불 · 마등 존자 일화를 소개하며 인연의 중요성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일본어 개인 부문 경연에 참가한 동학사 승가대학 마승 스님은 동학사 남매탑에 얽힌 설화를 통해 대승불교 계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톡 형식의 P.P.T에 직접 그린 캐릭터까지 삽입해 전달력을 높인 것도 눈길을 끌었다.

예선보다 화려해진 단체 경연

단체 부문 경연은 예선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았다. 단체팀들은 외국어 연극, 뮤지컬, 랩 배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실력을 뽐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1학년 학인 스님들로 구성된 'SHOW ME THE BUDDHA' 팀은 영어 랩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동학사 승가대학은 '탐 · 진 · 치' 를 주제로 영어 연극을 진행했다. 학인 스님들의 영어 실력이 깔끔한 구성과 호연으로 더욱 두드러졌다. 봉녕사 승가대학 역시 무상 등의 주제를 토크와 합창 등으로 재미있게 풀어냈다.

압도적인 스케일을 선보인 곳은 운문사 승가대학이다. 'I'm Everything' 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는 한편의 종합예술공연으로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단체 최대 인원 27명이 참여한 운문사 승가대학 발표는 무용, 마임, 합창 등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아' 를 표현했다. 특히 후반부 '자비송' 합창은 장엄 그 자체였다.

대상에 진홍 스님 · 운문사 단체 수상
9월 예선 거친 개인 · 단체 실력 겨뤄
외국어 랩 · 연극 등 발표 방식 '다양'
'재미있는 불교' 확인한 축제의 장

"다음 대회 더욱 기대된다"

치열한 경연 끝에 대상은 개인 부문 동학사 승가대학 진홍 스님, 단체 부문 운문사 승가대학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청암사 승가대학 고우 스님, 통도사 승가대학 금행 스님이 개인부문 수상을, 동국대 서울캠퍼스가 단체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 개인부문은 운문사 승가대학 법여 스님과 동학사 승가대학 마승 스님이, 단체 부문은 봉녕사 승가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결선 진출자에게는 원력상이 수여됐다.

대회 심사위원장 종호 스님(조계종 교육위원장)은 심사총평을 통해 "불교를 해석하고 나타내는 방식이 기존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대화된 형식으로 불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결선 참가 스님들은 외국어 등 경연대회가 '젊고 재미있는 불교' 를 알리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우 스님(청암사 승가대학)은 "영어를 극복하고 싶어서 도전했다"면서 "학인 스님이 오롯이 주인공이 돼 대회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다. 열정과 도전, 노력과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경연대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승 스님(동학사 승가대학)은 "한국불교 세계화와 대중화를 위해서는 비불자들의 호응을 높여야 한다"면서 "한문공부 뿐만 아니라 외국어 공부도 이뤄져야 하는 것은 현대사회 승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분해 랩을 했던 지수 스님(동국대 서울캠퍼스)은 "스님이 랩을 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불교를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불교도 재미있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 같은 경연대회는 포교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 신성민 기자 · 사진= 노덕현 기자

"글로벌한 스님이 되겠습니다"

개인부문 대상 진홍 스님(동학사 승가대학)



"제가 한국불교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는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1회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에서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한 진홍 스님(사진, 동학사 승가대학)은 수상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진홍 스님은 동학사를 찾은 젊은 엄마가 자녀에게 '공부 못하면 스님 된다' 는 말에 받은 충격을 진솔히 소개하고 승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승가교육 현대화' 가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당연히 호응이 높았다.

진홍 스님은 자신의 발표처럼 승가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향후 포부로 밝혔다. 승가 영어 교육 전문 기관인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에도 입학할 계획이다.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승가의 이미지를 혁신시키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無我' 가르침 전하려 했습니다

단체부문 대상 운문사 승가대학

이번 대회 경연 참가자 중 단연 백미(白眉)는 운문사 승가대학의 발표였다. 스케일부터 압도적이었다.

이 같은 무대 연출이 가능했던 것은 출가 전 네덜란드에서 유학해 안무 연출을 전공했던 혜정 스님이 있어서다. 하지만 혜정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하기 위해서 공연의 형식을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경연대회에서 우리의 발표가 공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무아(無我)' 의 가르침을 일편이라도 전하기 위한 법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은 이번 대회를 위해 여름방학부터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전원 2학년으로 여름방학을 운문사에서 대회를 준비하며 보냈다. 혜정 스님은 "여름방학에 은사 스님 사찰로 돌아가지 않은 도반들이 같은 반에 있었고 이들과 대회를 준비했다"면서 "사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 을 축하합니다.

팔공산 은해사 창건 1206주년 개산대재

보살계 · 만등불사 · 중악 은빛음악회

아미타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미타도량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 809년)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지 1206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스님들의 선맥(禪脈)이 이어온 은해사 대법회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재 보살계와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한한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9 (2015)년 10월

■ 개산대재 대법회 : 10월 24일 토요일(음 9.12)

□ 10월 24일 (토) 오전 9시 30분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 (부도전)
· 오전 11시 육법공양, 개산법요식
· 오후 1시 보살계 수계식
· 오후 3시 시민과 함께하는 중악 은빛 음악회
· 오후 6시 만등불사 점등식

□ 동 참 금 : · 보살계 – 1인 2만원 / ·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 동대구역 지하도 (오전 9시) → 하양 → 은해사,
남부정류장 (오전 9시) → 경산 → 은해사
포항역 (오전 8시 30분) → 영천 → 은해사간 차량 운행합니다.

■ 보살계

자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니는 수행덕목인 보살계(菩薩戒)는 불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중요한 의식이며, 이미 받았더라도 다시 보살계를 받으므로서 다시 한번 자리이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크나 큰 공덕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중악 (中岳) 은빛 음악회

□ 일시 :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 출연 : 금잔디,현숙,김국환,정수라,한서경,박규리,김미송 외

※ 개산법요식이 끝난후 국악공연과 선화여고 댄스공연, 3사관학교 군악대공연도 있습니다.



www.eunhae-sa.org

■ 문의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은해사 □ 전화 : 종무소 (054)335-3318~9 / 원주실 054)335-5220, 은해사 교구 각 말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본 · 말사

十善戒 실천하며 부처님 정법 실현을

정법빠리사, 10월 18일
구로 보광정사서 창립법회 봉행

기도 · 참선을 일상화하고, 십선계를 실천하는 등 '수행 중심' 초기불교 정신을 구현하는 재가 모임이 탄생했다.

'정법빠리사-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공동체(대표 정은용, 이하 정법빠리사)'는 10월 18일 서울 구로구 보광정사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정법빠리사(Dhamma Parisa)'는 부처님 개척정신을 이어받아 수행 · 교육 · 자비행을 통해 새로운 전법 시대를 열어가는 평등공동체(빠리사, Parisa)라는 것이 단체 측 설명이다.

이번 모임의 법사단으로 합류한 이수덕 법사(前 BTN 사장)는 "소승불교를 자기 수행만 하는 협소한 범주로 보는 것은 대승불교의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선종이 성하는 곳은 계율이 흐트러진다는 말이 있다. 계율학회가 많이 생겨나 계율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식 창립에 앞서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보광정사서 108배 · 아비라기도 · 능엄신주 독송 · 사띠명상 · 니까야 및 능엄경 등 경전 공부 등 정진해 왔다. 지난 8월과 10월에는 수락산 석가사



'정법빠리사-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공동체(대표 정은용, 이하 정법빠리사)'는 10월 18일 서울 구로구 보광정사서 창립법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정식 창립에 앞서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보광정사서 108배 · 아비라 기도 등 정진해 왔다. 사진은 보광정사서 수행 중인 회원들 모습.

올 2월 결의 후 준비위 구성
기도정진 · 월례법회 등 실시
네팔지진피해 등 사회적 후원도
십선계 실천 등 계율복원 '앞장'

및 속리산 복천암서 철야기도 정진에 입재한 바 있다.

또한 네팔지진피해 임시초등학교 건립 후원, 피폭70주년 원폭피해자 추모 및 비핵평화대회 후원 등 사회적 자비나눔도 적극 실천했다.

현재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보광정사서 아비라기도, 능엄신주, 사띠명상 등 기도정진을 비롯해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수행정진 월례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아울러 매분기마다 곳곳에 주석한 선지식들을 탐방한다. 행복마을(이사장 용타)을 시작으로 담마코리아, 금강선원(선원장 혜거), 한산사 용성선원(선원장 월암), 봉인사(주지 적경), 오곡도 수련원(원장 장휘옥), 간화선 수행학교(교장 오원명) 등을 순례한다.

이밖에도 △십선계 실천 운동 △경전 및 문화강좌를 통한 교육 · 전법 활동 △나눔생활을 위한 복지 공동체 활동 △교육지원, 청소년 결연 등 인도적 국제구호 활동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연구 등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회원들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십선계(十善戒) 실천 운동은 청정 승가를 주창하기 전 재가불자들도 부처님 정법에 따라 계율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는 공의가 모여 시작됐다. 이수덕 법사는 "승가뿐만 아니라 재가들도 철저히 오계를 지키는 대만불교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오계서 나아가 십선계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설명했다.

모임은 법사단, 고문단을 비롯해 운영위원 등 30여 명 회원으로 구성된다. 법사단은 학담 스님, 현봉 스님, 김재영 청보리회 지도법사, 이수덕 법사 등이며, 고문단은 임완숙 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 백경남 등이 맡았다.

임완숙 고문은 "그동안 불교계가 교육과 수행을 병행하는 일에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 재가모임이 불교수행운동의 기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고운사, 한국사찰음식문화제 '성료'

10월 10일 한국사찰음식문화협회 공동주최
108여 개 사찰음식 전시… 특화사찰음식대전도



한국사찰음식문화협회(이사장 호성, 이하 사찰음식문화협회)는 지난 10월 10일 경북 의성 고운사에서 2015한국사찰음식문화제를 개최했다.

한국사찰음식문화협회(이사장 호성, 이하 사찰음식문화협회)는 지난 10월 10일 경북 의성 고운사에서 2015한국사찰음식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연의 지혜를 담은 고운 발효음식'을 주제로 김치 · 장아찌 등 108여 가지 사찰음식이 전시됐다.

또한 수도사를 비롯한 전통사찰음식 특화사찰이 모여 '특화사찰 음식대전'을 선보였고, 고운사 말사 10여 곳에서 장아찌 꼬마김밥 만들기 등 사찰음식 체험장을 운영했다.

아울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번 행사를 총괄 기획 · 운영한 황은경 운영위원장에 표창패를 수여했다. 황 위원장은 2011년 고운사 사찰음식연구소 초대 연구소장을 역임했고, 2014년 이후 호성 스님과 함께 한국사찰음식문화협회를 발족 · 설립한 바 있다. 사찰음식문화협회 측은 "지금까지 남다른 열정으로 한국사찰음식 홍보 및 대중화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사찰음식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이사장 호성 스님은 "더 많은 대중들이 안전한 먹거리로서 사찰음식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에 진행된 우리지역 우수농산물 전시홍보 · 판매 등 이벤트 행사들을 보완해 더욱 발전적인 한국사찰음식문화제를 만들어갈 것"이라 다짐했다.

박아름 기자

남북청년불자 통일염원하며 '합심'

대불청, 10월 10일 전국불교청년대회서
'조국통일기원 남북청년불자 공동결의문' 발표

광복70년 및 분단70년을 맞아 한국 불교계를 이끌어가는 청년 불자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가 10월 10일 서울 불광사에서 창립95주년 기념 제34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불광법회 회주 지홍 스님, 지도법사 덕신 스님과 법현 스님,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함종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3백여 명이 참석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민족의 평화와 통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여러 프로그램들로 꾸려졌다. 본대회가 열린 10일에는 도전 통일골든벨, 통일염원 사경지 봉헌, 율동경연대회 등 실시하고, 이튿날인 11일에는 임진각으로 이동해 평화통일기원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남북청년불자들이 함께 '조국통일기원 남북청년불자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민족 분단의 비극을 하루빨리 종결시킬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대불청과 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 청년위원회는 "이 땅에 불법(佛法)이 전해진 후 금수강산 방방곡곡 우리 민족 심성마다 불법의 인연이 소중히 닿아있으나 우리 겨레는 70년 세월을 민족분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다"며 "남과 북 청년불자들은 반목과 대결의 시대를 끝장내고 남북관계발전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실천행에 정진할 것"을 선포했다.

이와 관련 △8 · 2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용맹 정진 △이 땅의 평화 수호를 위한 정진 △남북 청년불자 간 활발한 교류와 접촉 등 사항을 결의했다.

아울러 제34차 전국불교청년대회 시상식도 거행됐다. 올해 불청대상은 연복흠씨가 수상했다. 연복흠 대불청 자문위원은 2001년 대불청 충북지구회장, 중앙회 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가 10월 10일 서울 불광사에서 창립95주년 기념 제34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회장 및 사무총장 등 역임했다. 연 위원은 "불교청년대상을 수상하게 돼 그동안 활동에 자긍심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불교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협조와 조언 등 대불천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밖에 △자랑스런 불청선배상-부산지구 류상영 △최우수지구-직할조계사청년회 △최우수지회-부산지구 대각지회 △우수지구-대전충남지구 △우수지회-대전충남 부여지회, 경북 포항지회, 부산 대원지회 등 수상했다. 또한 특별표창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서울지구 황세균 △총무원장상-조계사청년회 임광수, 부산청공지회 이옥숙 △포교원장상-부산지구 권미애, 안민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부산 여여불교청년회 정해길, 울산경남지구 한정인 등이 영예를 안았다. 박아름 기자

"차문화 · 템플스테이 발전 상호 노력"

문화사업단 · 명원재단, 13일 상호업무 협약

템플스테이와 차문화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과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10월 13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템플스테이와 한국 차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의 다도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행사에 대해 지원 협력이 추진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불교와 차는 예로부터 많은 연관이 있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템플스테이 발전과 차문화 진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문화콘텐츠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도 "한국사회에서 전통 차문화를 보급하는데 그간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전통 차문화를 지켜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과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이 10월 13일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진화 스님과 김의정 이사장을 비롯해 사업단, 재단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2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채널A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호스피스 영적돌봄’ 불교적 해답 찾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 10월 16일 제6회 호스피스세미나 개최

“부처님께서는 ‘병자를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고 공양하는 것과 같다. 그 공덕은 어떤 것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자’가 아니라 ‘병자’로 이름한 것은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보라는 가르침입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에서 영적 돌봄가로 활동 중인 다경 스님은 제6회 호스피스세미나에서 ‘종교를 초월한 영적 돌봄’을 강조했다. 불교 수행자의 정체성은 지키되 상대 종교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돌봄이라는 의미다.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협회장 능행, 이하 KBHA)는 10월 16일 충북대병원 강당에서 제6회 호스피스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 KBHA 고문 지현 스님, 협회장 능행 스님을 비롯해 전국 7개 지부 회원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창립 6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호스피스세미나 주제는 ‘호스피스의 불교적 영적 돌봄’이었다. ‘영적돌봄’은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영적 고통을 해소해 영적 평안에 이르도록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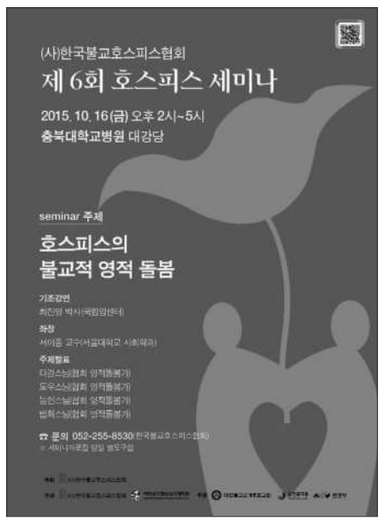
세미나는 최진영 국립암센터 박사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다경 스님의 ‘종교적 영적 돌봄’ △도우 스님의 ‘염불수행을 통한 영적 돌봄’ △능인 스님의 ‘사별가족 영적 돌봄’ △법휘 스님의 ‘예술치료를 통한 영적돌봄’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다경 스님은 임상 현장에서 타종교인들을 만난 사례를 소개하며 “환자와 환자가족의 종교를 존중하며 종교적 관점에 얽매임 없이 유연하고 순발력 있는 돌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생로병사에 있어 종교는 차별과 분별함이 원래 없다”며 “타종교인을 위한 기도문, 임상에 맞는 찬불가뿐만 아니라 불교호스피스 돌봄가들이 찬송가를 숙지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우 스님은 ‘염불수행을 통한 심신 고통 완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에서 영적돌봄가로 활동 중인 도우 스님은 느낌카드 · 욕구카드 등 활용함으로써 염불수행 전후 환자의 마음상태를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환자들의 신체적 통증은 공포로써 심리적 죽음과 닿아 있다”며 “이 고리를 ‘아미타 염불수행’을 통해 완화할 수 있을 거란 확신에 염불수행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번째 발제에 나선 능인 스님은 환자와 환자가족 간에 ‘이음’ 즉, 신뢰를 강조했다. 이는 환자와 환자가족 간 이해 과정은 물론, 그들과 돌봄가 사이의 신뢰도 포함한다. 스님은 “과거정리–관계정리–현실수용–변화상상–소망공유 과정을 차례로 실행했을 때 죽음에 대해 올바로 인식, 성찰할 수 있다”며 “서로를 비추는 인드라망처럼 사별가족과 돌봄가의 관계도 서로를 비춰야 한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돌봄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법휘 스님은 ‘통합예술치료’ 도입 사례를 소개했다. 통합예술치료는 기존 심리치료에 미술 · 음악 · 동작 · 원예 · 연극 등 창작 예술적 매체를 상호 시행함으로써 인간의 내적 고통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제6회 호스피스세미나 포스터

타종교인 위한 기도법 필요성 제기
염불 · 예술치료 등 통해 돌봄
“환자 · 가족과 신뢰 쌓아야”
‘The 아름다운사람’ 시상식도

법휘 스님은 그간 알츠하이머형 퇴행성 치매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 90세 여성 환자에 퍼즐 맞추기, 콜라쥬(Collage, 재료를 잘라내 붙이고 조립하는 미술 기법) 등을 활용하고, 뇌내출혈로 투병 중인 58세 여성 환자에게는 꽃꽂이 등 원예치료를 실시했다.

스님은 “비언어적 활동으로 의사소통이 용이한 미술치료는 인지 기능 중 지남력(指南力, 현재 자신이 놓인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노인 우울 감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며 “자연과 어우러지는 예술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웃음과 희망을 되찾아 주는 것이 나의 과제”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앞서서는 제4회 ‘The 아름다운사람’ 포상식이 진행됐다. ‘The 아름다운사람’ 봉사상은 협회설립 및 운영에 공을 세우고, 호스피스 실천가로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에게 KBHA가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울산지부 진말숙 회원, 부산지부 조애숙 회원이 수상했다. 진말숙 회원은 2007년 마하보디교육원 불교호스피스 교육 제24기 교육과정 수료 후 현재까지 약 1700시간 누적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조애숙 회원은 2005년 환희불교복지대 14기 수료 후 부산의료원에서 호스피스로 활동 중이며, 현재까지 약 2000시간 봉사했다.

KBHA는 “두 사람은 호스피스로서 성실히 활동할 뿐만 아니라 후배 호스피스 활동가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타봉사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협회장 능행 스님은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웅크린 채 눈물짓는 분들을 연민과 헌신으로 품어낸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를 전한다”며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산소 같은 희망이 돼 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정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종로 한복판, 어르신들 행진으로 ‘웃음꽃’

종로노인복지관, 10월 13일 ‘신노인문화 걷기대회’ 성료

따듯한 가을 햇볕이 내리쬐던 오후, 어르신들 웃음소리가 종로 한복판을 가득 메웠다. 걷기대회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친구 분의 손을 잡고 걸으며 연신 행복한 모습이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이하 종로노인복지관)은 10월 13일 제2회 신노인문화 걷기대회 ‘10월의 어느 가을날 종로를 품다–자살예방 편’을 진행했다. 신노인상 발편 및 노인자살예방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종로구 어르신 및 KT 임직원 봉사단 1천여 명이 함께했다.

어르신들은 약 1백 명씩 10개 그룹으로 나뉘어 조계사–광화문–미국대사관–종각역 일대를 행진했다. 약 1시간 거리의 짧지 않은 코스였지만 어르신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힘든 기색이 없었다.

김필규(여 · 85)씨는 조계사 일주문을 나설 때부터 친구 분과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김 씨는 “몇 일전부터 오늘 행사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며 “걷기 운동이 좋다지만 혼자 걸으면 지루해서 잘 안하게 되는데, 친구와 함께 걸으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날씨가 좋으니 더욱 금상첨화다”고 즐거워했다.

또 종로노인복지관에서 급식 봉사 중인 이영복(남 · 62)씨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보면 때때로 근심 가득한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은 얼굴”이라며 “어르신들이 활기찬 모습을 보니 덩달아 행복해진다. 이런 행사가 더욱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웃어 보였다.

아울러 종로구정신건강증진센터와 불교상담개발원이 마련한 자살예방 심리검사 부스와 자살예방 편견 깨기 다트던지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됐다.

본 행사에 앞서 개회식이 열렸다. 걷기 행진을 앞둔 어르신들은 “나는 소중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특별하다”를 외치며 우산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개회식에는 조계사 부주지 담화 스님,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복동 종로구의장 등 참석했다. 정관 스님은 “오늘 걷기 대회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건강해 종로를 한 품에 안을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 말씀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KT임직원 봉사단 약 1백 명이 협조했다. 종로노인복지관 홍보담당자는 “KT봉사단은 복지관 급식배식 봉사도 함께해줘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는 특히 노인 자살예방이라는 의미에 공감하고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도와줘서 더욱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0월 13일 제2회 신노인문화 걷기대회 ‘10월의 어느 가을날 종로를 품다–자살예방 편’을 진행했다.

가을 맞아 어르신들 위한 행사 ‘다채’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만다라그리기 프로그램 등 실시
10월 13~14일 ‘사(死) 축제’ 개최도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노인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관장 희유)는 지난 10월 12일 ‘집단상담프로그램–만다라그리기’를 개강했다. 12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1층 상상교실서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그림을 그리며 집중력과 자신감, 심적 안정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만다라 그리기는 최근 ‘마음명상법’으로 떠오르며 컬러링북으로 출시되는 등 남녀노소 불문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측은 “우울 · 불안 증상을 겪는 어르신들이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만다라로 표현하며 삶의 행복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10월 13일~14일 서울노인복지센터 내에서 ‘사(死) 축제’를 개최했다. 2006년 출시된 죽음준비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 중인 ‘사(死) 축제’는 어르신들이 참여를 통해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노년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죽음을 고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삶의 한 과정으로 바라봄으로써 삶의 가치를 드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장례문화 전시 △노화체험 △임종체험 △웰다잉 등 상담 △문화공연 등 진행됐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측은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참여 · 체험할 수 있는 사(死)축제는 노인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노년기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과 노인문화 발전을 위한 흥겨운 어울림 마당”이라고 소개했다.



10월 13일~14일 서울노인복지센터 내에서 ‘사(死) 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장에서는 장례문화 전시, 노화체험, 임종체험, 웰다잉 등 상담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관장 희유 스님은 “죽음 문제는 노인들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적극적 대처는 생의 과업을 완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노인복지발전 위해 모두 ‘공감’ 하자!

송파노인요양센터, 10월 16~30일 바자회 · 기부릴레이 등 실시

함께 보고, 공감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원장 손지영)은 10월 16~30일 노인복지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축제 ‘공감’을 개최한다.

16~17일 열리는 바자회에는 의류 · 잡화 · 반찬 등 여러 상품들을 ‘착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26~31일에는 시니어봉사단이 직접 재배한 1백여 점 국화작품 전시회가 열리며, 축제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고운기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칼라페스타 재즈그룹과 지역주민이 함께 ‘실천하는 사랑’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특히 ‘나눔’이란 기획 의도를 살려 행사 기간 동안 ‘기부릴레이–나는 희망의 스폰서’가 함께 실시된다. 기부릴레이는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과 손지영 원장을 시작으로 다음 기부자를 차례로 지목하며 기부를 이어간다.

한편 행사 수익금은 장기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거동불편노인들을 위해 침구마련, 작업치료 교구장 구비, 열린쉼터 조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門守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30분,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산지원 010-2554-8100
· 울산지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인문’ 은 창의성의 원천… 삶의 자세 잡아준다

조계종 종무원 인문사회특강

박웅현 TBWA KOREA 크리에이티브 대표

창의력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매일 보는 꽃에서 감성을 찾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창의력이다. 이처럼 모든 대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늘 새로운 것임을 느끼는 것에서 창의력은 출발한다. 박웅현 TBWA KOREA 크리에이티브 대표는 10월 13일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인문사회특강 ‘창의력은 어디서 오는가’ 를 강연했다. 박 대표는 “책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감수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읽었으면 느껴야 하고 느꼈다면 내 인생을 바꿔야 한다”며 “책만이 정답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갈 때 진정한 인문학적 소양이 발휘되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리=이계섭 수습기자



박웅현 대표는… 현재 TBWA KOREA 크리에이티브 대표(CCO)를 맡고 있고 제일기획 제작본부 국장, 아시아퍼시픽광고제 심사위원, 칸국제광고제 심사위원, TBWA KOREA 전문임원 등을 역임했다. 1986년 조선일보광고대상과 1987년 진로광고대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여덟 단어〉〈책은 도끼다〉〈생각수업〉〈인문학으로 광고하다〉〈사람은 누구나 폭탄이다〉 등 15개의 저서가 있다.

창의력의 시작은 ‘탈피’

오랜 시간 동안 광고 일을 해왔습니다. 올해로 28년째입니다. 괜찮은 평가를 받은 광고가 있었던 반면에 많은 실패작도 있었습니다. 광고 분야는 진입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라인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설계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분야이고 척박한 분야입니다.

최근에 상황이 많이 악화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요즘 TV를 많이 시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방송도 아니고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 봅니다. 예전 같으면 TV나 신문광고를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잘나가는 프로그램 시청률이 20%가 넘기 힘든 실정입니다. 예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모래시계’ 시청률이 60%가 넘었었는데 그에 비하면 요즘 인기 드라마나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많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업계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여전히 난파하는 배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매체에 따라 광고도 변해야 하는데, 특히 지하철 풍경을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쳐다보는 광경을 보며 ‘수구리족’ 이라고 냉소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새로운 현실의 측면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케이블 종편에 새로운 채널이 런칭하게 돼 짧은 광고 다큐를 만들게 됐습니다. 돈키호테를 모델로 삼아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돈키호테는 엉뚱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인물입니다. 창의력과 돈키호테는 많은 면이 닮았습니다. 엉뚱한 상황과 말도 안 되는 일은 창의력이 가지는 독특함과 신선한 충격을 대변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창의력이 어디서 오는가’ 인데 솔직히 저는 창의력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창의력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3분 정도 다큐 12개를 준비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모든 구성과 기획과 아이디어는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의력은 회의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회의실에 엄청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창의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별것 아닌 여러 의견이 모여 상호 화학작용을 일으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시작과 끝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문구가 나오고 나서 “그런데 이거 누가 썼지?”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창의력이라는 것은 회의실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닌 저마다의 경험과 체험에서 시작됩니다. 사소하게 지나쳤던 생각이나 상황이 특별한 아이디어가 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의미 부여가 아닌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시’ 라는 영화를 보면 노인들에게 시를 가르치는 시인이 첫 시간에 빨간 사과 하나를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과를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백 번, 천 번, 만 번?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칠판에는 한자로 ‘詩(시)’ 라고 쓰여 있고 그 옆에 ‘본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를 배운다는 것은 창의력을 배운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창의력이 그렇습니다. 별안간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사소한 것이 특별하게 인지될 때 착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문장 중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가리고 있다’ 는 문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문장인데 이처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대상은 더 이상 새롭지 못하게 됩니다.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가 겉으로 아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모른다 생각해야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대상을 새롭게 인지하는 것이 창의력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문(人文)의 생활화

인문에 대해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거나, 먼지가 끼어있거나, 상아탑에 있거나, 학자들에게만 있는 인문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생활의 인문입니다.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저는 그것이 내 삶을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감수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곳에 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읽었으면 느끼고, 느꼈으면 행해라’ 입니다. 알았으면 행해야 합니다. 읽었으면 느껴야 하고 느꼈다면 내 인생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제대로 책을 읽은 사람은 몇 천권을 겉핥기로 읽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 스님이 쓰신 책에 등장하는 한 할머니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못 배워서가 아니라 잘못 배워서다.’ 길이 책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책만이 정

창의력, 엉뚱 · 독특함서 비롯
물리적 결합 아닌 화학적 결합
사소한 것, 특별해질 때 ‘발견’
인문학적 소양 높으면 더 발달

답이 아니고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졌을 때 진정한 인문학적 소양이 발휘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문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문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철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결국에 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문 훈련이 잘돼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저는 문학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음악, 영화 등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을 꼽습니다. 창의력이 어디서 오는지 그 사람들도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것을 보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문장을 만들어내며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 냅니다.

‘산수유는 그 흐릿한 색감 때문에 꽃보다는 꽃이 꾸는 꿈같다’ . ‘벚꽃의 죽음은 풍장인데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그 순간이 벚꽃의 절정이다. 꽃잎 하나 져도 봄빛이 줄어드는데 수많은 꽃잎이 떨어지는 이 슬픔을 어이 견디리’ .

각각 김훈과 두보의 문장입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인문학적 소양이 잘돼 있다 보니 대상에서 새로움을 잡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있는 대상입니다. 벚꽃도 산수유도 우리가 수만 번도 넘게 본 사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후배들이 제게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지 물으면 저는 오늘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돼 묻습니다. 친구랑 수다를 떨겠다고 하면 그 수다 속에 창의력이 있을 것이고, 클럽에 간다고 하면 클럽 속에 창의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어디에 있지 않고 거기에 있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창의력입니다. 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생활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을 꼭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레카는 수년간 흘린 땀의 결과

여러분과 함께 들을 음악 하나가 있는데 짐 리브스(jim reeves)의 ‘he'll have to go’ 란 곡입니다. 노래가사를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예쁜 당신 입술을 전화기에 좀 더 가까이 붙여 주세요 / 우리 단둘이만 있는 것처럼요 / 난 종업원에게 음악 볼륨을 낮춰 달라고 말할게요 / 당신은 함께 있는 남자친구에게 말해주세요 / 그는 가야만 한다고 / 내게 속삭여 주세요 나를 진정 사랑하는지 말해주세요 / 아니면 내가 한 것처럼 그 남자친구가 놓아주지 않고 있나요 / 사랑은 맹목적이지만 마음을 정하세요 나는 알아야겠어요 / 내가 전화를 끊을까요? 아니면 당신 남자친구에게 말하렵니까? / 그는 가야만 한다고 / 당신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못할 것 같네요 / 당신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동안은 / 당신은 나를 원하세요 예스나 노로 대답해주세요 / 사랑하는 당신 난 이해할게요

가사가 마음 아파서인지 요즘과 같은 가을날에 듣기 좋은 곡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 하는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인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 저는 노래를 듣고 느끼는 것이 더 인문적이라 느껴집니다. 또한 사람 사는 모습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문을 찾아서 굳이 어려운 책을 찾아봐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좋은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음악을 비롯한 모든 인문은 삶의 ‘프로포폴’ 같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힘들 때 잠시라도 삶을 마비시켜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인문은 위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은 어려운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책을 쓰면서 ‘세상에 좋은 것은 많다, 볼 마음이 없을 뿐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황현산 선생님께서는 ‘맛있게 먹으려는 사람에게는 온 천지가 산해진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가야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앙드레 지드는 지상의 양식에 ‘시인의 재능은 자두를 보고서도 감동하는 재능’ 이라 합니다. 모두가 먹는 자두를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시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은 그렇습니다. 저는 천재를 믿지 않습니다. 천재를 지속적인 상태로 보지 않고 순간적인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순간 스쳐 가는 영감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느 팔순의 한 할머니가 한글을 깨우치고 노인정에서 시를 배우는 데 누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시를 배우니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했더니 할머니께서는 시를 쓰려고 하니 안 보이던 꽃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니셨으니, 꽃이라면 수만 번도 더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창의성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에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지만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많은 땀을 흘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생각하고 있을 때 생겨납니다. ‘유레카는 수년간 땀의 결과’ 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쳤을 때 처음 목욕을 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물이 처음 넘쳤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고민의 축이 서 있는 상태에서 물이 넘쳤을 겁니다. 뉴턴 또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사과가 떨어지면서 정리를 했다는 것은 이미 임계치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문은 삶을 대하는 자세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삶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바꾸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인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이라는 단어는 창의성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풍부하게 소유하는 삶’ 이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는 삶’ 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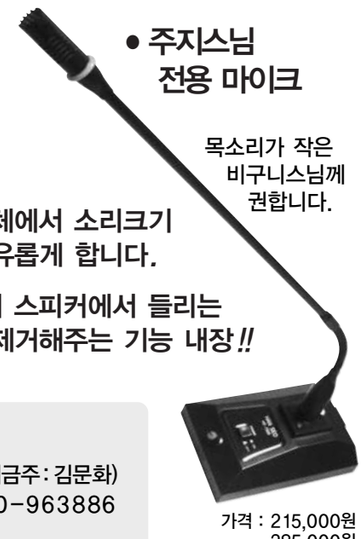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佛바르조 교수 "〈직지〉, 한국에 반환해야"

청주고인쇄박물관 10월 13일 직지 국제콘퍼런스서 주장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을 한국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프랑스 내에서 제기됐다.

10월 13일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열린 '흥덕사지 발굴 30주년 기념 직지(JIKJI) 국제 콘퍼런스' 에 참석한 프랑스 도미니크 바르조 파리 소르본대 교수는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직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직지를 잘 보존할 수 있는 확실한 역량을 갖췄다. (직지가)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바르조 교수는 "20세기 초 프랑스 외교관이 구입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들여온 직지 반환을 놓고 벌어고 있는 논쟁에서 프랑스가 고문서의 보존 측면에서 자국의 우월적 역량을 강조해 반환에 반대하지만, 국제법상 이 논란의 결론은 확실해 보인다"며 거듭 반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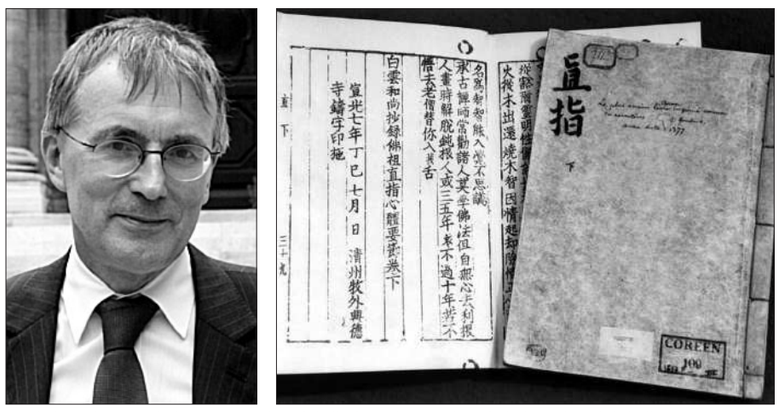
바르조 교수는 이어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구텐베르크 활자가 최초라고 확신했으나 1377년 금속활자를 사용한 책이 한국에서 최초로 인쇄된 점에서 이런 확신도 무너졌다"며 "기술적 진보에서 유럽이 아시아국가보다 앞선다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조 교수는 이어 "고려시대보다 더 앞선 신라시대부터 활자를 이용한 실험이

프랑스 "한국 역량부족" 논리 비판

유럽 위주 기술진보론 경계 목소리

"신라시대부터 활자인쇄 실험했다"



도미니크 바르조 파리 소르본느대 교수(좌)와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중인 (직지).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속활자의 제조와 이를 이용한 인쇄 실험이 한국에서 이미 1100년 경 진행된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리비에 드로뇽 스트라스부르 고등미술장식학교 교수도 "서양 초기 활판 인쇄술은 개인의 독창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의 영향을 통해 점차 완성된 산물"이라고 분석,직지가 세계 인쇄술 발전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남윤성 前 청주MBC 편성국장도 "기초자치단체인 청주가 열정적으로 추진해 온 직지 세계화 사업을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첫 단계로 청주 고인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전환해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前 국장은 "금속활자 발명국인 코리아와 직지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한국의 초 · 중 · 고 교과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며 "직지를 인류 문화사적 의미에서 위상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양양 선림원지서 9세기 통일신라불상 발견

문화재청 "당대 출토지 분명한 금동불 가운데 가장 큰 것"

강원도 양양 '선림원지' 에서 9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 금동불상이 출토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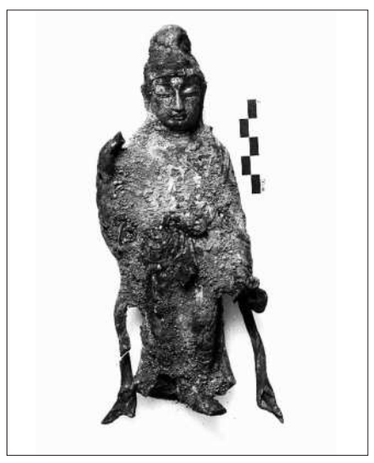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10월 14일 양양군과 한빛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 중인 서면 서림리 미천골 내 '선림원지' 에서 9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을 출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금동불상은 대좌를 포함한 높이가 50㎝가 넘는 대형 불상으로 출토지가 분명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 중 가장 크기가 크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정병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거나 정병의 목을 쥐고 있는 기존 금동불과 달리 정병 고리를 만들어 손에 건 모습을 띄고 있다.

이와 함께 광배와 불상, 대좌도 모두 온전한 모습으로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9세기 금동불로서는 상당히 크고 예술적 감각도 상당히 뛰어난 불상"이라며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가 끝나고 금동불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국가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애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는 금동불에 대해 "출토지가 분명한 금동불이 100여 점 있으나 이번 금동불처럼 크기가


선림원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금동불상'

큰 것은 아직 없다. 현재 출토지가 분명한 금동불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안압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이 경우도 대좌를 포함해 3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배와 불상, 대좌가 모두 남아 있는 것도 드문 예"라며 "보살상의 장식을 비롯해 광배와 대좌가 화려할 뿐만 아니라 정병의 고리를 손에 쥐고 있는 경우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선림원지에서는 금동불과 함께 출토된 '보물 제447호' 선림원지 부도의 옥개석도 공개됐다. 노덕현 기자

경매 나온 불교문화재 대거 박물관으로

〈월인석보〉 등 한글박물관에, 〈반야심경언해〉 등 4점은 사찰로

국립민속박물관이 10월 13일 정약용 필적 〈하피첩〉을 언론에 공개하며 9월 경 함께 경매에 나온 불교 서적에 대한 행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월 경매에서는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문화재단과 문화재단에 소속된 미술관, 종교재단, 사립 미술관과 박물관, 공공성을 띤 비영리 기관과 단체만 응찰이 허용됐다.

정약용 필적 하피첩과 함께 큰 주목을 받았던 〈월인석보 권9, 권10〉은 지난 9일 개관 1주년을 맞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사들였다. 이 박물관은 월인석보와 선종영가집언해 권하를 각각 7억3천만원, 1억6천만원에 매입했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해 편찬한 〈월인석보〉는 훈민정음 창제 후 가장 먼저 발행한 불경 언해서로 조선 초기 국어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선종영가집언해〉는 당나라 때 현각선사가 지은 불경을 세조가 토를 달고 신미대사가 한글로 옮겨 연산군 1년(1495) 찍은 책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경매에서 〈해동조계복암화상잡저〉, 김현성 필적, 〈대혜보각선사서〉, 〈대승기신론의기〉를 1억 500만~1억 5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와 함


월인석보

께 조선시대 불화인 보물 제1204호 '의겸 등필수월관음도' 를 18억원에 구입했다.

김현성 필적은 조선 중기 서화가인 김현성이 1614년 이증의 절구와 율시 9편을 행서로 필사한 것이다.

또 조선 왕실 유물을 주로 취급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성종의 첫 번째 부인인 공혜왕후의 명복을 빌며 간행한 〈지장보살본원경〉을 박물관 문화재 목록에 추가했다.

이외에 4점은 소유자가 사찰로 확인됐다. 양주 송암사는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 구미 자비사는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양산 통도사 전법회관 정각사는 〈육경합부〉, 대전 성현사는 〈묘법연화경삼매참법〉을 각각 소장하게 됐다.

노덕현 기자

열린논단, '삼처전심' 한국적 기원 모색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10월 22일 신사동 MG타워 불교평론 강의실에서 '삼처전심의 한국적 기원' 을 주제로 10월 열린논단을 개최한다.

이날 논사로는 김성욱 UCLA대 박사가 나선다. '삼처전심(三處傳心)' 은 부처님이 세 곳에서 가섭존자에게 전법을 했다는 말로 다자탑 앞에서 자리는 나누어 앉은 일(多子塔前分半座),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보인 일(靈山會上擧拈花), 사라쌍수에서 열반에 든 뒤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인 일(雙林下槨示雙趺)이 그것이다. '삼처전심' 은 선종이 불교 정통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 왔지만 인도와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한국불교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불교평론 측은 "이번 발제를 통해 선불교의 문헌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자료와 맥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짚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불교교육연합회, 제45차 교학연구발표회

불교교육연합회(회장 보광)는 10월 16일 평택 청담중학교(교장 정길자)에서 제45차 교학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학연구발표회에는 불교교육연합회 산하 29개교 교장 및 교법사, 재단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에서는 송재근 청담중 교법사의 교학 연구논문 '교과내용 재구성을 통한 일반교과에서의 불교교육 방안 및 사례' 발표와 함께 공개수업 참관 및 학생 동아리 활동 전시작품 관람 등이 진행됐다.

한편, 불교교육연합회는 1962년 창립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불교종립학교 연합기구로, 총 13개 법인 29개 학교(대학교 1, 고등학교 14, 중학교 13, 초등학교 1)가 가입되어 있다. 종립학교 학생들의 불교적 인격교육을 위해 매년 △불교교육포럼 △교학연구발표회 △교직원수련대회 △교법사연수회 △불교학생간부수련대회 등을 실시해왔다. 노덕현 기자

'완도 법화사지 재조명' 16일 국제학술대회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은 10월 16일 전남 완도 장보고기념전시관 대회의실에서 '동아시아 법화사 네트워크와 장보고' 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법화사(원)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완도 법화사지의 성격 규명과 활용 방안이 모색됐다.

장보고기념사업회 김성훈 이사장의 '해양사에서 본 완도의 위치' , 장보고해양경영사연구회 김문경 명예회장의 '장보고의 해상무역활동과 관음신앙' 기조발표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보〉 제73집 원고 모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12월 31일 발간 예정인 〈불교학보〉 제73집 원고를 모집한다. 〈불교학보〉는 1963년 창간된 이후 매년 4회 발간되고 있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다.

이번 제73집은 불교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에 관한 자유주제로 논문 마감은 10월 30일까지다. 불교문화연구원 발행으로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다. 다만 연구수주 표기 논문 제외한다.

투고 방법은 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논문 투고' 로 신청하거나 '불교학보 온라인투고 시스템' (112. 175.69.230/sobis/bghb.jsp)을 통하면 된다.

논문은 정시 발행을 위해 '불교학보 집필요령' 에 따라야 한다. 논문의 본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 내외(각주분량 포함), 총원고가 150매 이내이다.

(02)6713-5140 노덕현 기자

〈정토학연구〉 제24집 논문 모집

정토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인 〈정토학연구〉 제24집에 실릴 기고 논문을 모집한다. 주제는 정토, 신앙, 의례, 문화 중심의 불교관련 분야로 10월 31일까지 마감이다.

분량은 A4용지 15~18매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영문초록과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10개, 영문 키워드 10개, 참고문헌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6 현대 전원오피스텔 201호 한국정토학회다.(02)581-3137 노덕현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조계총림 송광사 금강산림법회 개최

11일 입재, 내달 29일까지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상)는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주간 사자루에서 선지식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금강경의 다양한 내용을 전할 스님들은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의 입재 법문을 시작으로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쌍봉사 회주 영조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백련사 주지 승원 스님, 등명낙가사 주지 청우 스님, 중앙승가대학 교수 정인 스님 등 모두 9명의 스님들이 매주 법문을 이어간다.

보성스님은 이날 입재 법문에서 "남는 것은 끝까지 공부해야 하는 것이 남는 것이다. 아무쪼록 노력해서 후회를 하지 않도록 정진해달라"고 대중에게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을 가운데서 괘불을 만나다

미황사, 24일 '제16회 괘불재' 개최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땅끝마을 미황사(주지 금강)는 오는 10월 24일 '제16회 괘불재'를 개최한다.

'미황사의 마당'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괘불재는 괘불 이운 의식으로 시작해 법회를 알리는 불문 낭송,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의 법어 등으로 이어진다.

오후 6시 시작하는 음악회에서는 해남 지역 사람들의 남도소리에 이어 바이올리니스트인 이경선 서울대 교수가 이끄는 서울 비르투오지 챔버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음악 연주가 미황사의 가을 밤하늘을 장엄하게 한다.

특별행사로 민중화가 이종구 화백의 '절집기행' 특별전이 자하루에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연근김치 맛보러 강화로 오세요

선원사, 23~25일 '연근김치 축제'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내 연꽃 축제장에서 '제3회 연근김치 축제'를 개최한다.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축제 개막식에는 임춘희 명창 등이 축하공연을 진행하며, 축제에는 연근 김치 담그기, 장어 데려가기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들로 꾸며진다.

또한 25일에는 연근김치 국제 요리 경연대회와 호국 강화 청소년 지도자 대상 시상식도 열린다. 신성민 기자

외국인 근로자 한국을 말하다

빛고을나눔나무 11일 한국어 말하기 대회

베트남 · 네팔 등 17명 참석해
한국서 경험 · 사연 등 풀어내
문화 공연 등 부대행사 '다채'



광주외국인복지센터과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는 10월 11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의 봄은 꽃이 많이 피고 바람도 시원해서 아름다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볼 수 없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눈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소니는 이제 28살이다.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온 소니는 광주의 한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한국의 첫 소감은 고향과 다른 한국의 날씨였다.

소니는 지난 10월 11일 광주 지역 불교단체에서 진행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날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소니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자신이 겪은 한국의 생활을 재치있게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과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 상임이사 혜공)가 공동 주최한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였다.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 이날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의 경험담, 재미있는 사연, 직장생활 이야기를 서투른 한국어로 2시간 동안 이어갔다.

참가한 국가도 다양했다. 베트남 레구억휘, 네팔 부뻔덜 묵빈, 미얀마 마웅리, 인도네시아 베리구르니아완, 캄보디아 쟌사치엉, 동티모르 떼보, 몽골 손쥬자브, 키르키스탄 아자마, 태국 위라칸, 우즈백 너트루백 등 30여 참가자중 1차 선발된 17명은 모국을 대표해 한국생활에서 느낀 에피소드를 풀어냈다.

심사에 참가한 혜공 스님, 보혜 스님(비전사 주지), 정명혜 교수(남부대), 이복남(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장) 등도 주제의 독창성, 적절한 문장, 발음과 억양, 자신감, 청중과 공감 등 기준에 맞게 심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앞서 혜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사회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다. 이들은 우리와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지만 생각과 느낌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며, "한국생활에서 꼭 필요한 언어를 습득해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주성 센터장도 기념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문화와 언어의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경함을 같이 나누고자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여성이 소수민족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행사는 1부 한국어대회, 2부 벨리댄스, 네팔공연, 인도네시아 공연을 진행했다. 3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대상에는 노트북, 2등 카메라, 3등 자전거 등 다양한 상품과 기념품이 제공됐다. 양향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 어르신 공경해 孝사상 고취"

고창군사회복지시설, 14일 복운 경로의 날 행사

노인복지 공로패 수여
문화공연, 어울림 한마당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푸드 및 뱅크)은 경로의 달을 맞아 제8회 복운 경로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10월 14일 복지관 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노인에 대한 공경 의식을 높이고 어르신에게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선운사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우 스님, 상임이사 범여 스님,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군 의장, 양향환 고창군사회복지협의회장, 고창농협 유덕근 조합장과 강공희 이사, 김성수 감사 등 지역주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 및 공로패 수여, 문화공연, 2부 어울림 한마당으로 투호, 고리 던지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노인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에 힘써 온 김판길 · 박동은 · 김길태 어르신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대원 스님은 "오늘 하루 어르신들께서 즐겁고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경로 효친 사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로의 날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선운사 신도회장, 선운사 관음회, 동국사, 선운사복지재단 이사 강공희, 선운산농협 오양환 조합장, 성두과학문구, 진보축산, 죽림수산 등에서 성금과 물품을 후원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은 경로의 달을 맞아 제8회 복운 경로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한편,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은 지난 2007년 개관하여 '복된 만남 아름다운 인연으로' 라는 표어를 신조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용성 조사 선양 통해 통일한국 이끌자"

죽림정사, 11일 용성 조사 오도 129주년 법회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이자 3 · 1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중의 한분인 백용성 조사 오도 129주년 찬탄법회가 10월 11일 탄생성지 전북 장수 죽림정사(조실 불심도문)에서 열렸다.

죽림정사 용성교육관에서 열린 용성조사 오도 129주년 기념법회에는 정토회 회주 법륜 스님을 비롯해 정토회 상임지도법사 유수 스님, 수승행 세계불교청소년교화 후원회장, 정토회원등 6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환영사, 온 겨레의 노래 제창, 정근 희사, 법문에 이어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유수스님 법호수계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 앞서 대중들은 7여래불, 70전등조사, 7대사 48선지식, 56조사 등 188위에 대한 다례재를 봉행했다.

법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용성조사께서는 자각, 각타, 각행, 각만의 대각사상을 선양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스님이셨다" 며 "바른 불교를 대중이 알기 쉽도록 생활화했던 용성조사의 업적을 더욱 발전시켜 통일된 조국과 불교의 세계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장수 죽림정사는 10월 11일 용성 조사 오도 129주년 찬탄법회를 개최했다.

남고산성 호국정신을 기리며

전주 남고사, 8일 '남고산성 산사음악회'

전주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남고사(주지 원혜)에서 '제2회 남고산성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10월 8일 전주 8경중의 하나인 남고모종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음악회는 기념식에 이어 남고사와 남고모종의 역사적 의미 소개, 산사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남고사와 지역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고 지역의 명소인 남고산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음악회는 통기타 가수 오산영, 전주 시립 국악단원 최영호 곽영종의 대금연주, 에버그린악단장 정민호의 섹소폰 연주, 장승일의 요들송, 고인돌밴드 리더 이예주와 강명진의 전자바이올린 연주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됐다.

남고사 주지 원혜스님은 남고산성 내의 문화재를 소개하며 "남고사와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음악회를 마련했다" 며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남고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남고사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남고사(주지 원혜)에서 10월 8일 '제2회 남고산성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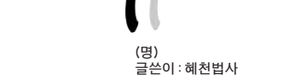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한국전쟁 피난민 恨 위로의 장 마련

부산 선암사, 10월 31일 '제1회 백양산 어울림터 한마당'

부산 당감동 지역은 1950년대부터 30년간 화장장을 운영했던 지역이다. 화장을 하고 난 후 대부분의 부산 지역민들은 당감동을 품고 있는 백양산 자락에 유골을 뿌리곤 했다.

한국 전쟁을 겪은 이 후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에 화장터를 이용한 대부분의 부산 시민들은 피난민들로 뼈 아픈 한을 간직하고 있다. 백양산은 그 시대적 상황과 피난민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소다.

이곳을 위로하기 위해 부산 선암사(주지 원범)가 나선다. 선암사는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제1회 백양산 어울림터 한마당'을 10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한다. 행사는 식전 의식으로 천도의식과 육법 공양으로 시작해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영주암 회주)의 추모 법어로 법요식이 마련된다. 이어 살풀이, 극락무, 염불, 바라춤 등 위령재를 봉행 한 후 백양산 영가와 인연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헌화하고 향을 직접 올리는 시간이 준비된다.

선암사 주지 원범 스님은 10월 14일 선암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부산에 있는 대부분의 시민은 화장터와 인연이 있다. 어려웠던 그 시대 당시 죽음을 맞이한 친인척은 여기에 위치했던 화장터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곤 했다"며 "백양산에 뿌려진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유주무주 합동영혼위령 천도재를 지내므로 부산의 시민들을 위로하고 그 때 당시의 아픔을 안아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한 40년 전 당감동 화장터를 찾은 인연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1974년 당시 17세를 넘긴 어린 사미승이 못에

30년간 화장장 유골 뿌려진 곳
추모 법요식 및 위령재 봉행 예정
"원효 화쟁 근간, 문화행사 지속"

들어갔다 심장 마비로 사망해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 처음으로 당감동 화장터에 온 적이 있다고 했다.

당시 19세였던 스님은 이곳은 통곡의 장소였다고 기억했다.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한 어린 아이, 자살한 여인, 기계에 몸이 끼여 죽은 노동자, 군인 등 수많은 운구가 줄을 이었다. 검은 연기로 뒤덮인 백양산 가운데에는 고통 받는 중생들을 껴안듯 선암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했다. 스님은 그


'제1회 백양산 어울림터 한마당'의 개회 일정을 소개하는 원범 스님

장면을 잊지 못한다고 전했다.

스님은 "그 후 30년이 지나 2004년에 이곳 선암사에 주지 임명장을 받고 오게 됐다. 그리고 조건을 갖추게 되면 꼭 지역민들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야겠다고 목표를 세웠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번에 이루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종교와 관련 없이 백양산과 인연이 있는 모든 부산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범 스님은 "이번 행사에 부 제목을 보면 '인연영혼'이란 말이 들어간다. 영혼이란 말을 불교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지역 시민들이 보고 친숙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기했다"며 "또한 제목 가운데 '어울림터'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음악회 및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함께 마련해 더욱 풍성한 행사를 준비할 계획을 담은 것이다"고 전했다.

스님은 "현재 참석할 인원이 2000여명이 넘는다"며 "이를 위해 순환버스를 운행하며 오신 모든 분들이 안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 백양산 선암사는 1340여년 전 원효 스님이 창건한 천년 고찰로 이번 행사는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을 근간을 하고 있다. 선암사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천년 고찰 중 하나이다.

하성미 기자

불국사 제42회 신라불교 영산대재 봉행



경주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은 10월 9일 경내 앞마당에서 제 42회 신라불교문화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영산대재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등 2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불국사 문화회관 선차반의 육법공양의례와 함께 헌화와 법어, 영산재의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무형문화재 이수자 종오 스님 외 8명의 스님이 직접 괘불봉정 영가천도의식을 진행했다.

회주 성타 스님은 "찬란한 신라문화와 삼국통일 정신을 이어 한민족 정체성 회복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통일염원과 미래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신라의 거룩한 모든 성각자를 모시고 찬탄하는 의식이 영산대재"라고 소개했다.

관장 종상스님은 "위대한분의 자취에 서 이 땅의 문화유산을 부처님의 영상에 성사님의 훌륭한 업적을 기려, 불국정토와 모든 중생들의 자유와 편안함의 나날이 되길 발원하며 봉향제문을 올린다"고 했다.

한편, 2부에는 예술제가 참석한 많은 불자와 관광객들과 함께하여 가을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명대사 열반 제405주기 추모대재



부산불교연합회(회잘 수불)는 10월 8일 부산 초읍 부산어린이대공원 내, 사명호국광장에서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 수석 부회장 무원 스님, 상임 부회장 효원 정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이윤희 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명대사 열반 제405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회장 수불 스님은 "사명대사는 오늘 우리에게 국난을 극복하신 선조들의 호국애민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준다"며 "사명대사의 결연한 호국의지를 본받아,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도록 민관군이 합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석 부회장 무원 스님은 "사명대사께서 신구의 삼업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무량복덕의 광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진리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사회 나눔 불사는 중요한 방법이며 애국 불교를 실현하도록 더욱 정진 하자"고 당부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공심·공체·공생의 화쟁정신 살리자"

경주 분황사 원효예술제 10월 10일 개최… 500여 대중 모여



원효 스님의 화쟁정신을 이어 국민화합에 앞장서기 위한 문화한마당이 펼쳐졌다. 경주 분황사 주지 성효 스님은 10월 10일 제19회 원효예술제를 분황사 경내에서 개최했다.〈사진 위〉

이날 예술제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및 불국사 본말사 스님들과 정수성 국회의원, 최양식 경주시장, 권영달 경주시의장, 이평래 원효학연구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명종 5타와 함께 불국선다회의 육법공양과 삼귀의례 반야심경봉독 내빈소개 및 헌화와 발원문 법어 추모사 등으로 진행됐다.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은 "세계화합을 위해 모든 생명체가 공심·공체·공생으로 하나되며, 원효 스님의 화쟁정신으로 중생제도에 나서자"고 발원했다.

회주 성타 스님도 "너와 나, 우주의 생명체가 하나임을 가르치신 원효 스님의 일심 화쟁정신으로 우주적인 삶을 살아가자"고 법문했다.

이어 최양식 경주시장, 권영달 시의장, 이평래 원효학연구원장의 추모사와 선재소녀합창단 이시연 학생의 원효성사 추모시 낭독이 진행됐다.

2부 예술제에서는 명상음악가 홍순지씨와 관 무용단, 선재어린이 합창단 등이 아름다운 선율과 율동으로 분황사를 찾은 불자와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한때를 선사했다.

경주 분황사 주지 성효 스님은 "분황사는 원효 스님이 출가 후 주석하며 많은 저술을 남긴 곳으로 봄에는 제향대재를 가을에는 원효예술제를 열고 화쟁사상을 선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생명나눔, "함께 걸으며 희망 세상"

생명 사랑, 희망 가득한 세상을 위해 부산시민들이 함께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본부(본부장 원범)는 10월 10일 '제7회 생명나눔 걷기 대회'를 부산 시민공원에서 개최했다. 1000여명의 부산 시민들은 주말을 맞아 뜻 깊은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긍정적인 반응으로 무대 행사와 걷기 대회에 적극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시선원 K-MBSR 기초교육 9기 모집

부산 해운대 명상교육 전문도량 시선원(지도법사 우현)은 K-MBSR 기초교육 제9기를 모집한다. 강의는 10월 31일~12월 12일 동안 격주 토요일에 열린다.

강의는 이론과 실습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론교육은 △K-MBSR 명상의 이해 △심신의학기본원리 △스트레스와 심신의학 △스트레스관리와 대처법 △명상치유의 과학적 원리 △지금 이순간과 함께하기 △명상실습과 심신이완법 △바디스캔 △호흡명상 △자애명상 △마음챙김 명상요가 등이다. 실습교육은 △공식명상(바디스캔, 호흡명상, 정좌명상, 하타요가) △비공식명상(먹기명상, 걷기명상, 자애명상, 용서명상), 수련 후 질의응답이다. (051)746-7611

하성미 기자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 합창제 성료



전국의 청소년 합창부가 모여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열렸다.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창립 19주년을 기념하며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를 10월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 개최했다.

합창제에는 지도위원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 하림 스님(미타선원 주지) 및 부산 파라미타 백명숙 협회장, 김석조 전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교육감 및 참가자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백명숙 협회장은 "8회를 맞는 파라미타 청소년 합창제가 청소년 여러분의 멋진 삶에 행복한 추억을 선사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유난히 변덕스러운 날씨로 연습이 무척 힘들었을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대상은 부산진여자고등학교 산정합창단, 금상은 진해여자중학교, 송곡여자고등학교에게 각각 돌아갔다. 은상은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김해여자중학교이며 동상은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안선고등학교, 원곡 중학교가 받았다.

하성미 기자

대한민국 새로운 장례문화 **화분장묘 분재공원**

한국최초 특허받은 장례묘(화분장)! 특허 제10-1467668호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어렵습니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읍시다.

화분장이란? 연꽃좌대화분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점
- ◆ 이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 1기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 상조회사. 지역장례식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 현 수목장 비용 300 ~ 500만원
-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영가등.천도재.기타



화분장 장례문화연구소에서 아래와같이
전국 각지역총판을 모집합니다. 많은관심바랍니다.

자격조건

전국 사찰 및 교회 종사자분들과 개인토지보유자분(임야/개발제한구역임야 제외 | 농지(전/답 보유하신 분) 우선권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의 **사업주**님들을 상담환영합니다.

각지역모집구역 소개

서울 | 부산(상담 중)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경상북도(일부) | 경남(상담 중) | 제주도 | 대구 | 울산

한국 화분장 장례문화연구소 회장 : 서정율 | 대표이사(특허등록자) : 김성만

◇본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2109호 (역삼동,성지하이츠 2차빌딩) ◇홈페이지 : www.화분장.kr / www.화분장.net

연락처 : 서울본사 02)555-4452 / H·P 010-8911-4452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단)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산에 불 놓은 듯 아찔한 '秋色'… 단청보다 화사해

단풍이 아름다운 산사

홍천 수타사


수타사 단풍은 단청보다 화사할 만큼 아름답다. 10월 14일 경내엔 아직 좀 단풍이 이르다. 하지만 2주 후면 짙고 노골적인 빨강과 노랑 단풍이 절을 에워쌀 것이다.


삼성각 뒤 붉은 단풍이 인상적이다.



수타사 입구에 위치한 공작산 생태숲 입구.

강원도 홍천의 가을은 카메라 렌즈만 갖다대도 그림이다. 드넓은 홍천 땅의 80%이상이 산지다 보니 가을이면 붉은 단풍 산으로 천지가 곱게 물든다. 그 중에서 수타사계곡 단풍은 단연 손꼽힌다. 붉은 단풍이 물과 어우러진 풍광은 보는 순간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든다. 거기에 일주문 옆 입구에 자리잡은 잘 보존된 공작산 생태숲은 보너스다. 볼거리가 풍부하고 갖가지 식물들이 즐비해 힐링 장소로 적합하다. 공작산은 세조의 비 정희왕후의 태실이라 조선시대부터 보호를 받았다고 한다.

수타사 주차장을 지나 숲길에 들어서면 숲해설 신청 부스가 나온다. 공작산 생태숲과 산소길의 나무와 꽃, 풀 등을 자세히 해설해 준다. 출발은 부도밭 앞 솔숲이다. 계곡물 건너 수변길에 들어서면 물과 어우러진 오솔길이 운치를 더한다. 또한 각종 나무들서 발생되는 피톤치드가 속세의 찌든때를 말끔히 씻어준다.

신라 성덕왕 7년(708) 때 창건한 수타사는 1300년을 훌쩍 넘은 천년 고찰이다. 오랜 역사에 걸맞게 월인석보(보물 745호) 등 많은 성보문화재가 있다.

수타사에 들어서기 전 시원스레 펼쳐진 연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연지 가운데를 뚫고 이어진 길이 공작산 생태숲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 이 곳은 자생화원, 수생식물원, 계류, 생태관찰로, 숲속교실 등의 이름으로 나뉘었지만 겉다보면 굳이 그렇게 구분치 않아도 보기 좋고 즐기기 좋은 곳이다. 미리 신청하면 숲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두 날개를 활짝 펼친 공작새처럼 산자락을 뻗어 내린 공작산은 이름만큼이나 수려한 산세가 수려하다. 공작이 알을 품은 듯한 '공작포란형(孔雀抱卵形)' 명당에 자리 잡은 것이 수타사다.

708년에 창건해 우적산(牛寂山) 일월사(日月寺)라 했는데 누가 지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창건 이후 영서 지방 명찰로 꼽히다가 1457년(세조 3년)에 현 위치로 옮기면서 수타사(水墮寺)라 불렀다. 그후 임진왜란의 병화로 완전히 불타버린 뒤 40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다가 1636년(인조 14년) 공잠 대사가 중창을 시작해 법당을 다시 지었고, 뒤이어 1644년 학준 스님이 선당(禪堂)을 지었다. 1647년에는 계철 스님과 승가 스님이 승당을, 1650년(효종 1년) 도전 스님이 정문을, 1658년 승해 · 정명 스님이 흥회루를 건립함으로써 정형된 가람을 갖추게 되었다.

이어 1670년(현종 11년)에는 정지 · 정상 · 천읍 스님이 대종(大鐘)을 주조해 봉안하고, 1674년에는 법륜 스님이 천왕문인 봉황문을 세웠다. 1676년(숙종 2년)에 여담 스님이 사천왕상을 조성했다. 그뒤로도 1683년까지 불사가 계속되어 청련당 향적전 백련당 송월당 등의 당우들도 차례로 중건돼 옛 모습이 재현되었다.

신라 성덕왕 7년(708)에 창건된 고찰
대적광전, 내부장식 정교하고 빼어나
〈월인석보〉 등 성보문화재 다수 소장

1811년(순조 11년)에 지금의 명칭인 수타사로 이름을 바꾸고, 1861년(고종 15년)에 윤치 스님이 중수했으며, 1878년 동선당을 다시 세우고 칠성각을 신축했다. 또한 1976년 심우산방을 중수하고, 이듬해 삼성각을 건립했으며 1992년에 관음전을 신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적광전을 비롯해 삼성각 봉황문 흥회루 심우산방 · 요사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대적광전(강원유형문화재 17년)은 수타사 중심 법당으로 내부 장식이 정교하고 아름답다. 심우산방 옆에는 강원도보호수 제166호로 지정된 수령 5백년의 주목 한 그루가 있다. 이 주목은 1568년에 사찰 이전을 관장하던 노스님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땅에 꽂은 것이 자라난 것이라고 하며, 나무에 스님의 얼이 깃들어 있어 귀신이나 잡귀로부터 수타사를 지킨다는 설화가 있다.

이밖에도 보물 제745호로 지정된 〈월인석보(月印釋譜)〉와 고려 후기의 삼층석탑(강원문화재자료 11년), 홍우당부도(강원문화재자료 15년) 등이 있다. 얼마 전까지 사찰 안에 있던 성황당은 관음전 신축을 위해 철거했다. 사찰 안에 성황당이 있었던 것은 특이한 경우이다.

수타사 단풍은 단청보다 화사하다. 이토록 짙고 노골적인 빨강과 노랑이 절을 에워싸도 되나 의아할 지경이다. 산에 불을 놓은 듯 아찔한 추색(秋色)이 수행자의 단정한 마음에 도깨비불처럼 번질까 우려되는 고즈넉한 가을 산사는 점점 익어가고 있었다.

홍천 수타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주변 가볼만한 곳

국내 최대 규모 홍천 은행나무숲… 노란 비 내리는 천년 정원


홍천의 가을여행지로 이름난 광원리 은행나무숲 전경. 은행나무 2000여 그루가 심어져 장관을 이룬다.

이미 입소문이 난 홍천의 가을여행지는 바로 은행나무숲이다. 개인 소유의 정원으로 1년 중 딱 10월, 그것도 20일동안만 개방한다. 2,00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은행나무 숲으로 매년 10월이 되면 노랗게 물든 가을 절경을 감상하러 전국의 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다. 10월 14일 기자가 찾은 은행나무 숲은 평일인데도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가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이 숲은 홍천의 동쪽 끝, 오대산 자락과 인접한 내면 광원리에 있다. 국가나 지자체서 관리하는 공원이 아닌 사유지다. 터널을 이룬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 때면 그런 장관이 다시 없다. 홍천 은행나무 숲은 아픈 아내의 쾌유를 바라며 한 군민이 가꾸게 된 숲이다. 1985년부터 25년 동안 단 한번도 개방 하지 않다가 지난 2010년 각종 매스컴을 통해 소문이 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대표적인 가을철 단풍관광지로 알려졌다.

은행나무 숲은 단 한 그루의 다른 수종도 없이 5m 간격으로 잠실운동장 크기인 4만여㎡의 면적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은행나무 숲은 가족 나들이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아름다운 사진을 담고 싶은 사진작가들의 출사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서울서 3시간 정도 걸리는 녹록지 않은 거리인데도 말이다.

숲을 조성한 사연도 노란 은행나무잎처럼 아름답다. 만성 소화불량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아내의 쾌유를 빌며 남편은 은행나무 묘목을 하나둘 심기 시작했다. 30여년 세월이 흘러 묘목은 아름드리나무가 됐고, 아내는 건강을 되찾았으며, 가을마다 노란 비가 내리는 숲에 대한 소문은 홍천을 넘어 널리 퍼져나갔다. 남편은 부부의 정원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한다. 축복과도 같은 풍광을 널리 공유하고자 한 것. 은행나무 보시 혹은 회향인 셈이다.

아무튼 이 가을에 꼭 가봐야할 명소다. 주소는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686-4이다. **김주일 기자**




선으로 가는 길 (대,소)

달마도 (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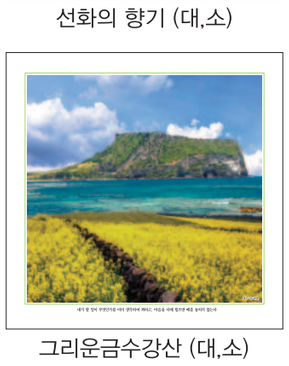
밝고 향기롭게 (대,소)

선화의 향기 (대,소)

반야심경 (대,소)

산사의 꽃 야생화 (대,소)

암자에 길을 묻다 (대,소)

부처님의 성지 (대,소)

그리운금수강산 (대,소)

붓다의 향기 (대, 소)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 · 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 · 암자 · 포교당 등 대 · 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수첩

트윈스프링 차걸이

‘지리산승가’ 연담 찬탄… 대흥사 교류로 전등계 맺어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⑥ 다산 정약용 ㊦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대학자로, 2500여 수가 넘는 시를 남겼다. 경세(經世)에 관심이 컸던 그가 피폐해진 정치, 사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그의 수많은 저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미했던 그가 7세의 어린 나이에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고 있으니(小山蔽大山)/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라(遠近地不同)”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를 본 그의 부친이 “분수(分數)에 밝으니 자라면 틀림없이 역법과 산수에 통달할 것”이라 하였다고 한다. 연천과 화순 현감을 지냈던 그의 부친은 바로 정재원(丁載遠)으로, 예천 군수와 진주 목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다산이 고승 연담 스님을 만난 것은 1778년 무렵이다. 1777년 가을에 화순현감으로 부임하는 부친을 따라 아내와 함께 화순으로 간 다산은 이듬해에 화순으로 온 둘째 형 약전과 동림사에서 학문에 정진한다. 당시 동림사에는 교학과 선에 밝았던 연담유일(1720~1799)이 머물며 수행하고 있었으니 현감이었던 그의 부친은 이미 연담과 알고 지낸 사이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기에 두 아들을 동림사에 보내 공부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 유생들 중에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절에 머물며 공부하는 이들이 많았다. 다산 또한 이를 위해 동림사에 머물렀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연담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된 셈이다.

그가 연담 스님을 위해(示有一) 지은 〈지리산승가(智異山僧歌)〉에는 연담의 수행자다운 풍모를 잘 드러냈다. 1778년경 연담 스님의 모습은 “백발의 스님은 검은 승복을 입고(有僧白毫垂緇幌)”있었다고 한다. 당시 연담은 58세의 노승이었기에 백발이 성성했다. 하지만 수행이 높았던 스님은 “솔잎에 멀건 죽으로 목을 축이고(松葉稀 ㄴ糜沾喉)/ 갈사(칡으로 만든 실)로 만든 방한모로 이마를 가렸(葛絲煖帽常覆 ª)”던 검소한 수행승이었다.

이미 그의 수행은 무주무상(無住無常)을 넘나든 경지였기에 “꽃이 피고 꽃이 져도 거들떠보지 않고(花開花落了不省)/ 오가는 구름처럼 한가할 뿐이라(雲來雲去只同閑)”라고 한 것은 아닐까.

17세의 어린 다산이 불교의 이런 경지를 읊었으니 그의 불교에 대한 박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뿐 아니라 다산은 이미 연담 스님의 수행력을 간파한 것일까. 그러기에 그가 “내 들으니 설파가 선정에 들었다고 하는데(吾聞雪坡入禪定)/ 그 높은 발걸음이 여기에 숨어든 건 아닌가(無乃高 ㅣ此逃匿)”라고 했을 것이다. 그가 말한 설파상언(雪坡尙彦1707~1791)은 연담의 스승으로 화엄에 밝았던 대흥사 승려이다. 후일 다산이 강진 유배시절에 만덕사 승려 아암혜장을 만난 것이나 대흥사의 승려들과 전등계를 맺게 된 인연은 이로부터 싹을 튼 것인지도 모른다.

조선 후기 성리학에 전도된 시류에서도 승려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불교 경전을 배척하지는 않았던 다산은 유학자이지만 불교를 가까이한 인물이다.

그는 1762년 6월에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에서 태어났다. 8대가 연이어 홍문관에 들어갔기에 ‘팔대옥당(八代玉堂)’이라 칭송된 명문가 집안이다. 그의 어머니는 해남 윤씨 집안으로 공재 윤두서의 손녀이다. 어린 시절 천연두를 앓았던 흔적은 그의 오른쪽 눈썹 위에 남아 눈썹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고 한다. 이로 인해 자호(自號)를 삼미자(三眉子)라고 하였다.

그가 증광감시(增廣監試)의 초시(初試)에 합격한 것은 1783년이다. 이듬해에 회시(會試)에 합격하여 생원(生員)이 되었다.

천주교와 관련된 집안의 내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산의 형 약종과 그의 아들 철상이 신유박해(辛酉迫害1801년에 일어난 천주교인에 대한 박해사건) 때 순교했고,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승훈은 그의 자형이다. ‘황사형 백서’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황사영이 바로 큰형의 사위이고 그에게 천주교 교리책을 전해 준 이벽은 큰형의 처남이었다.

실제 다산은 적극적으로 천주교를 신봉한 것은 아니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승하한 후 그의 삶을 질곡으로 빠뜨린 것은 천주교와 관련된 일이었다. 천주교 교리에 대한 그의 호기심은 두고두고 그를 괴롭힌 빌미였던 셈이다.

17세에 화순 동림사서 학문 정진
연담 스님 만나 불교와 인연 쌓아
천주교리 관심 있었지만 교인 아냐

암행어사 시절 백성들의 현실 목도
토지 개혁을 위한 ‘田論’ 발표하기도
정조 승하 후 강진 유배, 새 삶 시작



초의 선사가 그린 ‘다산 초당도’.〈개인 소장〉 정조의 승하 후 당파싸움에 밀린 다산은 강진으로 유배를 온다. 다산은 유배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갔다. 그리고 초의 선사 등 대흥사 승려들과 교류했다.



다산 정약용의 초상화(김호석 作, 강진군 소장). 다산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다.



다산 정약용 생가 전경. 〈박동춘 제공〉 다산은 7세에 시를 지을 정도로 영특했다고 전해진다.

다산은 과거제도에 부정적이었지만 벼슬을 멀리하거나 산림에 은둔한 산림처사는 아니었다. 과거를 통해 벼슬에 오르지 않고는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펼칠 수가 없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문과에 급제한 후 벼슬에 나아가 초계문신으로 임명되는 영광을 누렸고 정조의 총애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부친상을 당한 후 잠시 벼슬을 사직하였다가 다시 관직에 나아갔을 때에는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그리 단단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임금의 신임은 변함이 없었지만 노론 벽파들의 정치공세로 어려움을 겪는다. 다산의 고뇌는 정치적 상황만큼이나 암담했다.

얼마 후 다시 홍문관 교리에 제수되었다가 연천 지방을 순행하는 암행어사로, 이 지역을 암행 순찰하던 그의 눈에 비친 현실은 피폐될 대로 피폐되었다. 이런 현실을 그린 시 ‘적성촌에서’는 암행어사 시절에 군포와 환곡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참담한 삶을 “구리 수저 이정에게 빼앗긴 지 오래인데(銅匙舊遭里正攘)/ 지금은 옆집 부자가 무쇠솥을 앗아 갔네(鐵鍋新被隣豪奪)”라고 하였다.

그리고 군포에 시달리던 백성의 어려움은 “큰 아이 다섯 살에 기병으로 등록되고(大兒五歲騎兵簽)/ 세 살 난 놈은 군적에 올라 있어(小兒三歲軍官括)/ 두 아들 세공으로 오백 푼을 물고 나니(兩兒歲貢錢五百)/ 빨리 죽기 바라는데 하물며 옷을 입히랴(願渠速死況衣褐)”라는 당시의 현실을 참담히 그렸다.

이런 실상은 다산의 마음에 각인된 듯하다. 후일 그가 사회제도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목민심서〉나 〈흠흠신서〉, 〈경세유표〉는 이런 배경에서 저술된 그의 노작(勞作)이다.

조선 후기 사회적인 참상은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들의 부패와 왕실의 무능력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제도의 개혁안을 낸 것이 〈전론(田論)〉이다. 다산은 〈전론(田論)〉에서 “제가 듣기에 토지에는 두 사람의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임금이고, 그 두 번째는 농사를 짓는 사람(臣嘗謂田有二主 其一王者也 其二佃夫也)”이라 하였다. 따라서 권력과 힘이 있는 지주들이 사사로이 거두어들이는 소작료는 부당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토지를 개혁하여 “힘쓴 것이 많은 사람은 양곡을 많이 얻고 힘쓴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얻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는 그가 젊은 시절에 주장했던 ‘여전제(閭田制)’의 기본 골격이다. 실현 가능성이 적었던 이 개혁안은 훗날 ‘정전제(井田制)’로 수정 보완되었는데 이는 헐벗고 고생하는 백성을 위해 그의 충심(衷心, 정성스러운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산은 수많은 시를 지었다. 그에 시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본받은 인물은 황상(黃裳)이다. 강진의 사의재 시절에 기른 아전 집안 출신 황상은 다산의 시격을 이은 제자로 칭송되었을 뿐 아니라 끝까지 사제의 의리를 지킨 인물이다. 이를 기리기 위해 다산의 아들 유산 정학연은 두 집안의 결연을 다지는 정황계(丁黃契)를 맺어 대대로 우의를 다지는 증표로 삼은 바가 있다.

다산이 강진에서 보낸 〈시양아(示兩兒)〉에는 다산의 시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난다. 그 내용은 이렇다.

무릇 시의 근본은 부자, 군신, 부부의 도리에 있으며, 혹은 그 즐거운 뜻을 드러내기도 하고 더러는 원망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정을 알리기도 한다. 그 다음에는 세상을 근심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항상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재물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려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안타까워하여 차마 버리지 못하는 뜻이 있은 연후에 바야흐로 시를 짓는 것이다. 다만 자신의 이해만을 따른다면 이는 시가 아니다(凡詩之本在於父子君臣夫婦之倫 或宣揚其樂意 或導達其怨慕 其次憂世恤民 常有欲拯無力 欲 無財 彷徨惻傷 不忍遽捨之意 然後 方是詩也 若只管自己利害 便不是詩)

그가 말하는 시의 근본은 오륜에 있다. 이는 유가철학의 사회 윤리에 기저(基底)이다. 다산이 말하는 시란 수양과 사회 윤리를 실천한 이후에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시론은 공자께서 말한 충서(忠恕)의 실현을 목표로 한 것이다.

더구나 사회 윤리의 실천은 선비가 도달할 목표이었다. 따라서 힘이 없거나 돈이 없어 고통받는 백성을 구제하고 이끌어 함께 누리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은 시를 짓는 목표인 것이다. 이는 유학에 충직했던 다산이 내린 시의 정의이며 그가 이룩하고자 했던 시의 세계이다.

하지만 그의 이런 포부는 정조의 승하 이후 그 빛을 잃었다. 그를 총애하고 신뢰했던 정조의 죽음은 다산의 삶 또한 암울해짐을 예단(豫斷)했던 사건이었다. 바로 노론 벽파는 남인 시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신유옥사(辛酉獄事)를 일으킨다. 이들은 사흉(四凶)과 팔적(八賊)을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 정약전을 신지도로 유배 보냈고 다산을 경상도 장기로 유배시켰다. 이때가 1801년 2월이다. 장기에서 지은 ‘자신을 비웃으며(自笑)’은 자신을 되돌아보며 지은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와 인이 무엇인지를 찾아 헤매며(迷茫義路與仁居)
젊은 시절, 도를 구하려 다녔네(求道彷徨弱冠初)
망령되이 세상일을 모두 알고자하여(妄要盡知天下事)
이 세상에 책들을 다 읽으려 했네(遂思窮覽域中書)
맑은 때엔 활에 다친 새의 신세요(淸時苦作傷弓鳥)
남은 목숨, 그물에 걸린 고기라네(殘命仍成掛網魚)
천년 후에 나를 아는 자 있으려는지(千載有人知我否)
마음을 세운 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재주가 부족했네(立心非枉是材 ᵴ

그가 찾아 헤맨 의로(義路)는 의(義)이고 인거(仁居)는 인(仁)이다. 인은 인간의 천성(天性)이다. 인을 토대로, 행신(行身: 자신의 처신)의 기준을 삼은 것이 의이다. 따라서 의는 준칙이며 사안(事案)을 보는 잣대이다. 약관의 나이에 세운 다산의 입지는 이와 같았다. 이랬던 그가 장기로 유배된 것은 활에 맞은 새처럼,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암울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과 의를 찾아 헤맨 그의 태도는 선비의 기상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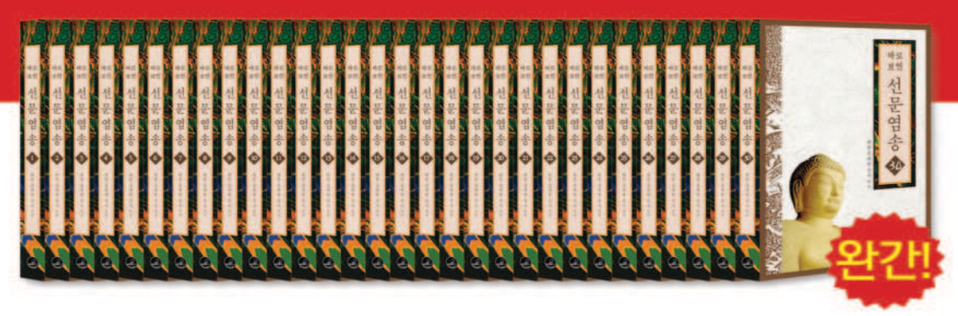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다산이 유배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열었던 시기는 강진이었다.

“천년 후에 나를 아는 자 있으려는지(千載有人知我否)”라고 한 다산의 간절함은 결국 강진에서 토대를 놓게 된 셈이다. 실로 강진은 다산의 생애를 빛낸 인연들을 만난 곳이었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불조정맥 제77조 전강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73번째 저서 출간!!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각 칙마다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의 참 뜻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 공안의 교과서 〉라 할 것입니다.

* 각권 15,000원 / 전권 구입시 15% 할인됩니다.
031-534-3373 / 010-4520-7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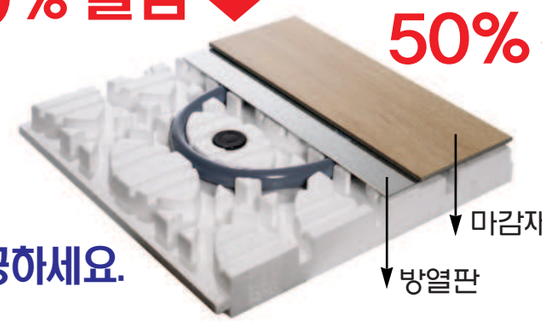
〈도서출판 바로보인〉이 〈도서출판 문젠〉으로 개명되었습니다.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www.jjunheating.co.kr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무한한 가능성 가진 마음… 첫걸음을 디디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㉒ 현장법사와 함께 길을 떠나는 손오공



그림 · 최주현

당태종과 의형제까지 맺은 현장법사, 성대한 환송 가운데 불경 가지러 인도로 떠난단다. 이건 물론 서유기의 이야기지. 실제론 몰래 국경 벗어나느라 온갖 고생을 다하셨다지?

그렇지만 중국 땅 벗어나니, 성대한 환송 속에 떠난 거나 몰래 떠난 거나 단숨에 똑같은 결과가 되네. 얼마 가지도 못해 요괴의 굴에 떨어져 시종은 잡아먹히고 신령의 도움으로 현장법사만이 신앙심 깊은 사냥꾼 백흠의 집으로 인도되네.

거기서 몸을 추스르고 백흠의 전송을 받으며 다시 인도로 출발하는 현장법사. 그런데 괴이한 목소리가 법사님을 부른다. 스승님 오셨다, 스승님 오셨다. 저를 구해주시옵소서. 제가 인도로 가는 먼 길 수행하오리다. 이 목소리는 누구 목소린가?

오백 년 동안 오행산 밑에 깔려있던 손오공의 목소리로다. 관세음보살님의 인도를 받아 불경 가지러 가는 길 모시기로 했다는 손오공의 말에 현장법사 너무나 기쁘고 기쁘다.

아득히 먼 길 함께해줄 제자가 생겼구나. 부처님이 붙여 놓으신 '옴 마니 반메 훔' 적힌 부적을 떼어내니 손오공 50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구나. 손오공 기뻐 날뛴다.

현장법사 모시고 새 출발 하는 길, 보무도 당당하다. 천상계를 뒤집어엎었던 제천대성의 신위를 어떤 요괴가 감당할까!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겁 없는 여섯 도적들 덤벼든다.

눈이라, 보고 기뻐하며(眼看喜)
귀라, 듣고 성내며(耳聽怒)
코라, 냄새 맡고 애착하며(鼻嗅愛)
혀라, 맛보고 생각하며(舌嘗思)
몸이라, 본디 근심하며(身本憂)
뜻이라, 보고 탐낸다는(意見欲)

이름도 괴상한 여섯 도둑이 나온다.

도적들이 즐겨하는 흔히 나오는 대사

"모두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를 외치면서. 손오공 큰소리가 괜한 큰소리 아니지.

여의봉 뽑아들고 단매에 모두 때려죽이네. 그리고 현장법사 앞에서 으쓱댄다.

"내 솜씨 보셨죠? 어~때요?"

현장법사가 내 제자는 참 솜씨도 좋구나 칭찬하셨을리가 없지.

"불제자로서 어찌 그리도 자비심이 없느냐!"

큰 소리로 꾸짖었네. 모처럼 힘자랑하고 칭찬 기대했던 손오공. 발끈하고 삐쳐버린다.

에잇! 답답한 중! 못 따라가겠네! 원숭이 나라에 가서 다시 왕노릇이나 해야겠다.

"빠이빠이~ 손공은 떠납니다."

근두운 타고 휙 날아가 버린다. 어찌할거나 어찌할거나. 현장법사 다시 끈 떨어진 박 신세가 되었구나.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서유기의 시작입니다. 손오공이 현장법사 모시고 출발하는 대목이죠. 그 전에 살짝 손오공과 현장법사가 만나기까지의 기구한 이야기가 전개되기는 하지만, 거의 출발하자마자 손오공과 현장법사가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의 전개 가운데 현장법사가 당태종과 의형제를 맺었다든가, 그리고 성대한 환송 속에 인도로 출발을 한다든가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국가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에, 몰래 국경 넘느라 엄청 고생했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서유기가 그런 역사적 진실을 담아야 할 이유는 없겠지요? 소설은 소설인 겁니다. 이것과 경우는 좀 다르지만 또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삼국지(三國志)입니다. 삼국지는 서유기보다 훨씬 더 역사적 사실과 혼동될만한 요소를 더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렇지만 분명 삼국지는 소설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등의 인물을 중심으로, 즉 촉한(蜀漢)을 한(漢)왕조의 정통을 잇는 국가로 보는 입장에서 꾸며진 소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국지를 읽는 사람들이 세 번, 울분에 차서 책을 집어 던지게 만든다는 소설이 바로 삼국지입니다. 어째서 세 번이냐구요? 유비가 죽는 대목, 관우가 죽는 대목, 그리고 제갈량이 죽는 대목에서 책을 집어 던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충성심과 의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세 대목에서 책을 집어던지게 만들 정도로,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각색하여 소설로 꾸민 것이 삼국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과 소설로서의 삼국지가 다르다는 것은 바르게 보아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삼국지의 작품성을 평가절하 한다든가 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손오공은 마음원숭이(心猿)
현장법사도 인간군상을 대표
피동적인 삶 거부에서 수행 출발

삼국지에 비하면 서유기는 훨씬 사실성과 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필요는 더더욱 없겠지요. 그리고 성대한 환영을 받고 떠나든, 몰래 고생하며 국경을 넘든, 몇 걸음 못 가서 똑같은 결과가 되고 마니까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앞글에 말한 대로 요괴 굴에 떨어져서 따라왔던 시종들은 처참하게 요괴의 뱃속에 장례를 치르고 말죠. 현장법사는 워낙 청정하여 요괴가 쉽게 잡아먹지 못하고, 태백금성이라는 신령님이 인도를 하여 백흠이라는 사냥꾼에 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백흠의 전송을 받으며 다시 인도로 출발하려는 길에 손오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생략하지요. 지금 정말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서유기의 정체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우리가 생각한 손오공의 정체는 무엇이었지요? 인간의 마음, 아직은 어리석음 속에 헤매고 있지만 깨달아 부처를 이룰 마음을 형상화한 것이라 했지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원숭이처럼 까불거리고 초싹거리는 마음, 그래서 마음 원숭이(心猿)라 부르는 그 마음이라 했습니다. 현장법사가 경을 가지러 가는 것은 그 마음 원숭이를 길들여 올바른 수행으로 나가는 과정을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불법 수행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법사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개인 현장법사가 아닙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손오공은 그 인간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오공은 인간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진 가장 중요한 측면이며 특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적인 측면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인간을 대표하는 것은 인간의 지능이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다른 모든 동물과 인간을 구별 짓는 중요한 특성은 바로 인간의 지성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교에서 본다면 그 지성이 올바로 길을 잡지 못하고 헤맬 때의 상태는 '어리석음'이라 불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의 중요한 측면이며, 인간이 인간이라 불리게 할 수 있는 지성(知性), 지능(知能), 앎은 바로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은 깨달으면 지혜를 이룰 수 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마음,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마음, 아직은 어리석은 마음이 올바른 수행을 첫걸음을 디디는 대목이 바로 여기인 셈입니다. 삼국지를 읽는 사람이 책을 집어 던지는 세 번의 대목이 있다면, 서유기를 읽은 우리는 이 대목에서 벌떡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와! 서유기가 이런 책이었어?"하고 말이지요. 이 대목의 제목이 바로 우리를 번쩍 정신 들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제목이 뭐냐구요? 자~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한자 그대로 써드려 볼까요? 심원귀정 육적무종(心猿歸正 六賊無松)입니다. 삼쾌선생 한문 실력 자랑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불교 용어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바로 눈치를 챌 수 있는 말이기에 써드려 본 거예요. 애궁, 왜 한자라면 손오공 근두운 불러 타고 달아나듯 기겁을 하는 분들이 이리 많은지… . 얼은 우리말로 옮겨 드릴게요. "마음 원숭이가 바른 길로 돌아서니, 여섯 도둑이 자취가 없구나"입니다. 손오공이 어떤 존재인지, 서유기에 담긴 천고의 비밀을 여지없이 폭로하는 대목이지 않아요? 그동안 함부로 날뛰면서 천궁을 어지럽히고, 부처님테 잡혀서 오행산 아래 갇혀 있던 손오공, 불쌍한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이지요. 그 마음이 이제 제 정신을 차렸네요.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네요. 우리들도 축하해 줘야겠지요? 아니 자축해야 하겠지요? 우리들의 마음이 제 길로 들어선 것이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런데 제 길로 들어섰을 뿐, 앞으로 갈 길이 구만리네요. 올바른 방향은 잡았지만, 그동안 쌓여온 오랜 세월의 업장과 습기가 어찌 하루 아침에 사라지겠어요?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닦아 나가야 하는 멀고도 먼 길…. 그것이 수행의 길이겠지요. 선가(禪家)에선 "한번 뛰어 곧바로 부처 땅에 들어간다"(一超直入如來地)라 하고,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그 본성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直指人心 見性成佛)하지요? 조사님들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이 말씀들이 어리석은 우리 격려하느라 하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어리석음은 두껍고도 두껍다는 탄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두꺼운 어리석음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첫 걸음, 첫 걸음 떼어놓으면 바로 거기부터 부처 땅이라는 생각으로 물러서지 않는 길을 걸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손오공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첫걸음을 떼어 놓자마자 여섯 도둑이 달려드네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들이 각각 보고 듣고 하는 작용을 일으켜,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하면서 달려드네요. 마음이 한번 딱 각오를 다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려는데, 웬 방해꾼들이 이리도 많은가요? 그 방해꾼들을 통틀어 '여섯 도둑'(六賊)이라 한다는군요. 그렇습니다. 서유기는 마음을 닦아나가는 수행의 첫 장애물을 여섯 도둑들이 날뛰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도둑은 바로 우리의 감각인 눈, 귀, 코, 혀, 몸, 뜻이고요. 그 여섯 도둑들이 마음을 훔쳐가지요. 훔쳐가기에 도둑이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훔쳐진 마음은 보고 듣고……하는데 팔리고, 거기에 휘둘려 기뻐하고 성내고 애착하고……. 그렇게 한세상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 나가다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슬픈 인생 아닙니까?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섯 도둑에 이끌려 삶을 당하고 있을 뿐이지요.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피동적으로 이끌려 사는 슬픈 삶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마음이 제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주인공으로 바로 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여섯 도둑에게 마음을 도둑맞는 일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손오공이 여섯 도둑을 물리치는 이야기로 그려낸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출발일: 2월 16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출발일: 11월 28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출발일: 12월 5일, 12월 12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10월 20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 10월 31일,11월 21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출발일: 12월 2일,12월 30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Myanmar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불교적 실존주의로 접근해야



박태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2〉

붓다 진리관의 철학적 기초

니까야 · 아함이 얼마나 붓다의 육성을 담고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모든 불교 문헌들 가운데 붓다의 육성과 체취가 가장 짙게 배어있는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니까야 · 아함을 관통하는 '진리에 대한 관점' 의 철학적 기초로서는 두 가지가 주목된다. 경험주의와 실존 실용주의가 그것이다. 붓다의 경험주의를 서양철학 계보에서의 경험주의로 치환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공유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니까야 · 아함에서 일관되게 목격되는 붓다의 경험주의적 태도는 '경험 · 체험을 진리의 토대와 기준으로 삼는 태도' 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붓다의 진리관은 '탐욕 · 분노 · 무지에 의해 발생한 문제를 가장 잘 풀어주는 해법이 진리' 라고 하는 관점에 의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진리치의 기준으로 삼는 프래그머티즘의 태도와 상통한다. 다만 붓다가 풀고자 하는 문제유형이 탐욕 · 분노 · 무지에 연루된 실존 오염의 문제라는 점에서, 현대 프래그머티즘과는 구별하여 '실존 실용주의' 라고 불러본다.

따라서 붓다의 실존 실용주의는 '탐욕 · 분노 · 무지를 축으로 삼는 삶의 실존적 오염과 왜곡을 치유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태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험 가능한 것, 그리고 경험을 통해 진실 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을, 진리 탐구의 범주로 설정하겠다는 것이 붓다의 경험주의이다. 아울러 탐욕 · 분노 · 무지를 조건으로 수립된 삶의 실존상황에 적용하여 탐욕 · 분노 · 무지의 문제를 경험적으로 해결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에만 진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붓다의 실존 실용주의이다.

붓다의 경험주의와 실존 실용주의는 탐 · 진 · 치를 매개로 결합되어 있다. 탐 · 진 · 치는 경험과 체험의 대상이다. 정신 · 물리적 몸(오온)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지금 여기' 의 현상이며, 그 현상들은 전적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 이다.

탐 · 진 · 치는, 경험적 실재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도 있는 개념이 아닐 뿐더러, 추론으로 성립하는 논리적 사태도 아니다. 몸에서 직접 접촉하고 알게 되는 경험적 사태가 탐 · 진 · 치이다. 그런 점에서 탐 · 진 · 치는 '실존의 불교적 문제' 이다.

그리고 실존 실용주의는, 탐 · 진 · 치를 발생조건으로 하는 경험적 실존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진리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실존의 탐 · 진 · 치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어주는 문제해결 능력을 진리의 자격조건으로 보는 시선이 실존 실용주의이다. 따라서 경험주의와 실존 실용주의는 탐 · 진 · 치를 매개로 진리의 범주와 능력을 설정하는 두 시선이며, 상호 의존적으로 연관된다.

상호 연루된 경험주의와 실존 실용주의의 태도에 의해 진리의 문제를 다루는 붓다의 시선은, 맛지마니까야의 〈말룽끼야뿟따에 대한 작은 경〉, 상윳따니까야의 〈심사빠숲 경〉, 앙굿따라니까야의 〈깔라마경〉 등에서 그 전형이 목격된다. 특히 〈깔라마경〉은 '탐 · 진 · 치의 문제/경험주의/실존 실용주의' 를 결합시켜 진리판별의 기준문제를 다루고 있다.

경험주의적 진리관과 탐 · 진 · 치

세계의 발생과 소멸 및 범주를 오온(五蘊)이나 육근(六根)을 조건으로 하는 18계의 범주에서 파악하는 것은 명백히 경험주의의 세계관적 기초이다. 붓다는 오직 감각기관(육내처)과 대상(육외처), 그리고 이 둘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경험세계(오온/18계)의 탐 · 진 · 치 문제만을, '풀 수 있는 · 풀어야 하는' 문제로 선택한다. 탐 · 진 · 치에 연루된 경험과 세계지평을, 탐 · 진 · 치가 없는 경험과 세계지평으로 바꾸는 것만을, 구도의 과제로 선정한다. 인간이 경험 가능한 행위(업)는 '탐 · 진 · 치에서 생기는 것' 과 '탐 · 진 · 치 없음에서 생기는 것' 의 두 가지일 뿐이며, 이것만을 진리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라한이나 여래의 죽은 후의 상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붓다의 경지나 선정의 경지에 대한 이런저런 사전 헤아림, 오지 않은 업의 과보, 세상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변에 몰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도, 직접경험을 중시하는 경험주의 시선의 연장선에 있다.

붓다의 경험주의는 경험적 근거를 지니지 않은 판단이나 주장에 대해 원천적 불신을 제기한다. 그리하여, 경험적 근거를 요구하지 않거나 경험적 검증이 불가능한 믿음 · 선호 · 구전 · 이론 · 사변에 의지하지 말며, 경험범주인 육내외처에서 탐 · 진 · 치를 기준으로 문제에 대처할 것을 권한다. 니간타의 고행주의가 느낌의 원인을 전생의 업으로만 돌려버리는 것을 비판하는 붓다의 논법도 같은 맥락이다. 경험적 검증이 불가능한 논거 위에 수립한 니간타의 고행주의는, 붓다의 경험주의로 볼 때, 무의미하고 독단적이며 해롭다. 붓다가 자신이 설하는 진리(법)의 특성을 요약하고 있는 정형구는 이와 같은 경험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탐 · 진 · 치에서 풀려남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이고, '와서 보라는 것' (직접 경험으로 검증되는 것)이며, '향상으로 인도하고' (경험으로 확인 가능한 향상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 (각자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체득해야 하는 것)이다. 법의 특징(스스로 보아 앎/시간이 걸리지 않음/와서 봄/향상으로 인도/각자 알아야 함)은 탐 · 진 · 치의 증장과 소멸에 따른 고통과 행복 경험의 변화를 통해 직접 확인 ·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붓다의 경험주의는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층은, 진리 주장은 '경험할 수 있는 것' 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층은, 진리 주장은 '온전한 경험' 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 혹은 경험 가능한 것들은 '온전한 것과 왜곡된 것' 의 두 유형이 있으며, 진리와 하나 됨은 '온전한 경험' 으로써 구현된다는 것이, 붓다 경험주의의 궁극적 지향이다.

니까야 · 아함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실재 그대로(如實)' 라는 용어는 붓다 경험주의의 궁극을 지칭하는 전형적 표현으로 보인다. '실재대로 안다' 는 것은 '온전한 경험' 지평이 열린 것이며, 이 경험지평에서 해탈의 명지(明知)가 밝아진다. 사성제 및 사성제의 다양한 변주들은 결국, 왜곡되지 않은 존재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경험하는 '온전한 경험' 의 가능 조건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별망상 혹은 희론(戱論, 개념환각의 확산)은 존재의 온전한 면모를 왜곡시키는 인식적 장애이다. 그리고 이 인식장애는 모든 경험의 처소인 '지금 여기의 몸 범주' (오온 · 육근 · 12처 · 18계)에서 발생한다. 무지의 분별망상 · 희론에 의해 발생한 '왜곡된 세계경험' 도 '지금 여기의 몸 범주' 의 현상이고, 사성제 수행 등으로 생겨난 '온전한 세계경험' 역시 '지금 여기의 몸 범주' 에서의 일이다. 맛지마니까야의 〈꿀과자의 경〉은 탐 · 진 · 치의 왜곡된 세계경험이 오온 · 육근의 지각경험에서 '느낌-지각-사유-희론-희론에 오염된 관념' 이라는 연기적 연쇄를 통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사찰에서 기도 중인 불자들. 탐 · 진 · 치 삼독심은 부처님이 철저하게 경험적 근거에 기인한다. 실존의 불교적 문제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균형 있게 조화롭게

초등학생 정도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을, 나무꾼과 노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노루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숨겨달라고 애원했다. 나무꾼은 그 노루를 나뭇짐 속에 숨겨 주었다. 곧이어 사냥꾼이 뛰어왔다. 노루를 보지 못했느냐는 사냥꾼의 물음에 나무꾼은 대답한다.

"방금 저기로 뛰어가던데요."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킨 방향으로 뛰어 갔고 나뭇짐 속에 숨어 있던 노루는 나무꾼의 거짓말에 의해 살아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많다. 그럴 경우 어린 날의 기억으로는 나무꾼이 착한 일을 하긴 하였는데, 거짓말은 나쁜 짓이라는 데서 약간의 혼란이 있지 않았나 싶다. 나는 지금 불교의 최고의 이상향인 열반에 이르는 여덟 가지 길을 설명하려 하고 있다. 우선 〈상응부경전〉과 〈잡아함경〉에 있는 말씀이다.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한 사람인 사리불과 그의 벗인 외도(外道)와의 나눈 대화 내용이다. "벗이여,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거기에 이르는 길이 있는가?"

"그렇다. 열반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렇다면 벗이여,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그것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달라."

"성스러운 여덟 개의 길이 그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자 거기에 이르는 길이다. 즉 정견(正見), 정사(正思),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이 그것이다. 벗이여, 이 방법은 뛰어나며 이 길은 누구라도 힘써 볼만한 가치 있는 길이다."

여기서도 어린 날의 혼란이 다시 한 번 고개를 들 수 있다. 정어(正語)부분에서다. 바른말은 거짓말의 반대말인데 나무꾼은 착한 일을 하면서도 바른말은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흑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 성급하게 뛰어들 수도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닌 바른 말로 볼 수밖에 없다. 불교에는 개차법(開遮法)이 있다. 상황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열 때는 열고 닫을 때는 닫으라는 가르침이 있지 않은가? 노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럴듯한 논리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사실은 여덟 개의 바른길 중 정어(正語) 부분만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다. 정업(正業)과 정명(正命)의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바른 행위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생활인지 그에 대한 물음에도 답변이 쉽지 않다.

물론 석가가 깨달음을 성취한 뒤 최초로 진리를 설한 사제설법(四諦設法)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하는 데 있어 쾌락과 고행(苦行) 등의 두 개의 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에 입각해서 실행에 옮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흔히들 부처님께서 펼쳐 보인 실천의 방법론에 무딘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팔정도를 설명할 때 바른 관찰(正見), 바른 생각(正思), 바른 말(正語), 바른 행위(正業), 바른 생활(正命), 바른 노력(正精進), 바른 명상(正念), 바른 지혜(正定)로 글자적인 해석에

팔정도 실천에는 중도적 자세 중요
무턱대고 '바른 것' 에만 집착말아야

서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팔정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좌우의 양극단을 버리고 중간을 취하는 중도적인 자세이다. 나는 그것을 균형과 조화라고 표현하고 싶다.

팔정도의 실천은 그냥 무턱대고 '바르게' 만을 고집하거나 '바른 것' 에 집착하지 말 일이다.

여덟 개의 성스러운 길이 여덟 개의 족쇄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길이며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여덟 개의 생활덕목이, '바르게' 에 부딪쳐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혼란으로 인한 실천 불가능으로까지 번져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경쟁사회이다. 생존하기 위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바르게' 만이 살아갈 수 없음도 인정해 줘야 한다.

마치 나무꾼이 바른말이 아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노루를 숨겨줘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생활 저변에는 널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덟 가지의 길을 설명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균형 있게, 조화롭게' 를 먼저 생각한다면 어렵지도, 어려울 수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길이 되는 것이다.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입·종·안·내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美 불교계, 빈곤·기아와 전쟁 위해 '한 걸음'

BGR, 10월 24일 'Walk to Feed the Hungry' 개최



캘리포니아 복지재단 Buddhist Global Relief가 10월 한 달 동안 샌프란시스코, 새너제이, 밀퍼드 일대에서 '기아를 살리기 위한 행보(Walk to Feed the Hungry)'를 개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불자들이 기아와 빈곤과 싸우기 위해 걸음 행진을 시작했다.

'KQED'는 10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 불교계를 대표하는 복지재단 Buddhist Global Relief(이하 BGR)가 10월 한 달 동안 샌프란시스코, 새너제이(San Jose), 밀퍼드(Milford) 일대에서 '기아를 살리기 위한 행보(Walk to Feed the Hungry)'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BGR의 'Walk to Feed the Hungry)'는 매년 미국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계의 신청을 받아 해당 주를 순회하며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Walk to Feed the Hungry'는 카루나사(Karuna Buddhist Vihara)의 주관으로 지난 10월 3일 밀퍼드, 11일 새너제이에서 각각 개최됐다. 오는 10월 24일에는 아야 산투씨카(Ayya Santussika) 비구니 스님의 진행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샌프란시스코 대회에 앞서 밀퍼드와 새너제이 'Walk to Feed the Hungry'에서는 13,000여 달러(약 1천 5백만 원)의 기금이 조성됐고, 이는 캘리포니아의 복지 프로그램인 'Project Homeless Connect'에 지원됐다. 이 사업은 도시 빈곤자와 노숙자를 대상으로 급식·건강·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체에 취직을 알선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비심이 있어야만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전제한 아야 산투씨카 스님은 "매년 열리는 행사이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대회는 특별한 점이 있다"며 "지난 2012년 이 대회를 처음 주창해 마련한 보디

3일 밀퍼드, 11일 새너제이 이어
보디(Boddhi) 스님 증명법사로 참여
캘리포니아 노숙자·빈곤층에 지원
"BGR, 지속가능한 복지 추구해"

(Boddhi) 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벽안의 보디 스님은 미국에서 '불교 대중화'를 이끈 견인차로서 추앙받는 인물이다. 1973년 스리랑카에서 수계를 받은 이래 2002년까지 불교 소식지 불교공공사회(Buddhist Publication Society)의 편집인 등으로 활동하며 '문서 포교'에 앞장섰던 보디 스님은 이후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와 불교 실천가로 지금까지 '복지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Walk to Feed the Hungry'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디 스님은 미국불교의 성장에 크게 감동하면서도, 실망감도 적지 않았다. 미국 불자들이 추구하는 깨달음이 개인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질 못한 데 주목한 것이다.

이에 보디 스님은 불교잡지 'Buddhadharma'에 '불자들의 도전(A Challenge to Buddhists, 2007.9.1.)'이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바의 고통에 맞서 더 큰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는 독자에게'라는 부제의 글에서 스님은 "동시대 불자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의에 맞서 약자를 향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설은 미국 불교계에 반향을 일으켰고, 2년 후 복지재단 BGR을 결성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201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Walk to Feed the Hungry'가 개최된 원동력이 되었다.

BGR의 모토는 '기아는 최악의 질병'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BGR 사업은 빈곤과 기아와 싸움으로, 후원과 소비라는 의존적 순환 고리를 끊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테면 캄보디아에 우물을 파고 난 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구충제를 제공하고, 코트디부아르에서는 모유 수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한다. **오종욱 편집위원**

中 말하고 감지하는 '로보 스님' 등장

롱쿠안사, IT기술 도입한 스님 로봇 개발


베이징 롱쿠안사(Longquan)가 스님 캐릭터에 IT 기술을 접속한 '로보스님(Robo Monk·사진)'을 제작·배포했다.

중국 불교계가 IT 기술을 접목한 포교에 집중하며 젊은 불자들의 불심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롱쿠안사(Longquan)는 앙증맞은 스님 캐릭터에 IT 기술을 접속한 '로보스님(Robo Monk·사진)'을 선보이는가하면, 광동성의 동화선사(Donghua Zen)는 온라인 홍보 전문가를 영입해 중국 네티즌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로보스님'은 롱쿠안사에서 펴내고 있는 만화 시리즈 '문제, 자신을 위해 찾아라(Trouble, You Seek for Yourself)'의 주인공 캐릭터 씨안얼(Xian'er)에 IT 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로봇이다.

높이 50cm 크기에 노란색 가사를 두른 로보스님은 주변의 환경을 감지하는 것은 물론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문답(Q&A)을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능력을 보유했다. 이는 IT 기술에 친숙한 중국 젊은 불자의 불심을 다잡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웨이보(Weibo)에 로보스님의 계정을 만들고 블로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롱쿠안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져 시공을 초월한 포교에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1500년 역사의 고찰인 광동성의 동화선(Donghua Zen)사는 지난 3월부터 인터넷 전문가를 영입하고 온라인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신화(Xinhua)통신에 따르면 최근 동화선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이 급증할 정도 온라인 홍보에 큰 성과를 올렸다.

'South China Morning Post'는 "중국의 사찰들이 불교 전통에 미디어 기법과 IT 기술을 접목하고 홍보에 나서는 예가 늘고 있다"며 "이런 홍보 기법은 앞으로 중국불교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벳 승려들, 미국 가톨릭大서 '만다라' 공연

고망사 출신 스님들, 미국 드폴대학서… 위험 처한 티벳불교 알리고자


남인도 지역 고망(Gomang)사 출신 티베트 승려들이 미국 드폴(Depaul)대학 링컨파크 캠퍼스서 만다라를 그리고 있다.

일군의 티베트 스님들이 미국의 가톨릭 요람에서 만다라를 그리며 종교간 평화를 기원했다. 'DePaulia'는 10월 11일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로마가톨릭 대학인 드폴(Depaul)대학 링컨 파크 캠퍼스에서 티베트 스님들이 만다라를 그리며 종교간 이해를 도모했다"고 보도했다.

티베트 상황을 알리고 사원 재정을 마련키 위한 미국 투어 일환으로 드폴대학을 방문한 스님들은 남인도 지역 고망(Gomang)사 출신으로 향후 1년간 미국을 순회하며 푸자, 만다라 등을 시전하고 불교 공예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스님들은 티베트의 상황을 알리는 아이콘"이라는 데이비드 웰만(David Wellman·종교학) 교수는 "중국의 강점 시점인 1940년대 이후 많은 티베트 스님들이 인도로 탈출했지만, 종교적 자유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스님들이 로마가톨릭의 메카에서 공연하는 자체만으로도 티베트 상황에 대해 세계인이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다라 제작은 인내를 요구하고 집착을 버리게 하는 명상과도 같다. 작고 좁은 관을 이용해 색색의 모래알을 뿌리며 일주일 남짓 완성된 만다라는 성 빈센트 드폴 교구의 '반사의 연못'에 뿌려졌다.

티베트 스님들의 드폴대학 공연은 '종교문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센터(Center for Religion Culture and Community, 이하 CRCC)의 초청으로 가능했다. 토마스 오브리엔(Thomas O' Brien) CRCC 감독관은 "로마가톨릭 전통의 드폴대학 재학생들이 불교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사학이나 인류학을 배우는 것과 같이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중요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DePaulia'는 "티베트 스님들의 공연이 캠퍼스의 다양성을 일깨웠다"는 신입생 마이클 라스무센(Michael Rasmussen)의 말을 인용하고, "이번 공연은 재학생들이 불교를 이해하고 자신의 연구 분야에 불교를 접목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 랩으로 법문하는 '힙합 스님' 화제

연태사 고묘 스님, 불교와 힙합 접목시켜 큰 인기


일본 연태사(蓮台寺, Rendaiji Temple)의 고묘(Gomyo) 스님은 랩으로 법문하는 등 힙합과 불교를 접목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출처=The Japan Times

여느 사찰과 다를 바 없는 조용한 도량에 랩이 울려 퍼진다. 고묘(Gomyo) 스님이 랩으로 법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 뒤로는 열심히 종이에 색을 칠하는 낙서예술가(graffiti artist) 에이타이(Eitai)가 보인다. 생소한 사찰 풍경이다.

'The Japan Times'는 10월 11일 랩으로 법문하는 고묘(Gomyo·45) 스님을 소개했다. 'The Japan Times'는 "일본의 가장 비밀스럽고도 근엄한 종파 중 하나인 진언종(Shingon) 연태사(蓮台寺, Rendaiji Temple) 경내에 혁명 아닌 혁명이 일어났다"며 "한 비구가 불교와 힙합을 결합했다"고 보도했다.

고묘 스님은 "불교는 염불을 욀 때 목탁, 죽비 등을 사용한다"며 "이러한 요소는 힙합과 좋은 상관관계를 맺을 수 있다. 랩퍼들이 비트에 맞춰 랩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불교와 랩을 결합시키는 고묘 스님의 시도는 이 뿐만 아니다. 고묘 스님의 절친한 친구(Eitai)는 힙합 문화 중 하나인 그래피티 아트(낙서 예술, graffiti art)로 불교적 벽화를 그려낸다. 고묘 스님은 "불교, 특히 진언종에서는 시각적 가르침을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로 생각한다"며 "불교의 미술 요소인 만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나는 젊은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불교를 표현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1990년부터 힙합 음악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 후 1994년 고향 미시간(Michigan)을 떠나 일본으로 오면서 불교에 관심을 갖고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 지금은 진언종서 '아사리(阿?梨, 지덕이 높아 스승이 될 만한 승려)'로 인정받을 만큼 일본 불교계서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고묘 스님은 "90년대에 비스티 보이즈의 'Bodhisattva Vow'라는 노래를 듣고 힙합으로 불교를 표현하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며 "랩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댄스도 본 오도리(Bon Odori, 음력 7월 15일 밤에 남녀들이 모여서 추는 윤무)춤 등 불교 무용과 매우 어울리는 요소"라고 언급했다.

이어 "힙합과 불교의 만남은 양 자에게 모두 좋은 일"이라며 "불교는 새로운 방법으로 포교할 수 있고, 힙합은 현대사회 및 물질문명을 비판하는 디스 장르에서 벗어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교를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닌 세계와 공유하고 싶다는 스님의 뜻에 따라 연태사 주지 사에키 스님(Zoko Saeki·72)도 적극 원조하고 있다. 연태사 경내에는 교모 스님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외국인 승려들에게 새로운 포교법을 전수하고 있다. 'The Japan Times'는 "현재 7명의 외국인 스님들이 이곳에서 교육 중이며, 내년에는 4명이 추가로 교육을 이수할 것"이라 전했다. **박아름 기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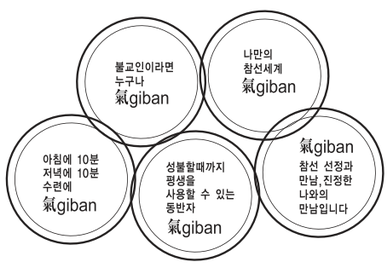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의 열쇠

불광출판사

정신과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파욱 수행에서 하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의 모든 것을 담은 책. 불교 수행을 정신치료에 꾸준히 접목시켜온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가 본인의 체험을 사이사이 소개하여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깨달은 불교 수행의 정신치료적 의미를 짚어간다.

부처님의 부자수업

고려대 행정학과 윤성식 교수가 불교학을 섭렵해 완성한 행복의 경제학. 불교의 중도와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해, 시장자본주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불교자본주의를 새롭게 구성했다.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

쵸감 트룽파가 서양에 불교 명상수행을 소개하고자 만든 수행 프로그램인 샴발라 수행을 다루고 있다. 샴발라 수행은 불교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종교에 의지하지 않는 개인적인 깨달음을 추구한다. 특히 혼자서 마음수행의 길을 가는 여정 내내 일어나는 두려움을 핵심적으로 다룬다.

■ 문의 02)420-3200

비움과 소통

아미타불 48대원 (무량수경과 정법개술)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을 담은 이 책은 『무량수경』의 아미타불 48대원에 대한 해설, 보정 서길수박사가 번역한 산스크리트 『아미타경』, 염불수행 법을 개술한 대만 방륜거사의 『정법개술(淨法槪述)』로 이뤄져 있다.

생사해탈의 오직 한길

역대 고승과 선사들의 가사체 왕생법문곡과 염불법문을 수록해 참선, 위빠사나 등 다른 수행방편을 닦는 불자들도 염불의 깊은 뜻을 터득해 이생에 윤회를 벗어나 불퇴전지(不退轉地)에 오르는 기연을 만날 수 있도록 편집했다.

선문염송요론(제1, 2, 3권)

제1권에는 30가지, 제2권에는 41가지, 제3권에는 38가지의 선문답이 각각 담긴 선화(禪話)를 바탕으로 백봉거사가 강론을 통해 생활선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 독자들은 '지금 여기' 바로 이 당체(當體)에서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선종의 핵심 종지를 체득하고 삶 속에서 진실을 구현하는 깨달음의 기연을 갖게 될 것이다.

■ 문의 02)2632-8739

열림원

암자로 가는 길 1, 2

전국의 암자들을 찾아다니며 고요한 선의 진경을 소개하고 고승의 숨결을 전하는 암자 기행문의 결정판. 저잣거리의 어지러움과 수선스러움을 놓고 상처와 아픔을 위안받는 안심의 여정을 그려낸 〈암자로 가는 길〉은 1, 2권과 곧 출간될 세 번째 책으로 계속 이어진다. 이 땅의 수행처들을 순례하면서 명상적 산문을 집필해 온 작가 정찬주의 대표 에세이.

무소유

법정스님이 태어나 출가해서 수행하며 입적하기까지의 삶을 소설화한 정찬주 장편소설. 탐욕과 무지의 세속을 벗어나 무아와 무소유의 삶을 이루는 수행의 여정과 법정스님의 따스한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다.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삶의 근원적인 의문에 사로잡힐 때 어디로 여행을 떠날 것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인도로 떠난 시인의 경험담. 시인의 눈과 마음으로 다가간 세상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18년간의 스테디셀러 개정판.

■ 문의 031)955-0700

클리어마인드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인가? 불교와의 대화가 나를 불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교적 불자로 만들었는가?

나는 불교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교적 잔재를 아직도 쌓아 두고 있는 불자가 되었는가? 나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자 했다.

젊은 날의 깨달음

이 책은 혜민 스님이 계를 받고 난 후 지난 10년 동안 하버드, 프린스톤과 중국, 일본, 햄프셔 대학교등지에서의 삶을 소재로 쓴 에세이들의 모음집이다.

천년사찰 천년숲길

"천년사찰 천년숲길"은 20년 불교 전문기자가 풀어내는 걷기명상 에세이집이다. 현재 불교신문사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저자는 처음 불교에 입문한 이후로 줄곧 사찰을 다니면서 걸었던 숲길에 대한 이야기를 구수하게 풀어내고 있다.

■ 문의 02)2198-5151

운주사

선으로 풀어낸 천수경

중생들을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관세음보살, 그리고 관음신앙의 결정체인 천수경. 이 책은 믿음신앙, 타력신앙의 대표격인 천수경을, 성품 을 바로 보아 돈오견성한다는 선의 안목으로 융합하여 풀어낸 독특한 해설서로, 천수경에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해줄 것이다.

불보살 영험 이야기

간절한 기도로 불보
살님의 가피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오로지 간절한 믿음과 신심 하나로 자신
이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뜻하는 바를 이룬 한국, 중국, 일본 중생들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을 모아 엮었다.

어린이 반야심경

오랫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현직 교장선생님이 어린이들을 위해 펴낸 반야심경 해설서로, 최대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하였다. 또한 중간중간 예쁜 삽화들이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반야심경을 쉽게 이해하고 자 하는 어른들이 보기에도 손색이 없다.

■ 문의 02)926-8361

대도대한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환인 · 환웅 · 단군 이야기)

오랜 세월을 아시아의 종주국으로서, 세상의 중심국으로서 인류에게 문명을 전해 주며 세상을 이끌어 왔던 대한민족이었다.

한국, 배달한국, 대조선에 이르기까지 7,0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의 민족으로 한 국가를 이루며 이어 왔던 대한민족이 열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니 과연 다시 뭉쳐 새로운 통일된 나라를 건국할 시기는 언제일까.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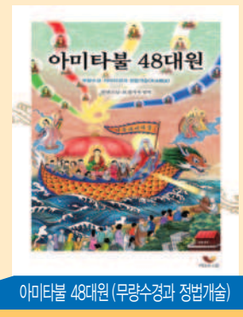
■ 문의 063)643-7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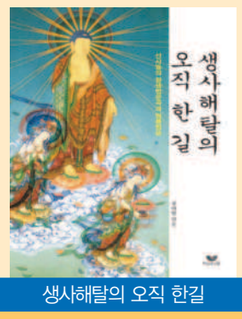
BOOK STORE


정신과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 불광출판사


부처님의 부자수업
윤성식 | 불광출판사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
쵸감 트룽파 |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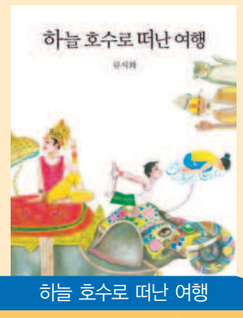

아미타불 48대원(무량수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정 거사 번역 | 비움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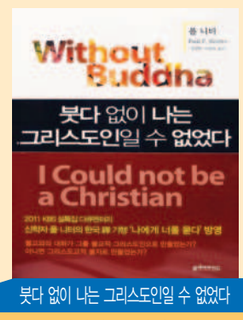

생사해탈의 오직 한길
상이암 엮음 | 비움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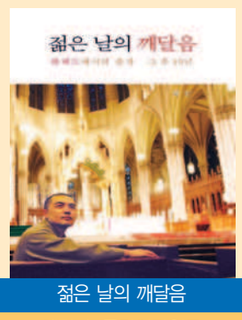

선문염송요론 (제1, 2, 3권)
백봉거사 | 비움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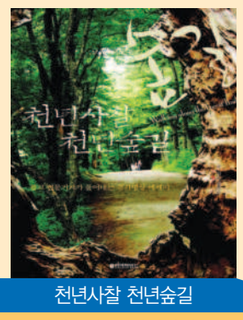

암자로 가는 길
정찬주 | 열림원


무소유
정찬주 | 열림원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류시화 | 열림원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폴 니터 | 클리어마인드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 클리어마인드


천년사찰 천년숲길
여태동 | 클리어마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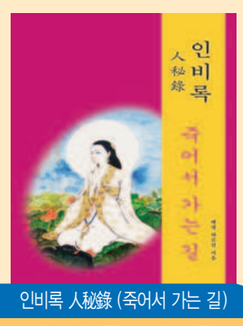

선으로 풀어낸 천수경
진원 | 운주사


불보살 영험 이야기
이수경 | 운주사


어린이 반야심경
민병직 | 운주사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대광 엘리사 | 대도대한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환인 · 환웅 · 단군 이야기)
대광 엘리사 | 대도대한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해광 하순천 | 대도대한


대원성 지음 / 값 17,000원

대원성 보살의
피안으로 가는
70년 신행이야기

바라밀 일기

인연, 한 송이 연꽃이어라
내가 나를 버릴 때 내가 아니 우리가 되었네
우리가 내 안에 있어 더 큰 내가 되었어라.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행을 실천한 모범 불자

우리 대원성 보살님은 비록 속세에 살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불심 속에서 자라났고 70을 넘도록 불심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살님은 그야말로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도 아니하고, 불행(佛行)이 아니면 행동하지 아니 했으며, 불심이 아니면 가슴과 머릿속에 넣지 않고 한평생을 살아오신 모범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 혜인스님 (은해사 조실)

한 방울 물이 바다가 된 회향의 길

많은 불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배울 때 삶과 수행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과 수행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겠지며. 그러한 속에서 스승들의 가르침과 현실의 삶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삶으로 승화시켜서 살아온 길이 대원성 보살님의 '바라밀 일기'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기에 바라밀을 향한 그 신심과 원력은 불자들의 귀감이라고 할만합니다.

– 혜국스님 (석종사 선원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대표전화 02-2004-8213 여시아문

운수납자 구도열정 찬불가 음율로

찬불음반 〈천년의 향기〉펴낸 청주 관음사 주지 함현 스님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보다 즐겁고, 함께 할 수 있는 불교를 원하는 대중들의 요구에 맞춰 불교 또한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가장 감지되는 분야는 바로 불교음악이다.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감미로운 음률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로수처럼 다가온다.

청주 관음사 주지 함현 스님은 제방선원에서 수십 년간 수행해온 구참 수좌다. 이런 스님이 시대변화에 맞춰 불교음반을 펴내 화제다. 함현 스님이 발간한 '천년의 향기' 음반에는 불교계 작곡가들이 스님이 지은 가사에 곡을 붙였다.


함현 스님

'천년의 향기' 속 두 장의 CD와 악보집에는 25곡이 담겨 있다. 첫 번째 CD는 국악과 클래식 등으로 구성돼있다. 함현 스님이 작사한 '부처님 오셨네'를 비롯해 '발원(發願)' '부처님과 함께 새해를' '참 좋은 인연(因緣)입니다' '봄소식' '봄바람' '어머니 관음(觀音)이여' '마하반야바라밀' '기도(祈禱)' '그렇게 오신님' 등 10곡이 실렸다. 두 번째 CD는 트로트와 대중가요에 가까운 찬불가로 구성돼있다. '인연(因緣)의 끈' '돌고 돌려 백팔염주(百八念珠)' '모두 함께 춤을' '그리운 어머니' '가을 무상(無常)' '칠석(七夕)' '무상(無常)하네' '강녕(康寧)하소서' '백중(百中)' '산에 살며' 등 10곡이 수록됐다.

악보집은 악보 25곡과 피아노 반주와 MR로 된 2장의 CD로 구성해 사찰 합창단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행중 쓴 글이 가사의 씨앗

음반집의 가사는 스님이 수행 중 틈틈이 쓴 글이 씨앗이 됐다. 스님의 선방에서 스님이 좋은 글을 써 놓은 걸개글을 본 박성규 작곡가가 작사를 권유해 음반작업을 시작하게 됐다.

여기에 김대성 · 김동환 · 유수웅 · 강주현 씨 등 작곡가와 박성규 한국불교음악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허철영 · 김혜정 · 전명신 · 최현진 · 박선영 · 조혁준 · 박규리 · 김희영 · 차헌호 · 김태근 · 조혁준 · 권기덕 · 권혜경 등 불교 음악인이 대거 동참했다. 사실 스님의 음악을 통한 포교는 이미 불교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스님은 지난해 11월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관음사 극락조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개최해 음악을 통한 포교를 시작했다.

김대성 작곡가는 "스님의 가사가 점점 운율에 맞게 변해 곡을 붙이기 쉬웠다"고 했다. 유수웅 작곡가는 "다른 가사와 달리 깊이와 힘이 느껴졌다"고 평했다.

시대 아픔 치유하는 법음(法音)으로

"부처님 오셨네 부처님 오셨네~ 쌓인 눈 녹이는 봄볕이런가. 굳은 몸 얼은 마음 비춰주시사~ 재앙도 병고도 녹여주시네." ('부처님 오셨네' 中)

음반집 속에서 함현 스님은 "이번 음반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노래하다 보면 태풍이 부는 끝에서 생겨나듯 큰 지혜가 삶 속에 피어날 것"이라는 함현 스님은 특히 "부처님 가르침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보시이며 공양"이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인도에서 공부할 때 악기 없이도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인도 사람들을 보며 불교음악도 쉽게 만들면 부처님 법을 쉽게 접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참선수행이 수승하지만 부처님은 대중 눈높이에 맞춰 방편을 설했죠. 현대인에게 가장 쉽게 불법을 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음악인 것입니다."

이번 음반과 악보집은 전국 사찰과 신행단체에 보시된다. 합창단과 음악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무조건 없이 사용 가능하다. 이미 조계종 군종교구에 악보집 400부와 음반 1000개가 전달된 상태다.

부처님의 향기를 음률에 담아 대중들에게 전할 생각에 스님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소리 소리가 관음이요, 걸음걸음이 보현의 걸음입니다. 문수는 달을 품고, 대세지는 비파를 타니, 이 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천년의 향기' 음반과 악보

"흙 매개체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파"

정운 스님의 첫 전시 '이야기가 있는 도예전'

'피고지는 저 순백함에 인생은 정답이 없다. 하지만 뼛속까지 중물이 든 이 세월은 어찌할고.'

새 하얀 도자기를 만지는 손길 속에 맑은 기운이 느껴지는 시 한편이 덧데여 진다. '이야기가 있는 도예전'을 여는 충남 보령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의 모습에서 꼿꼿한 수행자의 풍모가 느껴진다.

10월 17~26일 수덕사 선 미술관에서 첫 도예전을 여는 정운 스님〈사진〉은 20여년 동안 도예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1975년 석남사로 입산, 운문사 강원과 내원사 선원, 중앙승가대를 거쳐 해전대 오예과, 군산대 산업도예과 등을 거쳤다. 제 37회 충남미술대전에서 입선하고 2004년 전남 무등미술대전에서 특선을 하기도 했다.

출가 이후 도예가로서의 삶에 대해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을 가꾸는 것과 같았다"고 표현한다.

스님은 "흙을 만지고 성형하는 일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며 "1250도라는 고온에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새로 태어난 도자기들은 그 결과를 의도하지 않아도 각기 가진 본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수행자의 여정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는 정운 스님. 스님은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갈무리 된 모양의 결정체"라고 정의한다.

보령시 청소년교화연합회장, 세원아청문화육성회장,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 등 청소년 포교전문가로도 손꼽히는 정운 스님은 30년간 불사를 통해 세운사를 청소년포교의 구심점으로 일으켜 세웠다.




세원사 주지 정원 스님(사진 위)과 대표작 '목탁'

이제는 문화포교의 중심으로 다시금 새로운 불사를 꿈꾸고 있다.

"도예가라는 이름을 얻기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40여 년 동안 수행자라는 모습으로 살아 온 그 본연의 자세로 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010)5429-1434 노덕현 기자

28회 불미전 대상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변상도'

대회 운영위 10월 8일 결과 발표
12월 1일 시상식… 8일까지 관람

불교계 최고 권위의 미술대회인 제28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대상 수상작으로 김경미 씨의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변상도'가 선정됐다.

불미전 운영위원회(대회장 자승)는 10월 8일 대회 최종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불미전 수상작품은 총 51점으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6점, 특선 11점, 입선 28점이다.

대상에는 회화부문 김경미 씨의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변상도 1~7'을 비롯해 △최우수상 조각부문 박경렬 씨의 '석조미륵보살반가사유상', 공예부문 염정 씨의 '운흥사 관음보살도' △우수상 회화부문 일오스님의 '보경사 괘불', 조각부문 김평기 씨의 '문', 공예부문 정춘식 씨의 '업경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미전 대상 수상작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변상도'

이번 대회에는 그동안 운영된 작품 규격에 대한 제한을 해지해 이전 대회보다 30%가 증가한 총 148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개최되며, 수상작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12월 1~8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은 1970년을 시작으로 45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계 최고 권위의 미술대회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 인쇄 문화의 꽃, 일본서 선보이다

고판화박물관 11월 20일까지
일본 도쿄 전시실서 명품전 개최

오래된 판화 속에는 그 시대의 문화가 있다. 인쇄와 회화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판화는 '인쇄문화의 꽃'으로 당시 시대상을 대변한다. 한국의 문화를 대변하는 한국 고판화가 일본 동경에서 대거 선보인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아 양국 우호를 다지는 의미에서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은 10월 13일 일본 도쿄 국립국문학연구자료관 전시실에서 '한국고판화 박물관 명품전'을 개막했다. 전시전은 11월 20일까지 계속된다.

회교부와 문화재청, 일본 문부과학성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전에는 한국 고판화박물관 소장 강원도 유형문화재 152호 덕주사판 불설아미타경을 비롯해 고려시대까지의 한국 고판화 명품 70여점과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의 판화 40여점이 공개됐다.


일본 도쿄국립문학연구자료관에 출품된 '불설아미타경'

이번 전시는 강원도 원주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이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고판화박물관 명품 110여 점을 선별해 최초로 일본에 한국 고판화를 소개하는 특별전이다.

특히 이번 전시전에는 불교 고판화가 대거 공개됐다. 해인사 대장경 변상도를 비롯해, 시왕변상도, 고려법화경변상도와 조선 초기 현존하는 유일본인 불정심다라니경, 능엄경변상도, 조선 최고의 변상도중 하나로 꼽히는 정희대왕대비 발원 법화경 변상도 등이다. 노덕현 기자

易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제1기〉
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대한민국 역학고수 총 집결! 동양역학, 명리 풍수 관상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권위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제1기 동양역학 최고위과정

졸업 후에도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이 시대 동양 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역학 전문가, 동양 미래예측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진 :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 백운산 한국역술인협회장, 학선 유래웅 고려기문학회장, 박영창교수, 경기대 백민교수, 한양대 정창근교수, 백운암 노성순교수, 박청화 청화학술원장, 최명우 현공풍수지리연구소장, 창광 김성태원장,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청주대 이상광교수, 국제뇌교육대학원 박성희교수, 공주대 이수동교수, 글로벌사이버대 문봉 박재범교수, 서경대 김인순교수, 충청대 남정 권오연교수 외

■ 대 상 : 역학자, 명리학 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 (학력무관)
■ 일 정 : 1학기 과정(15주), 10월 19일부터 매주 월(月) 18:40 ~ 21:30
■ 수강료 : 185만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1-275629 (예금주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특 전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료 후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 자격증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 문화관광부 등록) / 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 선택

선정릉역 2번 출구 (지하철 9호선 / 분당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문의 02-3443-4984 www.gfca.kr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실외 양초 공양집

소이(SOY) 왁스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BTN 드라마 '붓다'

"늙음과 병듬, 그리고 죽음의 고통서 어떻게…"

지난 줄거리

싯다르타는 코살라국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이와 함께 데바닷다 가족은 싯다르타를 수행자로 만들기 위해 왕이 되기 전 백성을 살피는 여행을 제안하고, 싯다르타는 숫도다나왕의 반대를 꺾고 여행길에 오른다. 싯다르타는 여행 중 불가촉천민을 만나 이들의 힘든 삶을 느끼고, 브라만에게 바쳐지는 제물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강에서 장례를 치르는 이들을 보며 죽음에 대해 고뇌하기 시작한다. 마야부인의 제사를 지내며 마하파자파티가 친모임이 아님을 알게된 싯다르타는 보무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다시금 번뇌에 빠진다.



우연히 만난 수행자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는 싯다르타. 그는 수행자의 모습에서 늙음과 병듬, 죽음, 그리고 우리의 삶속에서의 갖가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느낀다.



싯다르타는 바라문과 마하파자파티의 우려 속에 아들을 만나고 '라훌' 이라 이름한다.


싯다르타는 코살라국의 기습으로 인한 카필라바스투 전투로 마가다국과의 동맹을 맺자마자 돌아온다. 전투의 참극을 보고 절규하는 싯다르타.


야소다라의 보살핌에도 무엇인가를 결심하는 싯다르타.

싯다르타는 어느날 왕실에서 브라만에게 축복을 비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23회 초기의 브라만과의 대화는 기성 브라만교에 대한 싯다르타의 문제의식이 그대로 담겨있다.

"행복할 때나 생일이 있던 부마경선이 있던 언제나 브라만에게 상금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야 어느 누구도 우리의 행복에 저주를 내릴 수 없게 된단다."

"브라만은 신의 대리인이며, 브라만의 축복은 인간의 삶에서 뚫을 수 없는 갑옷과 같은 것입니다."

숫도다나왕과 브라만의 대답에 싯다르타는 이렇게 답한다.

"그렇다면 다친 그대의 발은 어찌된 것이요? 본인의 운명을 축복하는 것은 잊은 것이요? 축복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브라만이 어떻게 자기 몸을 다치겠습니까?"

싯다르타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동에 대가를 치른다' 는 브라만의 답에 "우리의 행동이 삶의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축복 또한 가짜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숫도다나 왕이 브라만에게 주려고 한 재물을 받아낸 싯다르타는 궁밖의 어려운 천민들에게 그 재물을 나눠준다. 여기서 한 천민이 싯다르타에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이런 적선이 아니라 왕실의 수탈을 막아주는 것"이란 말을 듣게 된다. 재물을 나눠주면 백성들이 행복할 줄 알았으나 근본적인 고통이 사라지지 않음을 알고 싯다르타는 다시 생각이 깊어진다. 싯다르타는 이은 유행에서 우연히 수행자를 만난다. 여기서 싯다르타는 깊은 인상을 받는다. 수행자의 자유자재한 삶에서 였다.

"부자도 보고 빈자도 봤다. 권력욕에 눈먼 전사도, 지성적인 브라만도. 그런데 이건 어떤 사람이지?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가?"

싯다르타의 고뇌와 함께 궁내의 정치적 상황은 급변한다. 데바닷다와 이웃나라와의 정략결혼에 데바닷다는 야소다라를 사랑한다며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코살라국은 석가족 연합의 전쟁배상금 요구에 다시금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이 임박하자 석가족 내부에서도 싯다르타의 자애심으로 승기를 놓쳤다는 내분이 격화된다. 이에 싯다르타는 코살라국과 전쟁을 피하면서 가다국과의 동맹으로 평화를 유지하자고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타포단과 싯다르타의 언쟁이 벌어지고 결국 그 영향으로 데바닷타의 정략결혼이 무산된다. 망갈라는 숫도다나왕을 찾아 싯다르타를 편애해 생긴 일이라고 따지며 석가족 내부에서도 갈등이 본격화된다.

야소다라의 출산일이 다가오자 마하파자파티는 불길한 예언을 피해 출산축하연을 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바로 아들을 만나게 되면 싯다르타가 죽음에 이른다는 예언 때문이었다.

반면 싯다르타는 천민마을에서 수행자를 만나 순수함을 인정받고, 또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싯다르타는 아이의 이름을 '라훌' 이라고 한다. 모든 장애를 넘어 슬픔을 이기는 사람이란 뜻이다.

마가다국은 석가국과의 회담에 응했다. 마가다국으로 떠나기 전 싯다르타는 재물을 바치는 의식에 참여할 뻔 했으나 소를 놓아준다. 마가다국으로 떠난 싯다르타는 반굴과의 싸움을 피해 힘든 길을 돌아 빔비사라왕을 만난다. 마가다국과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카필라바스투는 이미 코살라국과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전쟁이 일어난 카필라바스투에 돌아온 싯다르타는 자신의 신분과 이상과의 괴리감으로 고통받는다.

사문유관에서 고뇌하는 싯다르타
석가국은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카필라바스투 전투로 인해 석가국의 숫도다나 왕은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싯다르타가 석가국의 궁정을 도 맡게 된다. 다시금 전쟁을 통해 코살라국에 보복을 하자는 석가족 대신들에게 싯다르타는 "전쟁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대중들을 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왕실의 책임자가 된 싯다르타는 석가족이 건설하고 있던 신도시를 직접 보기 위해 향한다. 여기서 신도시 주민들은 싯다르타를 원망하고 절규를 보낸다. 전쟁과 신도시의 고통을 보고 출가의 결심을 한 싯다르타는 야소다라에게 이렇게 말한다.

"고통의 한계를 경험했다. 가난과 질병, 늙음, 부자와 빈자의 관계로 인한 고통을 경험했소.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으며, 부자든 빈자든, 어떤 계급도 죽음은 피할 수 없소."

BTN Buddhist True Network
본방 매주 수 · 목 저녁 9시
재방 일요일 새벽 1시 · 오후 3시(각각 2회 방영)
월~목 새벽 1시/ 화 · 수 오전 9시

리뷰 – 법현 스님이 본 드라마 '붓다'

신분과 직업 알면 재미 두배

드라마붓다가 점점 더 극적인 재미를 높여가고 있다. 청년기에 결혼하고 아이 라훌(라)을 낳으며 집안은 안정되어가는 반면에 국제정치의 상황이 복잡하게 맞물려 가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국내정치의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싯다르타의 태자 자리와 야소다라라는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인까지 제 차지로 하고 싶어 안달인 데바닷타와 그의 아버지, 또 멋모르는 싯다르타의 장인이자 야소다라의 아버지 등이 돌고 돌아가는 갈등구조의 톱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이웃 코살라의 새 왕인 프라세나짓의 야욕이 빚는 결과로서 당사자들은 죽을 맛이겠지만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흥미진진한 게임이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인도의 오랜 전통이며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신분 제도상 늘 제2인자들이지만 정치를 주름잡는 크샤트리아들이다. 이는 어디에서나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3국, 통일신라시대나 고려 그리고 일본의 전국시대부터의 상황 등이 그렇다. 나라의 대표권은 천왕이나 국왕이 가지고, 실질적인 정치나 행정권은 무사들이 갖는 제도형태이다.

인도인과 드라마 붓다에 나오는 사람들의 직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천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들의 계급제도를 알아야 한다. 유일신교처럼 창조주인 브라흐만을 믿는 신앙에서 생겨난 것인데 크게 브라흐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의 넷으로 나뉜다.

브라흐만 계급은 사제 계급으로 브라흐만의 입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예언과 주술행위, 희생제 등을 통해 그들의 신성성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현실적인 권력제도의 벽은넘지 못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크샤트리아계급은 왕족, 무사계급으로 브라흐만의 배꼽에서 태어났다. 바이샤는 농공상인으로 브라흐만의 무릎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수드라는 천민 노예계급으로 브라흐만의 발바닥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수드라는 더 여러 높낮이로 갈라져서 보통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

드라마에서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에 자신들의 발자국이나 냄새가 남으면 안 된다고 새 깃털로 문대며 가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 웃지 못할 계급제도가 얼마나 굳세게 지켜졌는지 근래에도 암베드카르(B. R. Ambedkar, 1891~1956)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 신분제도 개혁을 외치고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여전히 그 계급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에서 여러 가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재미를 돋운다. 시녀 로시카는 이쁘고, 슬기롭고, 상냥하다. 주인공 싯다르타와 야소다라의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존재로서 사랑을 받는다. 마부 찬나는 그야말로 마부가 아니라 싯다르타의 수족과 같은 사람으로 나온다. 카스트제도 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데 드라마로는 참 재미있게 극본을 썼고 연기도 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나 최하층 천민계급인 이발사 우빨리가 불교경전이나 역사적으로는 가장 극적인 인물일 것이다. 왕자들과 함께 출가하면서 오히려 왕자들의 배려를 받아 먼저 계를 받게 함으로써 법랍이 높아 사형이 되게 하는 장면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그리고 나중에 계율 잘 지키기로 으뜸인 제자가 되었다. 드라마에서는 최고의 국제미녀 암바빨리가 싯다르타와 야소다라의 혼인에 나타나 무용공연을 하고 선물 대신에 단독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와 시선을 빼앗는다. 싯다르타는 그러마고 흔쾌히 대답하여 시청자는 물론 야소다라를 한순간 당혹하게 만든다.



물론, 사랑하는 야소다라와 일심동체이니 그녀의 의사를 따르겠다는 말로 책임도 피하고 사랑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렸지만 말이다. 아! 불자들의 관심사인 싯다르타의 출가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것은 데바닷타의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된다.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 BTN 자문위원)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 · 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구합니다"


先覺(崔星東)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영통혜안(靈通慧眼)이 열려 있는 초능력의 선지자(先知者)라고 소문이난 先覺(崔星東)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건강, 사랑, 금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운수대통(運輸大通) 행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천지신명(天地神明)님이 저에게 귀하게 내려주신, 영통혜안(靈通慧眼)의 초능력(超能力)으로 소원성취, 신비부적(神秘符積)을 만들어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져 합니다. 남을 돕는 좋은 일에 사무실(서울, 아파트 40평 전후)을 제공해 주실분을 찾고 있사오니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각의 계획

※ 월 사용료는 충분히 사례 하겠습니다.
위치, 평수에 따라 매월 300~700만원 지불예정.
※ 경비를 제외한 수입금 전액을 소년, 소녀가장과 독거노인분들에게 사용할 것입니다.
(1차 봉사금액 목표 : 2016년 3월까지 10억)

연락처 : 010-5599-8457 선각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0.8~2015.10.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5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3	부처님의부자수업	윤성식	불광출판사
3	금강경을읽는즐거움	일감스님	민족사
5	너무멀리서찾지마라	정운스님	(주)조계종출판사
6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7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8	인생의약상자	마스노 슌묘/김정환	담앤북스
9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7	모든 숨마다, 나	틱낫한/김성희	아이넷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면역계 강화하는 마음 챙김 명상의 힘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기적의 명상치료
비디아말라버치 · 대니펜맨 지음
김성훈 옮김
불광 펴냄
1만 7천원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1차 괴로움과 2차 괴로움으로 구성된다. 1차 괴로움은 몸에서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고통스러운 감각이며, 2차 괴로움은 이를 뒤따라오는 불안, 스트레스, 걱정, 우울 등과 같은 마음 작용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 통증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통증서 벗어나려면 이 1차 괴로움과 2차 괴로움 모두를 해결해야 한다.

마음챙김 명상은 1차 괴로움과 2차 괴로움을 구별할 수 있게 도와준다. 통증을 확대 해석하는 마음 작용을 통제하고, 통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해 통증을 키우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먼저 2차 괴로움이 잦아들면, 1차 괴로움 역시 점차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1차 괴로움이 생각보다 크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 통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다.

통증 지각의 방식, 마음챙김 명상으로 통증이 해소되는 방식은 뇌 영상 촬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일차 체감각 피질(primary somatosensory cortex)' 로 알려진 뇌의 특정 부위에 반영된다. 몸의 특정 부위에 자극이 가해지면 그에 해당하는 뇌 영역에 신호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러한 몸의 특성을 이용해 마음챙김 명상이 통증 지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했다. 그 결과 같은 강도의 자극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통증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짧은 명상 수련만으로도 통증이 절반가량 줄었으며, 숙련된 명상가의 경우에는 통증 강도와 그에 따른 불쾌감이 각각 70%와 93%까지 줄었다.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는 뜻이다.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구조를 바꾸어 나간다. 그래서 만성 통증으로 오래 고통받은 사람일수록 통증을 감지하는 뇌 조직의 양이 훨씬 많다고 한다. 마음챙김 명상은 온 신경을 통증을 지각하는 데 몰두해온 뇌 회로를 재배선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이다. 1차 괴로움과 2차 괴로움의 차이를 드러내 통증의 악순환을 뿌리 뽑고, 부정적 편향에 사로잡힌 삶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신경세포 구조를 변화시켜 통증 지각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의학계에선 마음챙김 명상을 뇌 수술에 비유하곤 한다.

마음챙김 명상의 치유 효과는 단지 통증 지각을 약화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건강을 향상시키고 우리 몸의 치유 속도를 높인다. 이 책 저자들은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생존 본능이 자리 잡았다고 말한다. 첫째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회피 시스템' 이고, 둘째는 새로운 기회와 자원을 찾으려는 '성취 시스템' 이며, 셋째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움을 얻으려는 '진정과 만족 시스템' 이다. 저자들은 이 세 가지 시스템이 균형을 이룰 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개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경우 이 세 가지 시스템의 균형이 틀어진 경우가 많다고 한다. 통증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려 발버둥치고, 통증이 잦아들면 미뤄뒀던 일로 자신을 혹독하게 내몰기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통증 실체 파악하고 악순환 고리 끊는 역할
뇌영상 촬영 통해 확인…93% 사라지는 것 입증
회피, 성취, 만족 시스템 균형이룰 때 행복해져
통증 해소 8주 프로그램과 습관 해방 소개

이 책에 실린 8주간의 MBPM 프로그램에는 자신과 타인을 향한 친절, 연민,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챙김 명상 과정이 들어 있다. 이를 통해 '진정과 만족 시스템' 을 강화하고 다시금 삶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 책에서 저자들이 특별히 '진정과 만족 시스템' 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몸의 치유 속도를 높이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친절, 연민, 유대감 등의 감정은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의 분비를 높이고 면역계를 강화시킨다. 통증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는 대신 치유에 온 힘을 쏟으라고 몸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미국 듀크대학교 의학센터와 에모리대학교의 연구팀은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마음챙김 명상으로 사랑, 친절 등을 가꾸면 면역계의 힘을 길러 통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저자들은 자신 있게 말한다. "가장 친절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총 8주에 걸쳐 진행되는 MBPM 프로그램은 하루 10-2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수련할 수 있는 간단한 마음챙김 명상과 '습관 해방시키기' 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명상의 경우, 저자들은 별도의 사전 준비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독자들이 일상 중에 명상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실천법을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어떤 자세로 명상해야 하는지 그림으로 정확히 일러주고, 명상에 도움이 되는 각종 도구, 책, 관련 단체, 웹사이트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또 초보자들이 안내 음성에 따라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본문 명상 트랙을 따로 녹음해 MP3 파일로 제작했다.

매주 마음챙김 명상과 더불어 실천해야 할 '습관 해방시키기' 는 통증을 악화시키는 무의식적인 사고 · 행동 습관을 뿌리 뽑기 위한 의식적 활동이다. 물이 끓는 주전자를 바라보거나, 잠시 밖에 나가 자연을 만끽하는 것처럼 일상 중에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들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활동이 차츰 습관을 통해 고착된 통증, 괴로움, 스트레스를 깨뜨려 전체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음챙김 명상은 인내와 반복에서 힘을 얻는다. 그런 까닭에 저자들은 가능한 규칙적인 시간에, 꾸준히 명상 수련을 해나갈 것을 조언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 어린 마음이야말로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다. 저자들은 명상에 실패란 없으며, 단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중간에 프로그램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낙담할 필요 없으며, 그 일로 자신을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스스로 실패라고 생각한 경험 자체도 큰 교훈이 될 수 있으며, 언제든 의지가 생길 때 다시 고삐를 쥐고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다.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내용

- **바디 스캔 명상 :** 의식을 몸으로 옮겨와 거기서 느껴지는 감각에 마음을 집중하는 명상.
- **호흡의 닻 명상 :** 생각, 느낌,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과의 싸움을 내려놓는 명상.
- **마음챙김 동작 명상 :** 몸의 유연성을 기르는 가벼운 마음챙김 동작과 함께하는 명상.
- **연민 어린 받아들임 명상 :** 자신의 어려움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는 명상.
- **즐거움의 보고 명상 :** 사소한 즐거움에 정신을 집중하는 명상.
- **열린 마음 명상 :** 통증을 없애는 자신감, 친절함, 포용력 넘치는 의식을 키우는 명상.
- **유대감 명상 :** 친절함과 연민의 감각을 타인으로 확장시키는 명상.
- **3분 호흡 공간 명상 :** 전체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를 3분 안에 농축시킨 명상.

불교문화재 어린이 눈높이 맞게 해설



야단법석, 부처님박물관
조혜진 · 이대진 등 지음
나는 책 펴냄
1만 6천원

이 책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불교의 풍성한 상징들이 응축된 '불상' 을 중심으로 1600여 년 우리 문화의 토대를 이뤄 온 불교문화를 개괄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 조상들의 염원이 담긴 불상, 탑, 회화, 공예품 등의 문화재를 어린이 눈높이로 쉽고 흥미롭게 설명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10주년 기념 전시,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 불교 조각 대전에 맞춰 펴낸 도서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들이 글과 감수를 담당했다.

역사 문화의 토대, 불교 만나다

삼국시대에 전해져 오랜 세월, 우리 겨레의 신앙으로 이어져 내려오며 역사와 문화의 바탕을 이룬 불교. 하지만 요즘 어린이들에게는 다른 나라 문화만큼이나 낯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야단법석, 부처님박물관〉은 사찰이나 여행지, 박물관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불상들을 통해 우리나라 불교문화 전반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도록 돕는 책이다. 상징체계가 풍성한 만큼 어린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지는 불교에 대해 이 책만큼 쉬운 시작을 하도록 돕는 책은 흔치 않다.

이 책은 국립중앙박물관서 불교조각 큰 전시를 기획하면서 종교적 측면 이전에 문화재를 통해 역사적 의미로서의 불교문화를 편하게 접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기획한 책이다. 불자가 아닌 일반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불교의 흥미로운 세계관에 부담 없이 다가설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흥미진진한 부처와 보살을 만나다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은 알아도, 그 외의 다른 부처들이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여러 보살들, 신장들은 그 존재를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다양한 개성과 역할을 지닌 불교의 부처님과 보살과 신들을 알아가다 보면 불교문화가 더욱 흥미진진하게 느껴진다. 이를 통해 복잡하고 난해하게 느껴지던 불교가 꽤나 활기차고 친근하게 여겨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 생활 속 불교를 재발견하다

불교의 시작과 기본 원리, 수많은 불보살과 불교 상징물들의 유래 등을 자연스레 만나는 것과 함께 '나무관세음보살' '극락과 지옥' '해탈과 윤회, 환생' 등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생활, 말과 생각에까지 스며들어 있는 불교 유산들도 새삼스럽게 돌아보게 될 것이다.

이판사판, 야단법석, 독서삼매경, 다반사, 찰나는 물론이거니와 뒷바라지, 공부, 건달, 주인공까지 불교에서 유래된 말이라면 놀랍지 않은가?

불상, 회화, 공예품 등 설명
국박 이전 10주년 기념 전시물
학예연구사들 꼼꼼히 글 감수

이런 문화재, 처음이죠?

책을 넘기다 보면 '세상에, 이런 조각이나 그림 문화재도 있었어?' 하고 놀랄지도 모른다.

우리에겐 반가사유상과 석굴암 본존불 말고도 멋진 불교 문화재들이 넘쳐난다. 국보와 보물급은 물론이거니와 보기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불교 조각과 그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책의 숨은 미덕이다.

다른 문화재들을 보느라 놓치고 있던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문화재를 만나는 기쁨을 안겨줄 책, 바로 이 책이다. 또한, 새로운 이야기들이라 처음엔 자칫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를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재치 있고 귀엽게 풀어낸 화가의 그림이 좋은 길동무가 되어 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민족사 주소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석지현 스님, 《벽암록》에 이어 《종용록》 역주 해설본 출간!

'지혜의 칼' (벽암록)과 더불어 '훈훈한 봄바람' (종용록)을 곁들이지 않으면 완벽한 선자(禪者)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두 공안집(公案集)을 통해 간화선(看話禪)과 묵조선(默照禪)의 차이를 동시에 이해하면 수행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 석지현 스님



칭기즈칸의 참모 야율초재가 최초로 간행!
중국의 역사와 사상을 총망라한 지혜의 보고!
국내 최초 완역 해설본!!

종용록

전5권 값: 185,000원 // 신국판 양장 // 민족사 펴냄
(낱권 판매 불가)



선어록의 최고봉! 선종문화의 총결산!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

벽암록

전5권 값: 145,000원 // 신국판 양장 // 민족사 펴냄

책 속의 밑줄 긋기

"이것이 나이고, 내가 우주의 주인공이며, 인생살이나 가정 살림, 회사나 나라를 운영하는 일의 주인공이 전부 나 하나라는 것, 이것 하나 깨우쳐 마음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알면 끝납니다. 하근기(下根機) 중생을 인도한다고 열어 놓은 온갖 방편(方便)에 끄달리며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무비 스님의 전심법요 강설〉중에서

"별가가 다 써 놓으니, 모든 대중이 다 놀라서 서로들 웅성거리며 말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일세!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어찌 오랜 시간동안 저 사람이 육신보살(肉身菩薩)임을 알지 못하였던가?"

〈법보단경〉중에서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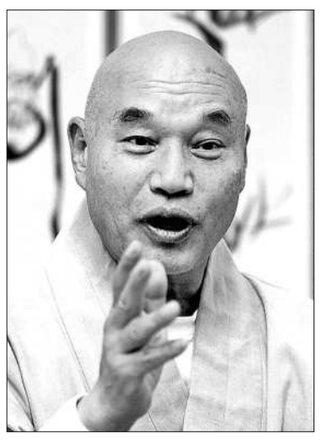
오직 一心 일뿐 다른 법은 없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무비 스님의 전심법요 강설

무비 스님 강설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 8천원



저자인 무비 스님

조사선 핵심이 담긴 희운 선사 어록
한국불교 선맥에 큰 영향 미쳐
무비 스님의 자세한 해설로 풀이
저자 체험과 버무린 감로법문도

진짜 불교는 무엇인가, 진짜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모든 부처님과 일체중생이 오직 한마음이요, 다시 다른 법은 없다. 많은 불자들은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기 위해 장소를 물을 때마다 '영험함' 을 기준 삼는다. 그래서 이곳 저곳을 떠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험함을 경험치 못할 때에는 끝내 개종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의미 없는 일일 뿐, 불교의 가르침은 그러한 데 있지 않다.

그렇다면 불교란 무엇인가.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즉심시불(卽心是佛)' , 또는 '심즉시불(心卽是佛)' 이란 말을 자주 접한다. '마음이 곧 부처다.' , 이 말은 선종의 대지라 할 수 있다.

唯此一心(유차일심)이 卽是佛(즉시불)이니 佛與衆生(불여중생)이 更無別異(갱무별이)어늘 〈오직 이 한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이 다시 다른 것이 아니거늘〉. 특히 마음과 부처, 중생은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곧 부처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치는 비단 선불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무비 스님은 이 책서 초기불교뿐 아니라 대승불교, 밀교에 이르기까지 일심(一心), 즉 한마음의 도리를 제외하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심이야말로 불교의 종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심에의 가르침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어록이 바로 황벽 희운 선사의 〈전심법요〉이다.

이 어록은 중국 조사선의 핵심대의를 잘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한국불교 선맥에 큰 영향을 미친 임제종을 대표하는 선어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선의 요체를 간명하고 쉬운 언어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 어록서 선사는 '유전일심 갱무별법(唯傳一心 更無別法)' , '오직 한마음만 전할뿐 다른 법은 없다.' 라는 대지 아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안의 불성, '일심' 과 '무심(無心)' 에 대해 강조한다.

"若不決定信此是佛(약불결정신차시불)하고 而欲著相修行(이욕착상수행)하며 以求功用(이구공용)이면 皆是妄想(개시망상)이라 與道相乖(여도상괴)니라. 만약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형상에 집착하며 수행으로써 복이나 공덕을 구하려 한다면, 모두 다 망상에 빠지게 되고 진리의 길에서 어긋나게 된다."

황벽 선사는 이런 이치를 믿지 못하고 그 밖의 것을 향하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펼친 방편에 집착해선 안 된다고 주문한다. 이미 부처는 우리 안에 여여히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이상 얻을 것이 무엇 있겠느냐는 말이다. 황벽 선사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중생은 형상에 지나지 않는 불상 앞에 엎드려 복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선사의 이 말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의 신행과 수행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이다.

황벽 선사의 제자인 배휴 거사가 선사의 법문을 기록해 〈전심법요〉를 간행한 지 1,15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불교계에서도 〈전심법요〉를 많은 수 소개했으며, 시중에 도서로 출간된 바 있지만 이처럼 생생하고 꼼꼼하게 강설한 책은 유일하다. 특히 이 어록을 강설한 무비 스님은 통도사 · 범어사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등을 역임한 한국불교의 대강백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책은 무비 스님이 지난 〈전심법요〉 강의를 통해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한 내용을 재편집해 지면에 옮긴 것이다. 그래서 무비 스님이 마치 옆자리 가까이에 앉아 손가락으로 짚어 주며 설하듯 생생한 어조로 풀이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그동안의 해설서는 많은 주가 달렸거나, 매우 간략히 소개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 책은 무비 스님의 꼼꼼한 성격을 알려주듯, 한 단락 한 문장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설명하되, 스님 체험과 그간의 생각들이 함께 버무려져 자칫 생소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도 쉽고 재미있게 풀이했다.

"본래 다 구족돼 있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을 사람이라는 위대한 존재의 가치를 몰라 공덕을 닦느니 하는 거죠. 세상에 필요한 모든 행복과 평화, 성공이 자신 안에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무비 스님은 강설 중 우리 삶의 감로가 되는 충고도 잊지 않는다. 이는 그동안 신도들이 해 온 수행과 신행 생활에 대한 내용이며, 수시로 분별과 차별 등에 휘둘려 스스로 고행을 자처하는 우리 삶에 대한 내용이다.

"불교는 학문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데 최상의 열쇠는 마음의 도리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무비 스님의 말처럼 불교는 중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이러한 뜻은 황벽 선사의 어록 곳곳에도 엿보인다. 선불교의 종지는 곧 '즉심시불' 이라 하지 않았는가. 무비 스님은 '우리가 곧 부처' 임을 강조하며, 이 우주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개개인임을 황벽 선사의 말을 통해 전하고 있다. 이 핵심에는 '마음' 이 있다. 바람 불어 물결이 인들 물 아닌 것이 없고, 나무로 불상을 깎거나 코끼리상을 깎아도 모두 나무 향이 나며, 반지를 만들든 목걸이로 만들든 녹이면 결국 금인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여여함임을 알고, 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결국 행복을 얻는 최상승 책임을 일깨운다.

'성품을 보아' 단박에 활짝 깨닫는 돈교법문

법보단경

육조혜능 지음 | 이경석 옮김
비움과 소통 | 1만 8천원



〈육조법보단경〉은 줄여서 〈육조단경〉이라고도 하고 〈법보단경〉 또는 〈단경〉이라고도 한다. 선종의 초조인 달마대사로부터 제6조가 되는 조계 육조혜능대사께서 설한 법문을 그 문인들이 기록한 어록이다. 불법인 진리를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법보 또는 경이라 하는데, 6조대사께서 설한 불심의 법을 후학들이 높이 받드는 뜻으로 '경' 이라 한 것이다.

6조 혜능대사의 종지가 설파된 〈법보단경〉은 종보본, 고려 연우본 또는 덕이본, 도원서대승본, 혜소서흥성사본, 돈황출토본 등 5종의 이본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때 판본으로 연우병진본이라는 덕이본이 유통돼 왔는데, 〈단경〉을 애독하고 깊이 참구한 보조국사의 발문이 유명하다. 본서는 덕이본을 근거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면서도 실제 생활하는 가운데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보단경〉은 조계산 대범사의 무상계단서 무상계와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설한 내용으로 육조대사의 문인인 법해 선사가 기록한 선어록이다. 〈법보단경〉 편찬 간행은 당시 대사의 초기 호법왕이라 할 수 있는 자사 위거 발원에 따라, 법해선사가 편찬한 것으로 단경 본래의 기록을 충실히 살피도록 한 것이다.

〈법보단경〉 요지는 우주법계의 근원이요 근본바탕인 참마음을 밝힌 자성정 자성반야와 그 수행법으로써 망념을 여읜 무념을 종으로 삼고, 일체의 현상을 초월한 무상으로써 체를 삼으며, 일체에 집착 않는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데 있다. 지혜로 이 마음을 관조해 일체가 '진공 묘유' 함을 요달하면 일체법에 걸림이 없고 간택이 없는 본래 청정 · 공적한 진여성에 합하게 되어 곧 무념, 무상, 무착의 반야삼매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선의 핵심 종지이다.

6조대사는 "좌선은 본래 마음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조촐함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또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일체 경계에 생각(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一念不起)이 '좌(坐)' 이며, 본래의 마음(自性)인 그 근원의 성품이 어지럽지 않음을 보는 것이 '선(禪)' 이라 하셨다. 부처님께서 온 우주의 당체이자 근본 바탕인 나의 근원과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이 선이라면, 그 깨우친 바를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이 교(敎)라, 선과 교가 곧 둘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사교입선' 은 경을 무조건 보지 말고 선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경(길)을 알았으면 목적지로(선) 곧장 들어 가라는 뜻이다.

옮긴이인 이경석 법무법인 법산 대표는 "혜능대사의 설하신 법에 대한 말씀이 한 구절 한구절 그대로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기에 그 뜻을 훼손치 않으려 했고, 고균 덕이 스님께서 평생을 노력 끝에 엮으신 이른바 '덕이본' 을 기초로 한글로 번역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20년 단독 수행으로 자기 내면의 기적 발견

단독수행

조해인 지음 | 해냄 펴냄 | 1만 4500원



"요즘도 바쁘시지요?"라는 말이 잘 지내시느냐는 인사가 되어버린 시대, 촌각을 다투어 일하지 않으면 왠지 허전하고 뒤떨어진 듯한 기분에 매일의 일정을 빼곡하게 채우고야 마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바로 그 시점이, 밖으로만 뻗어나가는 시선을 다잡아 내 안에 담긴 열매를 찾아볼 시기가 아닐까?

기독교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방송작가이자 소설가로 열정적인 삶을 살던 어느 날 문득 세상에 탈진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아무 계산 없이 명상의 길로 들어간 사람, 20여 년 가까이 나 자신의 탐구에 몰두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 〈단독 수행 : 내 안의 기적을 발견하라〉는 방송작가이자 소설가로 활발하게 활동한 조해인 작가의 마음 수행기로, 바로 오늘의 자신을 돌아보려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중국 절강성 닝보로 떠나 20여 년 동안 단독 수행자로 활동하고 돌아온 작가가 자기 안에 쌓인 고뇌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우주의 근원을 생각하고 자신의 중심의 들여다보라는 메시지를 담은 원고를 집필한 것은, 오랜 수행 끝에 얻은 결실을 나누고자 함이다. 작가는 집필을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안 되어 마음속에 응축된 금강의 원리를 담아냈다.

이 책은 전체 5장으로 구분돼 있으며, 마치 개인 에세이를 읽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명상의 개념과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작가가 큰 영감을 받은 마조 선사나 달마 대사, 티베트의 설화 등을 불교와 라마교의 명상법과 함께 설명함으로써 〈금강경〉 주요 개념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이됐다는 장점이 있다. 작가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명상을 접하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 왜 우리가 수행 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세상사에 시달리며 고통의 파고를 넘는 현대인들에게 자아를 찾아 내면을 발전시킬 것을 이야기하는 이 책은, 명상에 관심 있는 불자뿐 아니라 마음공부를 추구하는 독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명상에 대한 내용을 두루 포괄하고 있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다독이고 가꿔나가고 싶은 독자들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영혼의 양식이다.

김주일 기자

영남 범음. 범패 제5기 학인모집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실용의식 : 천도재 및 49재의식, 실전강의, 각 사물 등
◆작 법 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수시모집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육대상 : 승, 속 관계없이 가능 함
◆개강일시 :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까지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27 가동 205호 (중앙시장 2층)
◆문 의 처 : 010-5065-5690

근 화 학 당

◆역학교실 : ① 교양반 ② 전문반
◆강 사 : 추송 ◆수강료 : 월 10만원
◆문 의 처 : 010-8948-7948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 7시까지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되고 있는
의식, 역학을 집중 지도함

영남범음 범패원장 제봉
근화학당 역학원장 추 송 합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 易學 강좌

논리로 푸는 사주학 과학역학 '석하명리'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음양오행과 사주학의 모든 이론에 대한 원리를 밝히는
과학역학 '석하명리' 성공과 실패의 10주년 패턴 '석하리듬'

구 분	요 일	시 간	개 강
초급(주간)	매주 (火)	15:00 ~ 17:00	10월 20일
초급(야간)	매주 (火)	19:00 ~ 21:00	10월 20일
초급(야간)	매주 (水)	19:00 ~ 21:00	10월 21일
중급(주간)	매주 (木)	10:00 ~ 12:00	10월 22일

■ 기간 : 14주 과정 / 수강료 20만원
■ 교 수 진 : 석하 소재학 박사, 석원 박성희 박사, 심원 남상용 교수, 교원 설운스님, 강세명 교수
■ 강의장소 : 선정릉역 2번 출구(지하철 9호선/분당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 자격증 과정 겸비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 하원정미래학회 석하명리 동문자격(서울 29기)

· 성격특성, 진로적성, 성공과 실패의 시기 분석

서울벤처대학원 FCA
• 문의 : ☎ 02)3443-4984

松 송 根 근 油 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찌들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부적 기름으로 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정혜·백련결사, 승풍 진작을 외치다

13. 결사의 시대와 선교겸수 전통

고려 문벌귀족 사회에서 문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처우를 받으면서 불만을 품어온 무신들이 1170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무신정권이 성립되었다. 이후 약 100여 년간 이어진 무인집권기에는 무인들 내부의 갈등 속에서 무인 집권자의 잦은 교체와 국왕권의 약화, 문벌귀족 출신 문인 관료층의 세력 위축 등 정치사회적 혼란이 이어졌다. 즉 인사권, 재정권, 군사력에 바탕을 둔 국가의 공권력이 특정 무인세력의 사적 전횡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특권을 누렸던 문벌귀족은 물론 농민, 천민 등 전 계층을 망라한 전국적 범위의 민란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왕실은 물론 문벌귀족 세력과 밀착되어 있던 중앙의 불교계도 무신정권에 반발하여 궐기하였다. 1174년 개경의 승려 2천여 명이 무신정권에 대항하여 봉기하였고, 이후 1217년 고려에 침입한 거란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동원된 개경의 승려들이 집권자 최충헌을 살해하려다가 수백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왕실 및 문벌 출신이 교단을 이끌었던 화엄종과 법상종 같은 개경 중심의 교종 교단은 급속히 쇠퇴하였고, 선종과 천태종에서도 중앙에서 활동하던 세력은 밀려나게 되었다. 대신 지방에서 일어난 결사가 자율적 운영, 조직적 실천수행을 통해 불교 혁신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교종에서 선종으로 교단의 주도권이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기 불교계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가 바로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었다. 호를 목우자라고도 하는 지눌은 하급관료 가문 출신으로 선종 사굴산문에 출가하여 1182년 승과에 합격하였다. 하지만 중앙 불교계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여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1190년 대구 팔공산의 거조암에서 선정수행과 지혜를 함께 닦을 것을 내세우며 선승과 교학승, 재가신도를 포괄한 결사를 조직하였다.

지눌이 쓴 '권수정혜결사문'에서는 당시 승풍의 해이와 본분 상실을 지적하면서 수행인의 바른 자세를 재정립하기 위해 결사를 조직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정혜쌍수를 주장하며 염불과 독경, 선행 등도 승려가 지켜야 할 상법이라고 인정하였지만 이 역시 근본을 궁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1200년에 전라도 승주의 송광산(松廣山) 길상사(吉祥寺)로 옮겨 결사운동을 확대, 지속하였는데, 그의 결사운동이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1205년 왕명에 의해 산과 절의 이름이 조계산(曹溪山) 수선사(修禪社, 현재의 송광사)로 개칭되었다.

지눌은 앞서 창평 청원사에 있을 때 6조 혜능의 〈육조단경〉을 통해 진성(眞性)을 깨우치는 경험을 하였는데, 결사의 명칭인 정혜는 정과 혜를 함께 닦으라는 〈육조단경〉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어 하가산 보문사에서 이통현이 쓴 〈신화엄경론〉을 읽고 깨우침을 재차 확인하였고, 1197년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간화선의 주창자인 대혜 종고의 〈어록〉에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다. 즉 "선은 고요한 곳에 있지 않으며 소란한 곳에 있지도 않다. 일상의 인연을 좇는 곳에 있지 않고, 또 생각으로 분별하는데 있지도 않다. 먼저 고요한 곳, 소란한 곳, 일상의 인연을 좇는 곳,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을 버리지 않고 참선해야 홀연히 안목이 열리고 모든 것이 집 안의 일임을 알게 되리라"는 구절에서 계발을 받았다고 한다.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진영. 승풍진작을 위한 정혜결사를 이끌었다.



송광사 승보전에 그려진 벽화. 보조 지눌국사가 정혜결사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지눌은 〈육조단경〉과 〈신화엄경론〉, 〈대혜어록〉에서 각각 깨달음을 얻었고 또한 문도들에게 〈금강경〉을 읽으라고 항상 권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수심결〉, 〈계초심학인문〉, 〈원돈성불론〉, 〈화엄론절요〉,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간화결의론〉 등 그의 저술에는 수행의 입문으로서 교를 인정하는 선교겸수, 수행방식으로서 돈오점수와 간화선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 연장선에서 지눌의 수행법은 성적등지문, 원돈신해문, 간화경절문의 삼문 체계로 요약된다.

성적등지문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혜능의 정혜쌍수를 의미하며, 원돈신해문은 이통현의 사상에 의거해 중생이 본래부터 성불한 존재이므로 자신이 부처임을 직시하고 실천하자는 내용이다. 간화경절문은 수행의 최종 단계이자 가장 뛰어난 수행법으로 대혜 종고가 주창한 간화선을 수용한 것이다. 이는 각각 혜능의 남종선, 이통현의 실천적 화엄론, 대혜 종고의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을 기반으로 그 나름의 수행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지눌의 사상 및 수행법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자는 돈오점수의 방안, 화엄교학을 수용한 선교융합의 방향, 간화선 수행의 선양이었다.

지눌의 제자로서 수선사 2세 사주가 된 진각국사 혜심(1178~1234)은 최상근기에게 맞는 간화 경절문의 수행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체계화하였다. 혜심은 고려의 국립대학 격인 국자감에서 유학을 공부하다가 모친 사후인 1202년에 출가하여 지눌의 제자가 되었다.

지눌 '정혜쌍수' 주장… 결사 조직
승풍 해이 지적, 바른 수행 강조
화엄종·법상종 교종 계열도 결사
요세, 교관겸수의 '백련결사' 추진

호를 무의자라고도 하는 혜심은 각종 어록 등에서 공안과 화두를 간추려 집성한 〈선문염송집〉을 편찬하였고 간화선 수행상의 유의점을 제시한 '구자무불성화간병론'을 지었다.

한편 혜심 이후 수선사는 지방 향리층의 후원을 받던 지눌 때와는 달리 왕실과 최씨 무인정권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다. 최씨 무인정권의 2대 집권자 최우는 수선사의 최대 후원자였고 두 아들을 혜심에게 출가시키기도 했다. 그렇기에 혜심은 승과 출신이 아님에도 대선사라는 선종의 최고위 승계를 받았다.

최우는 몽골의 침략으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후 자신의 원찰 선원사를 강화도에 세우고 사주를 수선사 출신으로 임명하였는데 이후 그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어 원 간섭기에 들어서도 수선사는 원 황실의 지원까지 받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교단을 주도해 나갔다. 송광사가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로 불리게 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일이다. 승보는 불법승 삼보의 하나로서 진신사리를 모신 통도사를 불보사찰, 고려대장경이 안치된 해인사를 법보사찰이라고 부른다. 지눌과 수선사의 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선종의 조계종이 교단을 대표하면서 화엄종 등의 교종을 압도하게 된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었고 이후 선종 우위의 전통이 굳어져 갔다.

한편 이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인 결사운동은 지눌의 수선사를 대표적 상징으로 들 수 있지만, 화엄종의 반룡사와 수암사, 법상종의 수정사 등 교종의 결사도 행해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천태종의 요세(1163~1245)가 조직한 백련결사를 간과할 수 없다. 원묘국사 요세는 경상도 합천 지역 호장 가문 출신으로 12세에 출가하여 23세에 천태종 승과에 합격하였다. 이후 1198년 개경의 사찰에서 열린 법회 분위기에 실망하여 스스로 신앙결사를 결성할 뜻을 가졌다. 그는 일단 거조사 시절의 지눌의 정혜결사에 참여해 보았지만, 참선수행 위주로만 진행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다.

요세는 1208년 월출산에서 "천태의 묘해에 의지하지 않으면 수행의 120가지 병을 어쩔 수 없다"는 〈종경록〉의 저자 영명 연수의 언구를 떠올리며 천태의 교학과 관행, 법화신앙에 의거한 수행방식을 결정하였다. 그가 중국 천태종의 개조 천태 지의의 〈법화현의〉, 〈법화문구〉, 〈마하지관〉 3대부의 핵심을 요약 정리한 〈삼대부절요〉를 펴낸 사실에서도 교관겸수의 천태 전통에 대한 계승의식이 강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전라도 강진의 만덕산으로 옮겨 1216년 인근 토호들의 후원을 받아 백련결사를 조직하였다. 백련결사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정토신앙을 위주로 결사를 처음 조직한 여산 혜원의 백련사에서 따온 명칭이었다. 그리고 1232년에는 백련사에 보현도량을 설치하였는데 천여 명의 대중이 운집하는 성황을 이루었다고 하며 왕족과 귀족 관료로부터 일반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다. 더욱이 소치는 아이와 말 모는 더벅머리까지도 고개를 우러러 바라보며 귀의하였다고 전하는 등 상당한 대중성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포용적 성격은 당시 결사운동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사상적으로도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천태의 법화일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요세의 백련결사와 그 중심이 된 보현도량의 수행방식은 기본적으로 천태 지의의 〈법화삼매참의〉에 의거한 것이지만, 천태의 수행법과 염불 정토신앙을 결합한 송대 천태종의 경향성까지도 받아들였다. 이는 타력적인 아미타 염불신앙을 정식 수행방안으로 용인하지 않은 지눌과도 차별성을 갖는 것이었고, 고려 천태종을 개창한 의천이 참회행법이나 정토신앙을 배제한 것과도 다른 것이었다. 요세는 매일 선관을 닦으면서 〈법화경〉을 독송하였고 준제다라니 천 번, 아미타불 만 번을 염송하고 53체불을 12번씩 돌며 전생의 업보를 참회하는 수행을 몸소 실천하였다고 한다.

요세의 백련결사와 보현도량도 비록 수선사만큼은 아니었지만 최 씨 무인정권의 비호와 지원을 받았다. 예를 들어 최충헌의 부인이 백련사에 무량수불을 봉안하였고 최우는 보현도량에서 〈법화경〉을 간행하게 하고 직접 발문을 지었다. 백련결사의 전통은 이후 유학자 출신 승려인천인과 천책 등에 의해 계승 발전되었고, 이들의 영향으로 중앙의 관료와 유학자 지식인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백련사 2세 사주인 정명국사 천인(1205~1248)은 성균관에서 공부하다가 출가하여 요세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수선사의 혜심에게 참선을 배우기도 했지만 다시 백련사로 돌아와 천태교관, 법화참법에 의한 정토신앙을 이어받았다.

백련사 4세 사주 진정국사 천책(1206~?)은 과거에 합격한 후 〈법화경〉을 필사하다가 갑자기 발심하여 백련사로 출가하였다. 그는 보현도량이 세워질 때 스승 요세의 명에 의해 '발원소'를 지었고 1236년에는 '백련결사문'을 지어 결사운동의 지향과 의의를 널리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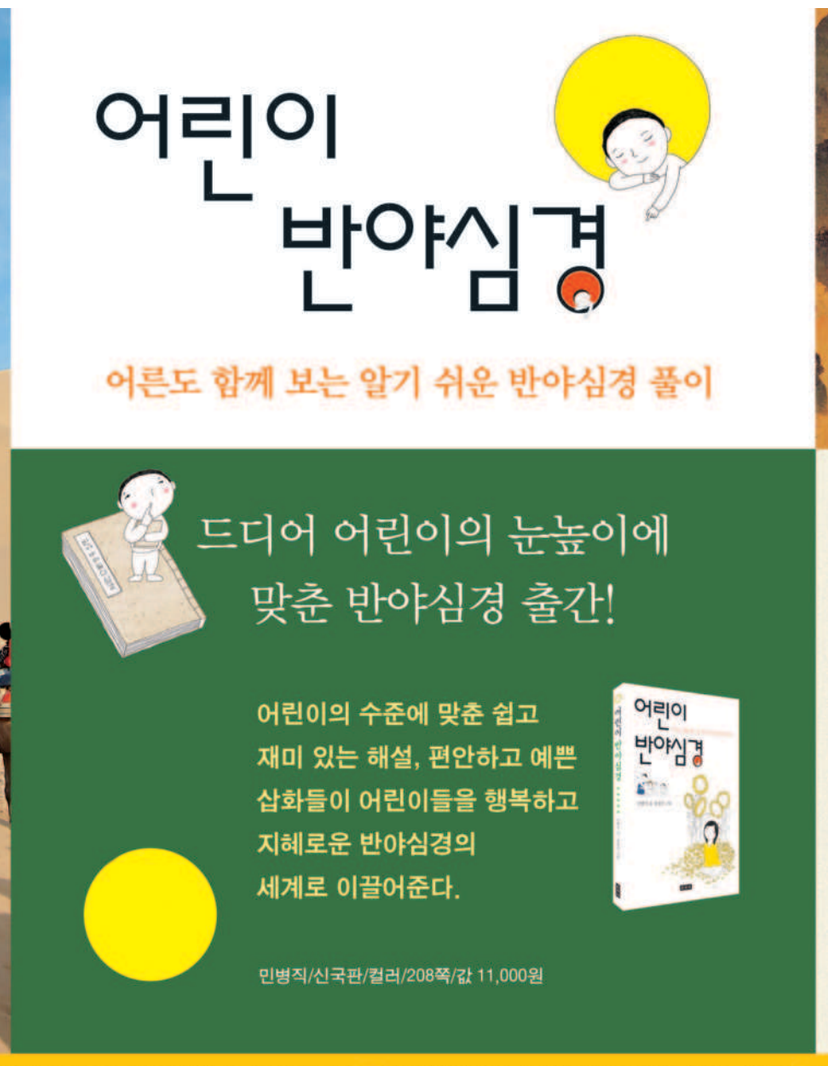
보조 지눌이 활동하던 12세기 후반부터 약 100여 년간 고려는 무신정권과 대몽항쟁의 혼란기를 겪었으며, 이는 기존 교단의 판도를 뒤흔드는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켰다. 중앙의 교종 종단의 쇠퇴와 선종의 부상, 지방 결사운동의 성행으로 요약되는 이 시기는 한국불교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전환기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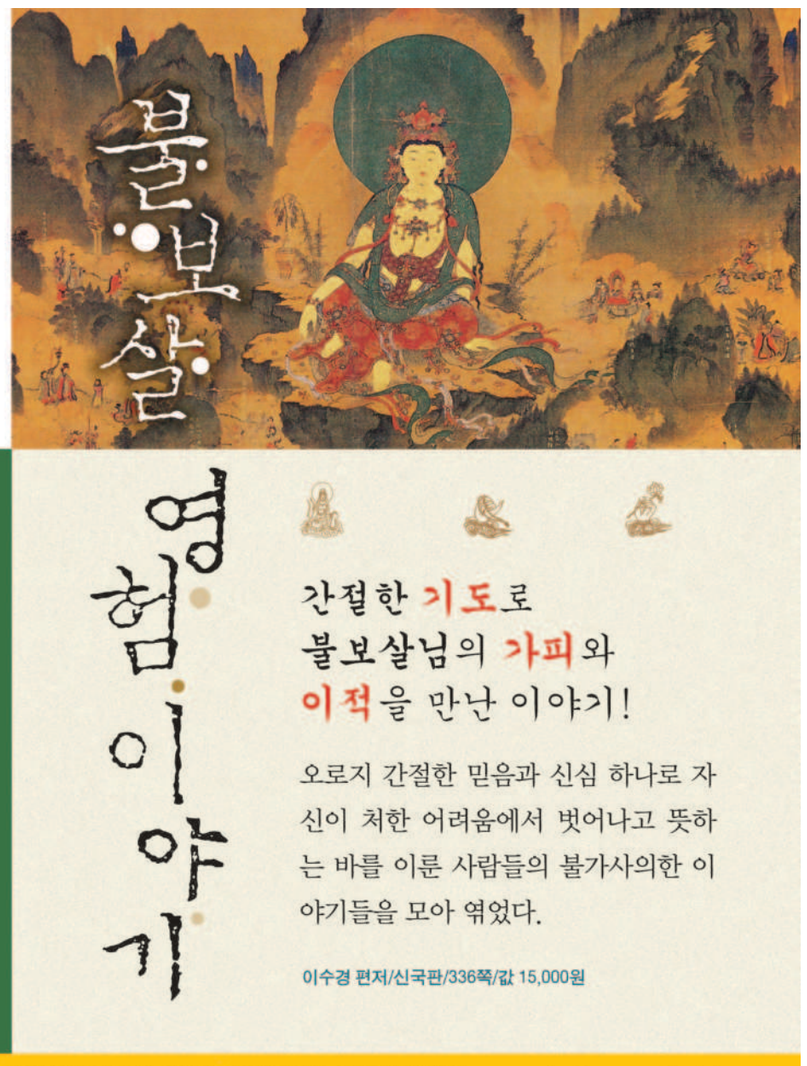
지눌은 자립적 수행 공동체로서 결사운동을 추동한 대표자였고, 간화선 수행을 선양한 선승이면서도 선교겸수의 전통을 바로 세운 이였다. 조선시대 불교의 특징인 간화선을 우위에 둔 선교겸수의 풍토는 바로 지눌의 수행체계에서 연원하였다.

요세 또한 백련결사를 조직하여 결사운동이 고려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천태의 입장에서 교학과 관행의 실천을 함께 추구하였으며 정토신앙을 포섭하여 불교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이는 거시적 차원에서 선과 교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선교겸수의 전통이 이 시기에 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선과 교의 공존과 융합, 공동체 결사를 통한 수행과 신앙의 일상적 실천은 불교적 가르침의 본원으로 돌아가려는 일종의 신불교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때의 유산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오랜 전통으로 내면화되어 이어졌다. 이 점에서 지눌과 요세는 법고창신의 정신을 통해 시대를 개척하고 전통을 디자인한 선구자들이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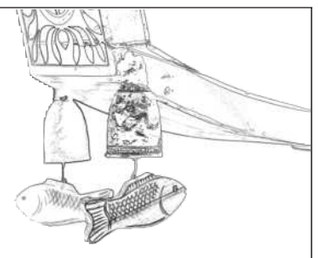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몸과 입과 뜻으로 행하는 것 중 계행과 보시만이 가장 높거늘 너희는 무엇을 뜻하고 생각했기에 착한 일을 하지 않느냐.

- 불설분별선악소기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
천도재,사십구재(호적,
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길명상

(학인 및 수련생 모집)
- 쉽고 알차게 배우는 경전공부
- 기(氣),명상수련
(우울증,케어중심)
대구시 아양교 근교 / 팔공산 용수동
010-7200-0108
010-7199-0118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미륵불 (대형)

석가모니 불상
알림
010-4630-8005

인 연 명 리

삶은 인연생, 인연멸입니다!
· 영가 찾고 보는 법 / 매화역수, 속성반 모집
· 명리기초반 (10월 개강)
· 명리 통변반 (현재 강의 중)
* 지금 내앞에 있는 인연이 가장 소중합니다!!
정인스님 010-4047-0134
(서울 광진구)

불교무용 특별지도

바라춤,극락무,나비춤,
살풀이,법고,승무 등
30년 경험 선생 직접지도
수강료 : 십만원/월(선착순)
010-3711-5072
부산 서면역 부근 반야선원

문하생 모집

서예,문인화,선묵화
- 대상 : 스님,학생 (회비없음,무료지도)
- 강사 : 정선스님(박용국)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수상, 개인전5회,대구길상사 주지
- 주소 : 대구중구대봉2동 744-21
- 문의 : 삼소정 서예문인화연구원
대구 향교앞 010-6797-3223

여법하게 염불하실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안양, 50대)
031-471-667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63세이하)
010-3499-37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광주시)
010-8961-5498

60대 불심깊은 독신자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9571-6559

비구니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579-6444
051-722-0449

스님을 모십니다

(40-50대)
010-4946-6662

49재, 천도재, 점안식

영혼천도를 잘하는 스님
이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작법무,회심곡,살풀이)
최고의 의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010-5482-2091

수준이 높은 기도법

-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서울도심 포교원)
010-3618-606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전문사찰
화 엄 선 원
타로 무료 수강생 모집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 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 인 연 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수행도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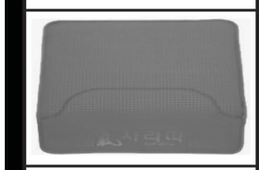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 (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늘 진실과 자비의 마음이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극락이라.
- 화엄경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2,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1,650평
- 가액 : 10억 5천인수(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사찰
- 임야, 토지 5,000㎡
- 목조법당, 목조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등
- 산속사찰임, 조용함
- 가액 : 10억(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3천만원

054-283-6293
010-4606-7253

사 찰 안 내
- 위치:대전시 중구(대사동) 충무로 74번길 54
- 보문 5거리에서 100미터, 대전역(택시) 10분거리 보문산에서 50M
- 대지 70평
- 건물 1층 35평 요사채, 2층 25평 법당
- 삼존불, 인등, 산신, 칠성, 신중 탱화
- 가액 : 3억 3천만원

010-8701-960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부근
- 대지 324평, 법당 34평
- 삼성각 6평(목조)
- 요사채 1, 2층 100평(목조)
- 사용할 수 있는 땅 1,200평
- 가액 : 20억

010-4069-7723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경기
◎ 대지:170평 ◎ 종교용지:1300평
◎ 법당:60평 ◎ 법당:50평, 요사:100평
◎ 요사:100평 ◎ 차량진입
◎ 양도:20억원 ◎ 양도:1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법인 사찰 양도
* 목조법당, 목조요사채, 방사건물 등
* 안정된 도심지 사찰, 토지 1,200㎡
* 양도가 : 5억원(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송추계곡 근방
- 2층 건물 중 2층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백만원
- 시설비 : 추후 결정

010-8725-3196

사 찰 안 내
60년 전통의 경기인근 충북의 사설사암 비영리단체등록 수행도량
- 서울에서 1시간거리의 조용한 복숭아 과수원의 전원마을
- 종교용지~720평 (별도 국유지100평 점유사용)
- 대웅전~ 56평의 전통 3포양식의 닷집 단청 삼성각.종 각 5층 석탑.관세음 보살 석상 다보탑.석가탑.석등.포대화상. 요사채 2동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 320 (다음 지도검색 에서 로드뷰 로 확인 하시길)
- 가액: 8억 5천 만원

010-6372-8968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지하철 역세권 도보 3분거리
- 교통 주차좋음 125평, 1, 2층 슬라브 3층 조립식
- 가액 : 2억 7천 (대출 1억 2천 승계가능) 안고 실구입 1억 5천만 (협의후 절충해 드림)

010-9150-8633

아담한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왜관 시내에서 7분 거리
- 지목 : 대지 75평, 전 85평
- 전체 160평
- 마당까지 차진입
- 법당,방3칸,큰거실,화장실2개 산신각3평
- 한꺼번에 50명 대중공양 가능
- 가액 : 7천만원

010-4503-3503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논산시
- 목조법당 42㎡, 목조 공양간 40㎡, 스님실 8㎡ 요사 50㎡, 토지 400㎡
- 논산 IC 부근 마을 주변 조용하고 깨끗함
- 가액 : 1억 2천만원 (3천 4백만원 융자있음)

010-9918-7937

사 찰 안 내
- 유동인구 많은 안산시내 위치좋은 역세권 큰길 대로변, 전철, 농수산물시장 10분거리
- 4층 전체(엘리베이터, 옥상포함), 실평수 60평
- 법당, 요사채, 상담실, 주방, 욕실, 다용도 주거겸용 쾌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90만원 시설비 2,800(가격절충 가능)
- 절살림 준비 잘되어있어 바로 여법하게 법회가능
- 단골 신도 포교하기 유리한 최적지

010-5913-7239 일연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2-297-3379
010-4576-2281

사찰 및 요양원 안내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요양지

- 사찰 -
- 위치: 경남 밀양
- 2층: 법당 3존불(25평) 1층: 칠보관음궁전 천불상(30평)
- 요사채 45평. 큰방 3개 황토방 1개

- 명당터 -
- 1층 90평, 2층 90평
- 입소정원 25명, 현원 24명
- ※요양원만 분리 양도 가능

- 총 대지면적 약 900평 / • 가액: 21억

010-9567-081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3층 건물중 2층, 같은 3층(60평)
- 종무실 1, 방 2, 화장실 2, 욕실 1, 후원(상태 깨끗합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99만원 (관리비 없음) 시설비 3천만원 즉시 법회가능

02)993-0399
010-5205-0118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천장산로 13길 82(안기부 후문)
- 내용 : 법당, 야외법당, 방4개, 주방, 옥탑방, 반지하방 등
- 동불 : 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특수 금 탱화 신중특수탱화, 불구, 비품일체, (총 150평) (즉시 개원양호)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세(년간 3백만원, 시설비 : 3천 5백만원

010-3329-1131
꼭하실분만 연락주세요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아미타, 지장, 관음, 삼존불, 소불, 인등, 연등, 후불탱화
- 집기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일부 보시함 약 40평
- 가액 : 시설비 5백만원, 절충가능 전세금 삼백만원에 월세 오십만원 좋은 인연 만나길 바랍니다 명리, 철학 호 조건

010-4609-437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010-2384-0327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포교원 안내
- 위치: 대전시내 2층 건물 중 2층 60평
- 아미타, 관음, 대세지, 지장 보살
-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큰법당, 스님방,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관음인등 100불, 영가인등 100위, 산신인등 50불, 호신불 72불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30만원 법당 시설물 2,500만원
- 인연닿는 스님께 조건에 맞게 절충가능

010-6278-1488

사찰 싸게(급)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계성면 화왕산로 (화왕산 군립공원입구) IC에서 8분
- 목조단청, 전통토기와, 대웅전25평, 부지532평(종교부지,3필지)
- 요사채(50평) 칠성각,산신각,석탑, 심야보일러,창고,텃밭 경작
- 산밑에 도로인접(뒷산, 소나무울창)150m 암반수및상수도
- 양도금액 : 3억5천(7천융자포함)꼭하실분만 연락바람

연락처 : 010-3149-4478
(스님건강상 010-8664-8259)

사 찰 안 내
- 위치:전북 익산시 논산 훈련소 부근 (주변 조용하고 깨끗함)
- 부지면적 총880㎡(226평)
- 지목별-종교용지:179㎡(54평)
- 대지:701㎡(212평)
- 건물별-사찰1층 69.34㎡(21평) 요사 74.9㎡(23평)
- 가액: 1억 7천만원 (5천만원 융자있음)

010-6334-025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대창면
- 사찰 200 평, 임법당 1동 황토방 1동
- 가액 : 7천 5백만원

010-3595-9856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문막 IC에서 5분거리
- 평수290평, 대지200평, 전90평
- 법당: 통나무로된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다실 4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5천 (원주시내 10분거리)

010-9070-938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산 갓바위 부근
- 법당, 요사 약 70평
- 텃밭 약 130평
- 가액 : 보증금 2,3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8514-5569
*시설완비,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통화가능시간 오전 9시이전 (법회관계) 오후 2시 이후

건물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 5층 건물 3,4,5층은 포교원
- 지하1층, 지상 1, 2층은 임대
- 가액 : 32억(절충)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010-8988-3418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동대구역 동대구 시장부근
- 대로변, 교통요지, 철학 및 포교의 최상위치
- 평수 60평, 4층 건물의 4층
- 법당 큰방1, 친견실1, 거실, 주방 화장실2
- 시설 올수리, 난방 도시가스 사용
- 법당 집기류 에어콘 냉장고 등 가정살림 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250만원

053-943-5959

대형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시지 지하철 신매역1번 출구 1분거리
- 8층 건물 5층 120평, 보증금 : 5000만원 월세: 310만원, 관리비 : 50만원
- 남향이라 환하고 겨울 따뜻
- 큰법당 +큰방+종무실+종무실 방+ 주지실+기도실+탈의실2+주방 (전체 강화마루+보일러+방음벽+이중창 시공으로 조용)
- 불교대학, 선방, 명상요가수련원으로 적합 주말 주변 주차 대량 가능
- 인테리어 1억 이상 완벽한 시설 일체 보시 (청도에 대형 템플스테이 불사 완료한 복 많은 포교원임)

010-3487-003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 관음전, 종각
- 요사채, 방 총 13칸, 공양간, 창고, 차고 외 부하장실 등등 건물 총 13동
- 대형버스주차장,소형차주차장 등
- 가액 : 3억 9천만원

010-4628-5699
스님 건강 문제로

사찰 구합니다
- 위치: 경기, 천안 권
- 창건주 승계도 가능함
- 부동산 중매인 사절

010-4415-078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시내버스 승강장, 시장입구
- 장소최적 약 28평(실 20평)
- 3층 중 2층
- 삼존불 소불 108불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천 1백 만원

010-4880-1533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 평수: 약 70평(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65만원
- 시설비 1,500-4,500만원
- 급 양도 : 스님 불사 이전 관계

010-4095-57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군 소재지에서 7분거리
- 대웅전(기와단청), 요사채, 노천불
- 남향, 따뜻하고 시원한곳 작지만 아름다운 사찰
- 비구니 스님, 기도 정진하기 좋은곳
- 대지 1,455㎡
- 가액 : 2억 2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 -13-1645(이찬수)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3-2233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20분거리 전남곡성, 옥과IC 5㎞, 초중고, 대학교
- 종교부지 650평, 산 1만2천평
- 기암괴석, 사자앙천혈, 안산매봉
- 조립식건물 3동, 3존불 봉안 소나무속 암자, 노천약사석불,
- 血사리봉안, 선원, 별장가함
- 가액 : 3억5천(답사후절충가)

010-8224-1688

포교원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2대가능, 터는도깨비터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2개월동안 깨끗이 수리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놓여 있음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11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4646-36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군 소재지에서 7분거리
- 대웅전 25평,요사채 35평 삼신각 6평
- 고래불, 대진해수욕장 사찰에서 10분이내
- 상주고속도로12월개통예정
- 가액 : 2억8천만원 (새마을금고 3천 5백)

010-4747-316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군위군 읍 하곡리
- 대지 300평,건평 100평
- 법당25평
- 요사채(삼성각,공양간) 총120평
- 천하명당자리
- 가액 5억

010-4519-0363
010-8181-06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7분거리
- 평수 80평, 2층 건물
- 2층 대웅전 15평 1층 요사채 공양간 창고 1동 법당 뒤(산)
- 앞 냇가, 시내버스 교통 좋음
- 대출 4천안고 1억 2천 5백만원

010-8794-1257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시 중구
- 한옥 독채, 토굴 세놓음
- 인법당(후불탱화,신중탱화, 법당종, 인등, 관세음보살, 앰프 시설)
- 마당에 산신, 용신, 2자반, 창고 2개
- 보증금 500만원, 월세35만 시설, 비품대 1200만원

010-4056-5677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5억5천만원 (대출 2억5천 안고 양도금액 3억)

010-5019-538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부시장 경남 양산시 중부동 429-7(2층)
- 평수 : 80평
- 대법당 삼존불 탱화
- 실내화장실 3개, 부엌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9945-20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 300평, 밭 450평
- 대웅전 25평,요사채 35평 삼신각 6평
- 고래불, 대진해수욕장 사찰에서 10분이내
- 상주고속도로12월개통예정
- 가액 : 2억8천만원 (새마을금고 3천 5백)

010-4747-316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군위군 읍 하곡리
- 대지 300평,건평 100평
- 법당25평
- 요사채(삼성각,공양간) 총120평
- 천하명당자리
- 가액 5억

010-4519-0363
010-8181-06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7분거리
- 평수 80평, 2층 건물
- 2층 대웅전 15평 1층 요사채 공양간 창고 1동 법당 뒤(산)
- 앞 냇가, 시내버스 교통 좋음
- 대출 4천안고 1억 2천 5백만원

010-8794-125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50평, 2층 방1개 화장실, 주방별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3794-5215

토굴겸 임법당
- 위치 : 경북 김천 단독주택
- 건물 22평, 대지 129평
- 정남향 실제 30평 이상됨
- 방 3개, 주방 1, 욕실 1
- 임법당, 삼존불, 탱화,관음소불 100불
- 마당주차 4대가능, 텃밭조금, 가전집기 일체양도
- 정말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5,500만원, 가격조절 가능

010-4323-3579
본사 소임관계로 급 안내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정신과 전문의)

〈2〉 선정수행 ㊦

선정은 최고의 '번뇌처리' 시스템

선정– 마음이 하나로 모인 상태

마음은 한 번에 한 대상에게 간다. 마음이 한 번에 두 대상에 갈 수는 없다. 마음이 어느 대상에 반복해서 가면 자연적으로 그 대상으로 가는 경향이 생긴다. 그리고 그 대상의 영향을 받는다.

명상은 마음의 이런 속성을 알고 마음을 훈련하는 길이다.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는 대상 대신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대상으로 마음을 가게 하는 것이다. 한 대상에 마음을 모음으로써, 과거의 습성대로 마음이 갔을 때 올 수 있는 영향을 차단한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명상 대상에 마음을 모은다. 그러나 마음은 명상을 하기 전의 습성대로 이것저것으로 향한다. 그러한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다시 명상 대상으로 마음을 돌리는 훈련을 계속한다. 예를 들어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모으는 명상에서,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다가 딴생각이 나면 생각을 중단하고 들숨과 날숨으로 돌아온다. 마음이 미세하게 다른 대상으로 가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명상 대상으로 돌아온다. 마음이 완전히 하나로 모인 상태가 선정이다.

선정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유익한 현상이 일어난다. 첫째, 괴로움이 없고 행복한 상태가 된다. 선정 상태가 되면 괴로움을 가져오는 불건전한 상태가 없어진다. '번뇌' 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다양한 불건전한 상태 가운데 대표적인 5가지 덮개(五蓋), 즉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이 사라진다. 그 결과 자연스레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리고 선정 상태에 들면 뚜렷해지는 선정 5요소가 있다. 나쁜 5가지가 사라지면서 좋은 5가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그리고 집중이다. '일으킨 생각' 은 명상 대상을 향하는 것이다. '지속적 고찰' 은 명상 대상을 계속 향하는 것이다. 희열은 큰 기쁨이다. 행복은 편안한 즐거움이다. 집중은 명상 대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선정은 명상 대상에 딱 집중되어 있으면서 기쁘고 행복한 상태다. 선정은 괴로움이 완전히 없는 열반으로까지 비유된다.

둘째, 선정에 들면 미래에 유익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난다. '미래' 는 이생일 수도 있고 다음 생일 수도 있으며 그 후의 생일 수도 있다. 선정에서는 유익한 자와나(Javana, 속행)가 많이 일어난다. 이를 이해하려면 불교의 아비담마를 공부하거나 수행을 해야 한다.

셋째, 선정에 들면 지혜의 눈이 생긴다. 그래서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지혜의 눈으로 보게 된다. 지혜의 눈이 생기면 선정 인식 과정의 자와나를 볼 수 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궁극 실재인 정신과 물질을 볼 수 있고, 전생도 볼 수 있다.

호흡의 네 가지 단계

나는 지혜의 눈이 생기는 것을 선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로 본다. 붓다는 여러 경전에서 삼매를 닦으면 법(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참고로 선정은 삼매의 한 형태다.

불교 수행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라고 한다. 선정을 닦는 것이 사마타다. 사마타를 통해 선정을 닦아 지혜의 눈을 얻어 그 눈으로 궁극 실재를 보고 궁극 실재의 특성을 아는 위빠사나를 한다. 그래서 사마타를 위빠사나의 토대라고 한다. 선정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훈련이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면 마음이 다른 대상으로 갔을 때 집중의 상태로 돌아와야 한다. 다른 대상을 내려놓고 돌아와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선정은 내려놓는 훈련이다. 마음 훈련이 잘되어 있으면 선정 수행을 할 때 쉽게 선정에 들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생활할 수 있다. 번뇌를 처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우리 속에 구축되어 있는 덕분이다.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하는 장막이 세 개 있다. 첫째는 개인적인 장막으로, 개인이 살아오면서 겪은 일의 영향이 사물을 왜곡해서 보게 한다. 둘째는 문화적인 장막으로, 자신이 태어나서 살아온 환경의 영향을 받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 장애가 생긴다. 문화는 어떤 지역 사람들이 함께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활 태도다. 셋째는 인간 존재가 가진 한계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며 편하게 잘살기를 원한다. 자기 몸과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한계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이 세 가지 장막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러려면 선정을 통해 지혜의 눈을 떠야 한다.

아나빠나사띠는 들숨날숨에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이다. 수행법은 〈대념처경〉이나 〈아나빠나사띠경〉에 나와 있다. 붓다는 "길게 숨을 들이쉴 때는 길게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숨을 내쉴 때는 길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짧게 숨을 들이쉴 때는 짧게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숨을 내쉴 때는 짧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호흡의 모든 과정을 알면서 숨을 내쉬려고 노력한다. 미세한 호흡이 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려고 노력하고, 미세한 호흡이 되게 하면서 숨을 내쉬려고 노력한다." 라고 말씀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이것을 호흡의 4단계라고 한다.



한 대상에 마음 모아야 '선정'
번뇌서 벗어난 '열반' 에 비유
사마타로 3가지 장막 벗어나
궁극 실재 보는 위빠사나 수행

이 가운데 첫 두 단계에는 순서가 있지 않다. 그저 어떤 숨이든지 동요되지 않고 편안히 숨을 관찰하면 된다. 숨이 길든지 짧든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없다. 몸이나 마음은 언제나 조건화된 상태 속에 있다. 현재까지의 원인에 따른 결과로서의 현재 상태가 있다. 그 상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숨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같은 숨이 아니다 그 순간까지 조건화된 숨이다. 그렇게 첫 두 단계를 충실히,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호흡의 세 번째 단계인 숨을 하나도 안 놓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가 충분히 되어야 네 번째 단계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미세한 호흡이 나타나는 단계다. 하지만 파욱 사야도는 "네 번째 미세한 호흡의 단계는 미세한 호흡부터 니밋따(Nimitta, 표상), 선정까지를 포함한다." 라고 말했다. 세 번째 단계인 호흡을 하나도 안 놓치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되어 좌선을 하는 동안이나 일상생활에서 호흡을 하나도 안 놓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 번째 단계인 미세한 호흡이 나타난다. 그러면 앉을 때마다 미세한 호흡이 되고 미세한 호흡을 보다 보면 니밋따가 생긴다.

미세한 호흡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 긍정적 측면은 숨을 잘 알아차려서 하나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세한 호흡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부정적 측면은 숨이 미세하긴 하지만 있는데 그것을 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면을 살린다는 것은 동요 없이 미세한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면을 보완하는 것은 미세한 숨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집중력을 올리는 것이다. 미세한 호흡이 코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마음을 모으면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호흡이 다시 감지된다. 그때 호흡이 빛으로 바뀐다. 파욱 사야도는 이 현상을 "숨과 빛의 하나 됨" 이라고 했다. 숨과 빛이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면, 이때의 빛을 니밋따라고 하고 이때부터는 빛이 명상의 대상이 된다. 니밋따가 생기기 전에는, 니밋따만 생기면 선정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바르게 호흡에 집중해서 니밋따가 생겼듯이 니밋따에 바르게 집중해야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 호흡을 보는 것이든 니밋따를 보는 것이든 선정 수행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번뇌가 없는 것이다. 특히 5가지 장애, 즉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그리고 의심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는 명상 대상에 집중을 하는 것이다. 이 둘을 요약 요약하면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집중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를 잘하면 선정에 들 수 있다.

몸 32부분에 대한 마음챙김

계속 호흡이나 니밋따를 보다 보면 자동으로 집중이 되는 상태가 온다. 거기에 이르면 다른 대상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오로지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빼고 다른 의지는 가능하지 않게 된다. 팔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몸이 그대로 고정되고 정신도 니밋따에 고정된다. 뭘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불가능해진다. 니밋따를 향한 집중만 있다. 오로지 한 대상에 집중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른다. 이것이 선정 상태다. 이때 초선정 5요소, 즉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 뚜렷하다. 선정이 확실하면 5자재를 닦는다. 선정에 들어가고자 할 때 들어갈 수 있고, 선정에 머무르고 싶은 만큼 머무를 수 있고, 선정에서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 있고, 의문으로 마음을 향할 수 있고, 선정 요소를 점검하는 데 자유자재한 능력을 배양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안정적인 선정에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선정은 정도에 따라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이 있다.

〈디가 니까야〉 '대념처경' 에서 붓다는 우리 몸이 31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여기에는 뇌가 빠져 있다. 그러나 〈빠띠삼비다막가(무애해도)〉에는 뇌가 포함된 32부분으로 우리 몸이 되어 있다고 쓰여 있고, 주석서인〈청정도론〉에도 32부분이라고 되어 있다. 몸의 32부분에 대한 마음챙김은 몸에 대한 마음챙김의 하나이다. 아나빠나사띠로 선정을 얻고서 초선정에서 이선정, 이선정에서 삼선정, 삼선정에서 사선정으로 이동한 후, 사선정에서 나와 사선정의 선정 요소를 확인한 다음, 의문(意門)에서 지혜의 눈으로 32부분을 하나하나 식별한다. 예를 들어 머리털을 보려고 주의를 기울이면 머리털을 볼 수 있다. 심장을 보려고 주의를 기울이면 심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32부분을 하나하나 본다. 그러고 나서 32부분을 한 번에 본다. 몸의 32부분에 대한 마음챙김으로는 초선정에만 들 수 있다. 몸의 32부분에 대한 마음챙김은 다른 선정 수행과 관계가 있다. 까시나 수행과도 관계가 있고 4대 수행과도 연관이 있다.

까시나 수행은 무색계 선정과 신통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무색계 선정인 공무변처에 들기 위해서는 까시나의 확장이 필요하다. 신통을 얻기 위해서도 여러 종류의 까시나 선정에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까시나에는 10가지가 있다. 바로 땅 까시나, 물 까시나, 불 까시나, 바람 까시나, 푸른색 까시나, 노란색 까시나, 빨간색 까시나, 흰색 까시나, 빛 까시나, 한정된 허공 까시나다. 나는 까시나 수행을 통해 집중력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아나빠나사띠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다. 까시나 수행에서는 적극적으로 까시나를 마음에 새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주의는 한정되어 있어서 주의가 가는 대상을 뺀 다른 대상은 주목을 받지 못한다. 까시나 수행은 각각의 대상을 가지고 오로지 그 대상만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대상에만 온통 조의를 기울여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대상만 주목받는 새로운 가능성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이다. 초선정부터 사선정까지 선정에 들고 각각의 선정에 대해 5자재를 훈련하는 것은 아나빠나사띠에서와 같다. 그런데 까시나 수행에서는 아나빠나사띠에서와는 달리 무색계 선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 개강일시 : 2015년 11월 16일〈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달전사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상용의식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55)587-8419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사) 대한불교불음원
원장 원명 합장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 선지식
전강 스님 ㊥

스님 성정 빌려 도침지 속 형상 찾네

예술 작품이 만들어 내는 이미지는 다양한 인식과정을 거친다.

먼저 창작가가 의도하는 이미지가 있고 다음으로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다. 두 사람의 생각과 이미지는 서로 다르다. 그것은 사회 통념을 통해 도달하는 인식과 각자 개인의 선천적인 인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마다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작품은 해석의 문제이다. 해석은 비울수록 본질에 가까워진다.

작품에 대한 해석은 폭이 넓을수록 좋다. 그럴 때 보편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감염력도 크다. 좋은 작품의 조건들이다.

전강스님을 그리면서 무엇보다 비중을 두어 고려한 것은 스님의 구도 정신이다.

나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함을 읽었다. 이렇게 맑고 투명하며 바른 분이 곁에 계시다는 것이 긍지가 되었다. 내가 본 옛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왜 전강 스님을 우리시대의 대선사라고 칭송하는지 이해가 갔다. 대선사의 풍모가 전체로 느껴지는 순간 먹을 갈았다.

나는 그때 받은 그 느낌을 글로 정리했다. 그런데 어떤 말이나 글이 덧붙여질수록 본질과는 멀어지는 것 같았다. 생각과 글이 달랐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스님에 대한 느낌만큼은 그대로 젖어들었다. 진심이었다. 나는 그 마음만은 먹빛 속에라도 남겨 기록하고 싶었다. 그래서 붓을 들었다.

전강스님의 형용을 분석해 본다.

스님의 일상은 매우 서민적이고 소탈하다. 법상에 올라 설법할 때나 맨땅에 앉아 사람과 대화 할 때 스님의 눈에서 내뿜는 빛은 다르지 않다.

키는 160cm 정도로 작고 체구는 마른 편이 아니다. 옷맵시는 어떤 권위나 허영도 없다.

얼굴을 중심으로 세밀히 살펴보았다.

먼저 얼굴형은 둥글넓적한 계란형이다. 그래서 넉넉한 인상으로 보이지만 단단하다는 느낌도 동시에 다가온다.

머리는 어느 한 곳 죽은 데가 없다. 머리털은 굵고 숱도 빼곡하다.

이마는 넓고 시원하다.

눈썹은 양쪽 모두 끝 부분의 숱이 적고 약하다. 그러면서 거의 대칭을 이룬다.

눈은 작고 눈 사이가 벌어져 있다. 동공의 아랫부분이 뚜렷하게 노출되어 있어 깊고 그윽하다. 선정에 든 모습이다.

코는 작고 단단하다. 코 망울은 넓지만 끝에 기운이 집중되어 있다. 대신 콧구멍은 뚜렷하게 보인다. 인중은 길고 넓다.

입은 윗입술이 가늘고 길지만 아랫입술은 두텁고 무겁다. 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살아있다.

입에서 턱까지의 길이는 좁고 턱선은 완만하다. 귀는 대칭으로 귓바퀴가 크다.

수염은 코밑과 턱에 발달해 있다. 그래서 항시 푸르고 검은 잿빛이 감돈다.

스님의 얼굴형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턱과 입의 형태와 기울기이다. 균형을 깨고 있다. 정수리로부터 턱의 중앙에까지 선을 내려 그어보면 왼쪽 부위가 발달해 있다. 왜곡이다.

나는 이런 부조화를 보면서 그것의 원인으로 스님의 식습관과 수면 습관을 생각했다.

스님의 진영 그리며 구도정신에 비중둬
왜 스님이 우리시대 대선사인지 이해
풍모가 느껴지는 순간 먹을 갈았다
먹빛 속에라도 남겨 기록하고 싶었다

얼굴 골격의 특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턱이다.

위와 아래의 턱이 똑같이 발달하면 족집게 교합이 이루어져 문제가 없다. 그러나 두 턱에 틈이 있으면 가위교합이 이루어진다. 이때 불균형이 발생한다.

턱의 변화는 대부분 식사와 잠 습관에 의한다.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좌우 어느 한쪽으로 음식물을 씹는다. 음식물을 씹는 사소한 습관이 골격에 영향을 미친다. 씹는 버릇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생 동안 하는 식사의 수를 생각하면 가히 놀라울 정도이다. 씹는 힘은 강력하다. 어금니에는 최대 60킬로그램의 힘이 작용한다. 나쁜 식습관이 장기간 지속되면 머리뼈는 좌우 불균형이 생성된다.

수면자세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긴 시간 잠을 잔다. 이때 옆으로 누운 자세는 얼굴 한쪽에 강한 압력을 가하게 한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얼굴의 골격은 변형된다.

아마 스님의 얼굴에서 턱과 입에 부조화가 발생한 것은 이런 습관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인지했다.



전강 스님 진영. 138×72㎝. 종이에 수묵 채색. 2015.

스님의 얼굴에서 위로부터 내려 코선까지는 거의 좌우대칭에 가깝다. 그러나 인중을 기점으로 입과 턱은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것의 차이는 명암으로 가려져 입체적일 때는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입체를 걷어내고 평면으로 환원시키면 비대칭이 드러난다. 스님의 얼굴에는 특이하게 대칭이 주를 이루지만 하악골을 중심으로는 비대칭이 엄존한다. 이것은 스님의 얼굴에서 신성한 느낌과 동시에 자유로운 정서를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나는 이런 부조화와 왜곡을 바로 잡아 그리려 생각했지만 불균형 또한 스님의 특성으로 보고자 했다. 그래서 스님 모습 그대로 그리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 듯 막 입을 열려고 하는 찰나의 미발 상태가 느껴졌다. 그림 속 인물은 사진 속에서 보는 일체의 그림자를 제거했다. 대신 오악을 기준으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초본이 완성되었다. 그날 작업실에 혜영 스님과 보승스님 그리고 전강스님을 어릴 때 보고 자랐다는 처사가 함께 왔다.

그림을 보고 난 감상은 각자 달랐다.

스님의 말년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생경하다는 느낌, 스님을 뵌 적 없이 초상화로만 보았던 분은 너무 젊다는 느낌, 어릴 때 보아온 사람은 벨벳 모자를 씌워야 스님다운 느낌이 든다는 등 자유롭게 감상평을 했다. 세 사람 모두 전강 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같았다.

나는 그분들이 말한 느낌을 존중한다. 그래서 정밀한 사진을 구해 주거나 아니면 이런 모습을 그려 달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해도 우선은 모실 수요자의 입장을 존중한다.

작업 중인 진영의 이미지가 문중 스님들께 전해지고 스님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작업실에는 즉시 회의에서 결정된 초상화 원본이 배달되어 왔다.

발자크는 " 표현된 형상은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마치 광활한 시의 세계와도 같다. 모든 이미지는 하나의 세계다. 그것은 고귀한 비전을 통해 포착되고 내면의 성찰을통해 창조된 후, 최초의 원시적인 표현 수단이었던 천부의 손에 의해 낱낱이 해부 되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초상이다"고 했다.

나는 스님의 성정을 빌려 도침지 속에 감추어 놓은 형상을 찾고 있다. 붓동은 서 있어 낭창낭창하지만 선은 고요하다. 대신 스님의 몸에 눌러 그은 철선묘는 붉게 살아 움직인다.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스님의 진귀론으로
통합 논강을 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1년차)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2년차)

진귀스님의 화엄경 책은 「붓다북」이나
「화엄경강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화엄경은 ?

● 한국 불교 실천수행의 주류는 선 이요, 이 선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이 곧 화엄사상이다.
● 화엄사상의 근간은 선정삼매를 바탕으로 하며
● 화엄경은 세존께서 해인삼매에 드시어 증명하시고 문수보살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각 설주 보살들께서 깨달은 경계를 설한 경전이기에 수행하는 모든이들은 화엄경을 수행나침판으로 삼아야만 부처님의 법맥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자신들의 수행법으로 수행정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불교 수행현실은 세속적 어려움 못지 않게 일부 소수의 수행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수행자들은 각종 수행 고난과 병통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 하고 있다.
● 이러한 오탁악세에 화엄경은 수행자들에겐 감로수와 같음에도 10중 9은 화엄경을 멀리하고 잇고 오래 전 대교과에서 잠깐 본게 전부 다인게 한국 수행자들의 현실이란게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 출가 수행자나 재가 수행자 중, 기 인연되어 화엄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선교쌍수하는 수행자 분들은 혹 원생신으로 이 땅에 오신분이거나 선근공덕이 수승하여 부처님으로 부터 곧 수기를 받을 수행자 일것이다.

괴자진귀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불자 세상보기

획일화된 사관 가진 국가에 미래 없다



서인원
진선여고 수석교사

설마 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2015년 10월 12일을 기해 확정되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바뀐 지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는 1973년 4월 20일 박정희 정부가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발표한 지 42년만의 일이다. 또한 2014년 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에서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이후 1년 8개월 만의 일이다.

교육부는 국정화 추진 논리로 '사실 오류·편향성 수정', '다양성의 확보', '질 관리 체계 구축', '헌법 가치 수호'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행 8종 교과서가 이명박 정부시기에 교육부의 교육과정과 지필 기준대로 서술돼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집필진 의사에 반해 교육부의 명령대로 수정까지 해서 일선 학교에 배포되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 교과서가 오류투성이고 편향성이 있다면 지금까지 교육부가 이를 방조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질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어불성설이다. 지금까지 검정을 맡아온 기구가 국사편찬위원회였으며, 사실상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 연구 및 자료 수집 기관의 성격이지,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기구가 아니다.

한국사 교과서에 국정화에 찬성하는 여당 역시 자기 모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당내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이 2013년 펴낸 정책 보고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고, 특정 정권의 치적을 미화할 수 있다"라고 사실상 국정화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물며, 국정 교과서 집필진의 근현대사 부분에는 역사가뿐만이 아니라 정치사, 경제사 및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분들을 초빙해서 구성하도록 한다는 부분에서는 말을 잃게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과목 교과서에서는 그런 집필진 구성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독 한국사 교과서만은 역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저술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대체 아리송하다.

기존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교과서는 학문적 업적을 바탕으로 보편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술되는 것이 근본이다. 정부나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이념 논쟁으로 몰아 붙여 국정화를 실시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은 다시 1973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불교계의 입장에서도 한국사 및 역사 교과서 저술 시에 늘 생기는 오류 내용과 사실 왜곡 등의 문제에 있어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여러 종의 검정 교과서의 경우에는 오류가 있더라도 다른 교과서와 비교 분석이 가능했으나, 국정 교과서에서는 오류나 사실 왜곡이 생길 경우 검정 교과서와는 달리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모두 한 교과서로만 배우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요청으로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잘 못 배운 학생들에게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화 되던지 검정화 되던지 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역사는 결코 하나의 시각으로만 기술할 수는 없다. 붕당 정치로 정쟁이 무척 심했던 조선 시대의 〈조선왕조실록〉 저술 과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남인이 작성한 〈현종실록〉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 서인은 경신환국으로 다시 권력을 잡고 〈현종개수실록〉을 썼다. 그러나 정쟁이 심했던 이 시기에도 서인들은 후대가 참고하고 판단하라고 원래의 〈현종실록〉은 파기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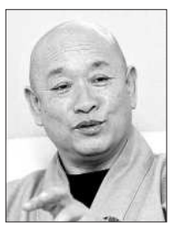
조성들도 저지르지 않았던 역사에 대한 결례를 현 정부에서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한 번 잘못된 교육정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발언대

신임 비구니회 회장에 바란다

전국비구니회는 10월 12일 오후 1시 정기총회를 열고 제11대 회장으로 육문 스님을 선출했다. 육문 스님의 회장 당선으로 그간 전국비구니회의 내홍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부대중에게 신임 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비구니 승가 화합이 최우선



지현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10월 12일 1000여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 진행된 선거에서 공정하고 당당하게 육문 스님이 제11대 전국비구니회 회장에 당선된 것을 축하드린다.

지난해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와 열린비구니모임은 회칙 개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만큼 화합과 이해의 정신으로 서로를 보듬고 비구니 승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문 스님은 비구니 위상 강화를 공약으로 △전국비구니회 임의단체 지위 탈피 △비구니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법령 개정 △비구니 역량 발휘 지원 △비구니 원로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이전에도 비구니 교구(총림) 지정과 중앙종회의석 확대 등의 주장이 꾸준히 있어왔다. 현재 비구니 스님들의 숫자에 비하면 중앙종회의석 등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1994년 개혁 이후 중앙종무기관과 중앙종회, 교구선거인단에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비구니 교구(총림)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미래의 과제로 놓고 종단과 끊임없이 대화해 나갔으면 한다.

비구니회 회칙 개정 우선돼야



본각 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전국 1000여 명의 비구니가 단순히 비구니회장을 뽑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전국비구니회관에 집결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비로소 전국의 비구니스님들이 비구니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1년간의 열린비구니 모임의 공으로 돌리고 싶다.

먼저 전국비구니회의 회칙을 제·개정해서 인맥이나 한 두 사람의 편견이 아니라 회칙에 의해서 공의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전국에 대표성을 가진 비구니스님들이 대거 참여하는 비구니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비구니회에서 공의로 결정된 것이 바로 비구니의 위상을 높이는 행위와 직결될 수 있도록 비구니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

회장 스님은 미래의 비구니승가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기를 바란다. 인맥이 아닌 참신하고 능력 있는 비구니를 등용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일, 출가정신을 고취시켜서 신심 있는 비구니 승가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일, 비구니 출가자 부족 문제는 세계를 대상으로 출가자를 모집하여 한국의 아름다운 비구니승가를 세계에 전하고, 동시에 세계 비구니승가에 기여하는 보다 큰 사업을 시작해주시길 요청한다.

비구니 위상 혁신 기대한다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

신임 비구니 회장 육문 스님, 거룩한 부처님 전에 청정한 믿음의 신뢰 가득한 스님, 절대적인 힘을 실은 전국비구니 회장으로 우뚝 일어선 스님께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은 축하의 메시지와 지지를 보낸다.

이미 한국 비구니 스님들은 질적, 양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비구니 스님들이 교육, 포교, 복지, 사회 실천 등 각 분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결과물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국비구니회나 교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컸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오랜 침묵을 깨고 열린비구니회가 발족된 이후 전국 비구니회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염원을 모아 그 집중된 힘으로 이번 선거를 원만하게 회향하게 됐다. 우리 우바이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전국비구니회의 변화를 기뻐하고 있다.

부디 승가의 이부중으로서 비구니 승가의 당당한 모습을 기원한다.

社說

화합의 비구니 승가로 이끌길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에 육문 스님(군위 법주사 주지)이 당선됐다. 10월 12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선거에서는 육문 스님이 923표로 압도적 지지를 얻어 제11대 전국비구니회 회장에 이름을 올렸다.

육문 스님의 당선으로 전국비구니회를 둘러싸고 이뤄졌던 1년여 간의 내홍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육문 스님은 변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육문 스님이 제시한 공약은 △일하는 전국비구니회 △비구니 승단의 위상과 권익 향상 △비구니 스님의 노후복지 증진 △비구니승가 인재 육성에 기여 △청정한 수행자의 자세로 승가 화합 등의 5대 지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비구니회의 회칙 개정이다. "임의적이고 애매한 회칙 조항을 명쾌하게 개정해 운영위원 구성이나 종회의원 선출과 자격요건 등 조직 구성과 운영 전반에 합리성을 더하겠다"는 게 육문 스님의 공약 사항이다.

또한 집행부 조직 개편을 비롯해 대중 여론을 반영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비구니회 재정 증대, 비구니회관 효율적 활용 방안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전국비구니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비구니회 임의단체 지위 탈피 △비구니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법령 개정 △비구니 역량 발휘 지원 △비구니 원로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구니 스님이 노후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권역별 비구니 노후 수행도량 설치 △지회별 전담 의료기관 지정 △비구니 스님을 위한 다비장 건립 등을 세부 공약으로 내놨다.

전국비구니회의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화합이다. 지난해 비구니 승가는 내부 갈등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새로운 회장 체재가 출범한 만큼 갈등을 정리하고 미래를 위한 화합의 길에 나서야 한다. 신임 회장 육문 스님도 '화합 승가'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학인 역량 이끌 경연대회 확대돼야

학인 스님들의 외국어 실력에 놀라고 회색 장삼에 숨겨진 끼에 다시 한번 놀랐다. 조계종 교육원이 10월 14일 개최한 '제1회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 현장을 접하고 나섰다.

경쾌한 비트박스와 함께 랩을 구사하고, 네덜란드에서 안무 연출을 전공한 학인 스님을 주도로 27명의 학인 스님들이 일사분란하게 마임을 하고 합창을 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는 기본적인 실력이다.

이 같은 학인 스님들의 재기 넘치는 모습은 지난해 처음 열린 염불 경연대회에서도 보여줬다. 특히 창작 염불 분야에서 젊은이들 취향의 현대적인 접근이 이뤄졌다. 실제 〈반야심경〉을 랩 형식으로 염불한 스님은 해외 뉴스에서도 소개되기도 했다.

2030세대는 기본적으로 종교에 관심이 없다. 올해 갤럽 조사에서도 종교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특히 불교 인구 감소의 예후는 좋지 않다. 불교의 경우 2030세대 비율이 10% 내외, 5060세대가 30% 이상으로 연령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3040세대 경우 불교 인구는 지난 30년간 6%이상 감소했다. 고령화 추세에 2030세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불교는 향후 종교인구 확장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젊은 세대에 대한 포교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같은 경연대회는 학인 스님들의 실력을 탁마하는 교육의 기회이자 새로운 포교 콘텐츠 발굴의 장이기도 하다. 이번 외국어 스피치 대회에서도 108배와 명상, 미고사(ITI,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를 재미있게 엮어낸 'H3 비타민' 강연 등 포교 콘텐츠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학인 스님들의 젊은 에너지는 미래 한국불교를 변화시킬 원동력이다. 이를 쏟아낼 수 있는 확대된 경연대회가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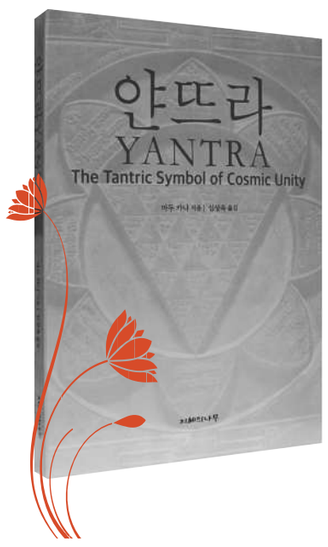
마음의 정원
{ 랄랄라 진관사 }



· 구수하고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가 빵빵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세계일보〉
· 진관사의 역사와 전설, 아름다운 경내, 소박한 절밥 전통 등을 총망라한 책이다. 〈미디어붓다〉
· 비구니 스님들의 새벽 예불, 소박한 전통이 남아 있는 사찰 음식, 아름다운 건물과 자연환경 등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냈다. 〈연합뉴스〉
· 최근 출간된 '랄랄라 진관사'(클리어마인드)는 도심 사찰도 아니고 산사도 아닌 진관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조선일보〉
· 많은 이들이 꿈에 그리는 절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책을 내는 일을 복으로 받아들였다. (중략) '절집 이야기 시리즈' 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첫번째가 진관사다. 〈불교포커스〉

절집 이야기 1
마당을 거닐거나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절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 클리어마인드〈절집이야기〉시리즈는 이런 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찬익·수경 지음 / 클리어마인드 / 값 15,000원 전화 (02) 2198-5151 / 팩스 (02) 2198-5153 / 이메일 gobs108@hanmail.net



지혜를 들여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얀뜨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 얀뜨라
얀뜨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이 책은 얀뜨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다. 170장 이상의 흑백과 컬러 얀뜨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로 회귀하기 위한 영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으로 얀뜨라의 역동적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얀뜨라는 전통적 사원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만뜨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흑주술과 백주술 전통 모두에 사용되는 얀뜨라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서 힘을 가지는 얀뜨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가격 : 19,800원 | 마두 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수능엄경 (首楞嚴經)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 중 20,000원 / 하 27,000원 | 세트 전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

열 손가락으로 부처님 법음을…

〈수화〉

도원 스님 (부산 여래사 주지)



도원 스님은 … 1951년에 태어나 보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013년 위덕대 불교문화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위덕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2014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고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1997년 조계종 포교원장 포교상, 2010년 4월 20일 부산시장 표창상, 2010년 10월 5일 장애인 총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현재 부산 해운대서 여래사 포교원 주지를 맡고 있으며, 매달 청각 장애인을 위한 법회를 봉행 중이다. 사진은 연꽃을 수화로 표현하고 있는 도원 스님.

법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던 한 노 보살이 눈에 들어왔다. "법회가 곧 시작하니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는 한 스님을 노 보살은 쳐다보지 않았다. 스님은 재차 불렀지만 이 보살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스님이 왜 반응이 없을까 싶어 어깨를 살짝 건드리자 노 보살은 작은 수첩을 꺼내 들며 적어 내려갔다.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법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스님은 순간 멍해졌다. 평소 청각장애인과 잦은 만남이 있었던 스님이지만 사찰에서 청각 장애인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스님의 생각은 왜 그동안 사찰에서 청각장애인들을 만나지 못했을까로 뻗었다. 이 보살이 말한 '법문을 들을 수 없다'는 것에 집중했다. 이 작은 인연 이후 이 스님은 22년간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법에 나서게 된다.

이 스님은 해운대 여래사 주지 도원 스님(64)의 이야기다.

도원 스님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법회와 쌀나눔 및 장학금 전달, 장애인 학생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련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운대 여래사 포교원에서 10월 12일 스님을 만나 스님의 일생에 대해 들었다.

열악한 장애인 포교 현실에 발심

도원 스님은 22년 전 위의 노 보살과의 만남 이후 수화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화엄법계사 불교문화대학(舊 부산불교 교육원)의 불교 수화반에 1기로 들어갔다. 그리고 농아인협회에 가입하고 날마다 청각장애인들을 만나 연습했다. 또 이미 청각장애인을 위한 설교를 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교회를 5년 동안 다니며 그 노하우를 배우기도 했다.

"전국에 수화를 활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수화는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매일 마다 연습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에게 법문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곳을 찾을 필요가 있었지요. 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먼저 법회를 열었습니다."

스님은 수화를 완벽히 익히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하루라도 빨리 부처님을 법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법당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사찰을 돌아다니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회를 열때마다 적게는 50여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이 법당을 가득 채웠다.

"부산에 각 사찰의 스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동래 자비암, 범어사 내원암 등 사찰을 돌면서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해운대에 여래사 포교당을 개원했습니다."

스님의 포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됐다. 한번도 진행된 적 없었던 청각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여는가 하면 수련회 캠프를 열고 발우공양 및 산사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왔다. 스님은 쌀 나눔과 장학금 전달도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이밖에 환경이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자잘한 고충을 해결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번은 법당에 나오던 장애우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돼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이라 통역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구요. 이처럼 청각장애인은 삶 속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스님은 교통사고를 당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스님은 최근에는 핸드폰과 같은 IT기술이 발달해 예전보다는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장애인들을 위해 해외불교문화 탐방 가이드도 자처하는 한편, 사경을 통한 한글교육 등으로 삶의 중심을 잡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수화는 지화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한글의 자음 모음을 엮어 글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런 지화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이라는 사실 만으로 집안에서 천대받고, 교육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글자 한글자 쓰며 지화로 외우게 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지화를 가르친 결과 가족들이 더 반가워 했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에게 법문 통역 22년
법회 · 수련대회 등 포교 진행
장애인복지기관 건립의 서원 세워
100만배 및 다라니 천일기도 회향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법회 도입

도원 스님의 법회 통역의 특징은 '쉬운 언어 사용하기'다. 스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통역은 또 하나의 언어 장벽이 될 뿐이라고 강조한다.

"청각장애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불교 통역에 있어서 한자로 되어 있는 어려운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통역을 해도 법문의 30%정도 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님은 해박한 불교지식과 그 순간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선택해 어려운 고승대덕 스님의 법문을 거뜬히 풀어낸다.

"수화는 손 뿐만이 아니라 얼굴 표정으로도 많은 감정과 뜻을 전달합니다. 이 때문에 오해를 살때도 있습니다. 법회에서 스님이 서서 얼굴을 찡그리고 웃고 손을 막 움직여대니 말이죠. 하지만 이런 오해보다 장애인들에게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법회는 통역만이 문제가 아니다. 절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전달할 방법이 모호했다. 스님은 북을 사용한다고 했다.

"음의 파장을 이용하기 위해 북을 이용합니다.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파장은 미세한 흔들림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청법가나 찬불가는 모두 수화로 그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스님이 장애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스님은 법회 때마다 '보시 바라밀'을 설한다고 했다.

"수많은 장애인들은 대부분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어디 법당이나 교회에서 무엇을 나눠준다고 하면 100명이 넘게 모이곤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받지 않아도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역으로 보시바라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장애인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강조한 지 5년이 지나자 이제는 법당을 찾아오는 장애인 불자들이 늘고 있다.

"처음에는 마치 썰물처럼 빠져 나가더군요. 이런 처지에 누구를 도우라는 것이냐는 것 마냥요. 하지만 보시의 중요성을 계속 설명해주니 삶이 변화하는 이들이 늘은 모양입니다. 처음에 기복에만 매달리던 이들이 법당을 찾으며 수복(修福)의 단계를 그리고 작복(作福)의 단계로 올라서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삶의 회의가 출가로 이어져

스님은 출가 당시의 시절을 돌이켜 보며 수많은 역경이 자신을 출가로 이끌었으니 감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스님은 먼저 어릴적 할머니의 깊은 신심으로 불자가 됐다고 말했다.

"할머님이 돌아가 실 때도 손에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신심이 크신 할머니와 함께 초파일이 되면 등을 달고 밤새 등 아래에서 기도를 올렸죠. 할머니께서는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 인연으로 저도 관음기도를 자주 합니다."

남달랐던 불교의 인연을 시작으로 스님은 어릴 적부터 출가의 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명이 짧다는 말과 함께 출가를 해야 한다는 말을 절에서 여러 차례 듣기도 했습니다. 장성해서 자수성가를 꿈꾸며 섬유계통 사업을 벌였는데 불이 세 번 나고, 수해를 한번 겪으며 좌절할 수 밖에 없었죠."

스님은 "발명특허를 받은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 재난만 없었으면 탄탄한 성공대로를 달렸을 것이지만 구가 불을 낸다고 해도 그렇게 자주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때 당시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일어서려 해도 의지가 생기지 않았죠. 출가를 한 후 제 길을 찾았다 싶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며 그들을 위한 귀가 되어라는 부처님의 이끄심이라 지금은 생각합니다."

복지관 및 수행도량 불사원력 세워

도원 스님은 2012년부터 시작한 100만배 및 대다라니 108독송 천일기도를 8월 19일 회향 했다.

기도에 동참했던 한 여래사 신도는 스님의 가사를 보여줬다. 모두 무릎 부분이 낡아 구멍이 나고 너덜했다. 스님은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장애인들을 잘

법당조성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일생동안 불교수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만행도 많이 하여 법보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행을 하고 법보시도 합니다.
법당을 조성하여 불자님들의 가정에 행복하고 가문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은 태아영가, 조상영가천도와 기도를 해드립니다.
상담도 하시고 후원도 해주세요.
후언해 주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후원도 좋고 훌륭한 분 추천도 환영합니다.

창업, 개업을 하실 분 상호, 좋은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홍증 ☎ 02)739-5008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자녀 교육문제, 대학 입시기도
- 사업성공, 가족갈등
- 변비, 지방간, 당뇨, 비만, 알콜중독, 특별기도와 지도함

가정 및 회사 방문하여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010-6789-5008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장애우 복지는 원력 불사"



2013년 위덕대서 열린 불교학도의 날에서 수화공연을 하는 도원 스님(사진 왼쪽서 두 번째)


2014년 초파일 봉축법회에서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법회를 여는 모습.


청각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산사문화제 및 템플스테이가 끝난뒤 기념 촬영 모습.


청각장애인 템플스테이서 도원 스님이 자원봉사자들과 활짝 웃고 있다.

보듬을 수 있는 복지 시설과 수행도량의 불사를 위해서라고 했다.

스님은 한 여름에는 선풍기도 없이 절을 했다. 땀이 흘러 가사가 흥건하게 되어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찢어지고 헤어진 가사는 온통 구멍투성이다.

"원을 세우고 기도를 시작하고 30만배를 할 때 였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프더군요. 하지만 아픈 것보다는 번뇌와의 싸움이 더 힘들었습니다. 법당으로 나가는 거리가 7미터도 안되는데 육신과 번뇌와의 싸움이 반복됐습니다. '왜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법당에 부처님 앞에 서기까지 3시간이 걸리더군요. 마음에 망설임은 내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부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절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매일 천배씩 3년간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이라 했다.

"40만 배를 넘어서고는 불사를 위해 시작한 기도 내용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더군요. 내 마음의 불사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 불사는 그 후이며 내 마음이 바로 잡혀 지길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 내 마음의 불사가 바르게 되고 난 뒤 그 위에 도량 불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깊이 기도했습니다."

스님은 50만배가 지난 후에는 번뇌가 없어졌다고 했다. 오히려 하지 않으면 업을 짓는 거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했다.

스님은 앞으로 복지를 위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싶다고 전했다.

"경제적인 조건을 갖춰야 하겠지만 현재 장애인과 아울러 유치원, 노인요양시설 등 복합적인 복지 사업을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기관을 위해 외적으로는 경제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2014년에 취득했지요.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자격도 갖춰야 믿음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론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했고 좋은 인연과 지혜로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스님은 위덕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문화학을 전공하며 복지에 관해 연구 중이다. 내년이면 졸업을 맞게 되는 스님은 현재 '불교 사회 복지의 현대적 모형 개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준비하며 불교 복지에 대한 이론도 완성했다.

"현대 사회는 몸에서 일어난 장애 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는 정신적 장애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진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위빠사나, 사마타, 참선, 염불 등 다양한 수행은 다각면에서 다양한 사람에게 맞추어 방법도 제시합니다. 전인적인 복지는 바로 몸과 마음을 모두 보살 필 수 있는, 불교만이 줄 수 있는 해답을 의미 합니다."

스님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 했다.

"나이가 많아져서 그만 할 때도 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저는 돌이켜 가만히 보면 저 말고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더군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일을 하냐고... 그 때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라고 대답합니다."

스님은 20여년 전에 만난 노 보살은 법당에 들어올 엄두도 못냈는데 이제는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매 달 법회를 듣고 복을 지으며 살아간다며 이것이 이일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라고 했다.도원 스님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관심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전국에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법회를 여는 곳은 제가 알기로 서울 2곳, 그리고 부산은 이곳 여래사 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부처님 법을 알고 싶어도 기도 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자료화 되어 있는 것도 부족하고 그들을 위해 법문을 통역할 봉사 인재들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도원 스님은 청각장애인들의 현실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그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할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들과 만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타 종교인들과의 만남도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에 비해 불교계는 아직도 열악합니다.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자리를 자주 만들고 싶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발우공양도 가르치고 박물관도 가고 했던 기억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달리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법은 위 아래 그 어느 곳에도 구분 없이 펼쳐져야 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으며 스님은 부처님과 보살 그리고 연꽃을 의미하는 수화를 보여줬다. 스님의 손을 보며 천수천안관세음 보살님의 손이 떠올랐다. 들리지 않는 이들의 소리가 되어 하루에 천개의 손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대자비의 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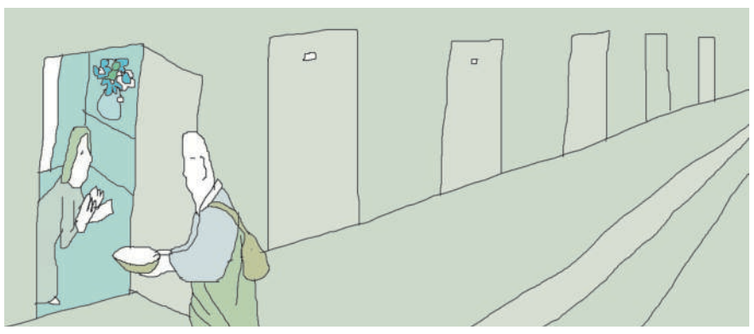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전법일기

탁발하는 수행자

70년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면 마을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치는 풍경이 스님들의 탁발하는 모습이다. 모두들 사는 것 자체가 궁핍하고 먹을 것도 귀했던 시절이다 보니 탁발이라 해봐야 대부분 쌀이나, 보리쌀 같은 잡곡을 한 움큼씩 시주하였던 것 같다.

그런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는데 밖에서 염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스님이 탁발을 나온 것이었다. 나는 당황해하며 "집에 어른들이 아무도 안계십니다!" 하니 스님은 개의치 않고 "어린 시주님 시주 좀 하세요"라고 하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하고 물으니 "돈이나 쌀로 시주를 하면 됩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돈은 없고 쌀로 드릴게요"하니, 스님은 메고 있던 걸망을 펼치며 "여기에 담아주십시오"


그림 · 박구원

하는데 아마도 탁발이 첫 집이었는지 걸망이 텅 비어있었다.

그래서 걸망을 뒤주에 대고 쌀을 퍼 담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걸망 속 깊이가 어디가 끝인지 한참을 퍼 담고서야 걸망을 다 채울 수 있었다. 스님은 쌀이 가득한 걸망을 챙겨서는 "시주님! 공부 잘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뒤주의 쌀은 보기에도 확 줄어들었건만 착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기분은 한껏 뿌듯했다. 외출에서 돌아오신 어머님께서 저녁밥을 하시려고 뒤주를 열다가 깜짝 놀라시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신다. 그래서 이차저차 해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자초지종을 말씀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또다시 염불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염불곡조가 늦여름 석양의 노을을 타고 와서 그런지 더더욱 구성지게 들려왔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머님에게 "시주 좀 하십시오?"하는데 이게 웬 일인가? 낮에 보았던 그 스님이었다. 어머님도 지금은 세상에 안계시고 그때 그 스님도, 나도 세월의 흐름 속에 잊혀져간 한 토막의 일화로 기억되어 있지만 막상 내가 탁발하는 화주승이 되고 보니, 그 시절 그 일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탁발과 관련한 설화를 보면, 부처님 당시 스님들이 늘어나고 수행력이 깊어지는 것에 불안해진 마구니 무리들이 스님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승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을 사람들을 이간질하여 탁발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마구니들의 의도와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궁핍해진 스님들의 수행력은 더욱 수승해지고 승단은 오히려 확장되어 갔다.

이에 고민하던 마구니들이 이번에는 공양물을 넘치게 시주하고, 극진히 대접하도록 술수를 부렸다. 그러자 수행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종단에서도 탁발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길거리에서 탁발할 일도 없어지다 보니 탁발이라는 단어조차 생경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무소유로 일컬어지는 삼의일발의 수행자 정신' 은 탁발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탁발은 불교의 사상을 아우르고 비구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수행법이다. 비구는 범어로 비크슈(bhiksu), 빨리어 비쿠(bhikkhu)를 음사(音寫)한 말로써 걸사, 포마, 파악, 제근, 근사남이라 한다. 이 말을 의역하면 걸사는 위로는 법을 빌고 아래로는 밥을 비는 걸식 수행자란 뜻이다. 기부에 대한 원천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종단의 현실이 안타깝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삼륜이 청정한 불국정토를 위하여 '탁발의 정신' 을 재삼 되새겨 볼 일이다.

부명 스님(백령도 몽운사 주지)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의장등록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돼,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 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사업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선물, 사업성공의 선물로 품격

▶ 가격 :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 문의 : (02)723-4533
▶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사찰 · 스님 20% 할인)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평생부자지갑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얻고 평생부자로 살게!!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에나멜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별도로 옴자로 된 교통카드 꽂이도 있다.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장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23-4533
(사찰 · 스님 20% 할인)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www.kapilla.co.kr ※ 공휴일 접수 가능


앞면 뒷면 의장등록

호신불규격직경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용 호신불

운전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 · 스님 20% 할인)
문의 : (02)723-4533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대행 스님

내 뿌리인 바로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

가르침의 요체가 무엇인지요?

질문 이 길 저 길을 헤매다가 이 마음법이야말로 최상승의 공부이고 개인적인 자아에서 벗어나 일체와 둘 아닌 대장부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큰스님 가르침의 요체가 무엇인지요?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큰스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제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가 공부하고 가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자생 중생들을 제도를 하려면, 거기서 악업도 나오고 선업도 나오고, 잘못하는 일도 나오고 강도짓도 나오고, 선행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작용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하고 믿고 거기다가 다 놓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도 '너만이 네 몸을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갈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몸뚱이 속에서는 내면의 모두가 작용을 해 줍니다.

즉 말하자면 인간이 '내 뿌리인 바로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마음으로부터 대뇌를 통해서 소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결정을 지어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사대로 통신이 되면 사대에서 통신을 받고 다 작용을 해 줍니다. 안에서는 그렇게 작용을 해 주고 또 바깥으로는 세포의 생명들이 화해서, 이 지구에서 레이더망으로 역할을 하는 거와 같이 혹성과 같은 내 몸의 모든 세포에서 작용을 해 줍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의식들이 전부 나가서 마음을 조정하고, 들고 남이 없이 들고 나면서 내 가정을 조절하고 또 사회를 잘 조절합니다.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바깥에서 세균성이 들어오는 것도 막습니다. 이것도 내 마음에서 벌써 입력을 해 놔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내면으로다 입력이 항상 돼야 되는데, 1년을 해 놓든지 2년을 해 놓든지 그건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는 세균성을 막고, 또 들일 건 들이고 내보낼 건 내보내고, 체로 치는 역할을 합니다. 통신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파악해서 들이고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통신하고 조달을 하는 것이 이 세포의 모든 소임이라고 봅니다.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 도리에서 '하나'를 안다면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알고,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안다면 바로 너 나 없이 전체가 같이 돌아간다는 걸 알 겁니다. 이 내면으로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 몸뚱이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들어 있는데 내가 밥 한 그릇을 먹는다면 혼자 먹는 것입니까, 그게? 혼자 듣는 것입니까, 혼자 보는 것입니까? 혼자 하는 것입니까, 혼자 사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혼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했단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몸뚱이 속에 그 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바로 더불어 나인 고로 내가 혼자 나라고 세울 게 하나도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다가 외부적으로도 나를 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만사,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어찌 내가 했다고 하며 내가 잘한다고 하며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내가 한 말이 하나도 없고 내가 생각한 것조차도 없느니라. 나의 고깃덩어리를 믿지 마라. 나를 따르되 나를 믿지 말고, 너부터 믿어서 너부터 알면 바로 과거의 부(父)를 현재의 자(子)가 상봉케 되느니라. 상봉케 된다면 바로 너를 지도할 수 있는 자성 부처가 바로 너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며 서로서로의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면서 점검을 하면서 일체 모든 만물을 보고 깨달을 수 있고…. 병풍 둘러치듯 둘러친 이 세상이 팔만대장경에 속하느니라. 너만 못한 게 하나도 없으며 너만큼 또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느니라." 하셨던 겁니다.

이 모두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 자체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부딪친다는 것을 알고 상대를 탓하지 말고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상대를 증오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마음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저 사람의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나, 저 사람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둘이 아니니 바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나한테 부딪치는 거니까 모든 것을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어야 합니다.

꿈이란 망상이 아닌지

질문 잠들었을 때 꿈을 자주 꾼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꿈을 꾸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이란 망상의 일종일 터인데, 그렇다면 꿈을 안 꾼다는 사람은 잠자는 동안 번뇌망상을 쉬고 순수한 마음자리에 드는 것인지요?

답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소쿠리를 하나 주웠다고 어느 노승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휴, 너는 초대를 받아서 오늘 음식을 잘 먹겠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야비하게, 또 딴 젊은이가 꿈도 꾸지 않았으면서 '내가 또 소쿠리를 하나 얻었다고 해 보자, 어떻게 나오나?' 그러고는 "저도 엊그저께 친구가 꿈꾼 것처럼 꿈속에서 소쿠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그 말씀이 "아휴, 너는 오늘 저녁에 매를 죽도록 맞겠구나." 이랬답니다. 그랬는데 아, 그날 저녁에 정말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그냥 매를 직사하게 맞았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분해서 죽겠거든요. 꿈도 안 꿨는데 왜 이렇게 맞느냐 이거죠, 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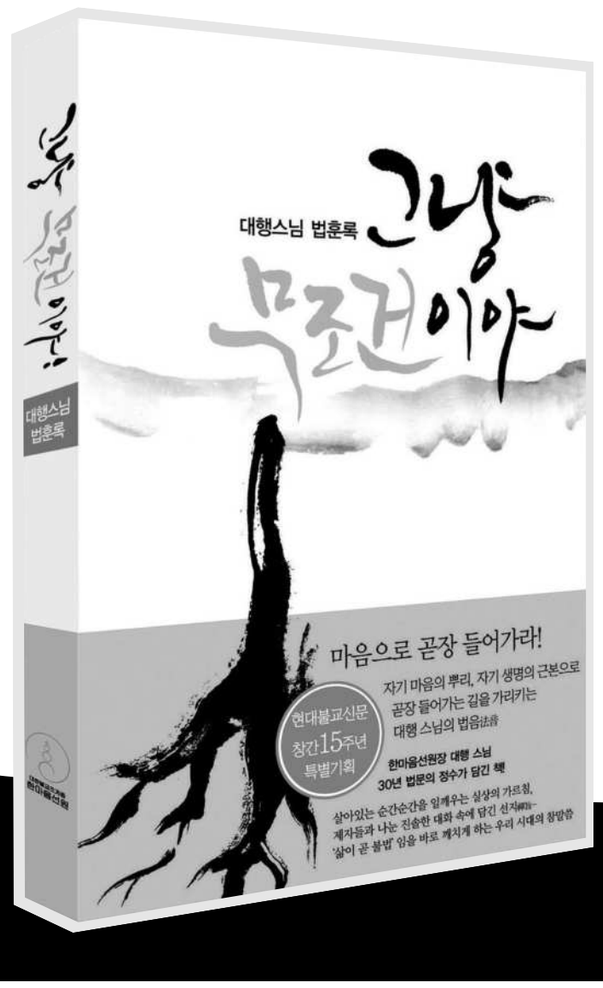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그러고는 가서 항의를 했죠. "나는 꿈도 안 꾸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맞습니까?" "얘야, 네가 그렇게 말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게 꿈이니라. 생시나 꿈이나 다 꿈이니라. 그러니까 생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꿈이니까 꿈을 잘 꿔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야비하게 꿈을 꾸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밤중에 자다가 꿈을 꾼 것도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서 잘 굴리면 아주 흥감하는 수가 있을 텐데, 아주 이건 나쁜 꿈이라고 지적을 해 놓기 때문에 나쁘게 돌아가느니라. 그러니 이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게 다 꿈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니 자도 꿈이요, 생시도 꿈이요, 모두가 꿈으로 돌아가느니라." 이러더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반야심경』의 공(空)에 대해서

질문 『반야심경』에 보면 '빌 공(空)' 자와 '없을 무(無)' 자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공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교 사전에 보면 '진공묘유 진여실상' 등으로 풀이되어 있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니 그대로 그냥 비었다!

☞ 29면에서 계속

습니다. 큰스님께서 풀이하신 『뜻으로 푼 반야심경』에는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마음은 모든 물질적 현상과 다르지 않나니' 하여 공을 마음으로 풀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문집에 '모든 것이 다 공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공에다 다 맡겨라.' 하고 자주 거론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가 공이라 하면 용무(用無)를 말하죠, 용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움죽거린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여기가 그대로, 지금 공이라는 자체 그대로입니다.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니 그대로 그냥 비었단 얘깁니다. 얘기해 드렸죠? 한 가정으로 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됐을 때 나라고 하겠느냐,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하겠느냐.' 이랬으니 그거는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없으면서 그대로 용무가 되죠. 그냥 그대로죠. 그래서 아마 여래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여래 속에서 여래의 행동을 하면서, 법이 그냥 그대로 용이면서 무다 이겁니다. 이 모두가 다 그냥 비었습니다. '비었습니다' 이러면 빈 줄로만 알지 마시고 '꽉 찼다' 이러더라도 꽉 찬 줄로만 알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에 에너지가 다 없어진다면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런데 이 허공에 생명들이 꽉 찼느니라." 했습니다. 생명이 꽉 찬 데는 에너지도 꽉 찼단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용무를 그대로 알아서 진실하게 함이 없이 할 줄 안다면 에너지를 얼마든지 끌어 쓸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죄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요! 해골을 놓고도 그 해골과 자기와 둘이 아닐 때 비로소 자기를 아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너, 저기에 묘지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아비 거고 하나는 자식 거니라. 그런데 양쪽에 구멍이 뚫렸느니라. 그런데 아비가 자식한테로 가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고, 자식이 아비한테로 가면 아비로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연고인가?' 하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스물 몇 살인데 말입니다. 알 게 뭡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아, 발이 떼어 놓아져야죠. 그래서 3일을 그냥 그것 때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하!' 이럭하고선 일어났죠.

생각을 해 보세요. 영에다 영을 넣어도 둘이 아니요, 이쪽 영을 이쪽에다 넣어도 둘이 아니요, 만 불을 하나에다 넣어도 둘이 아니요. 이랬으니 어찌 공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이 묘한 법을 말입니다.

부처님이 한 분인 이유

질문 처음 한마음선원에 오게 되면 다른 사찰과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우선 법당부터가 불상 한 분만 모셔져 있고 장엄물이 적습니다. 또 관음재일이니 지장재일이니 하는 기도나 금강경 강의나 다른 경전 강의 하는 것도 못 봤고 오직 한마음 주인공을 관하라고만 하십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만약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가 둘 셋이라면 그거 참 골치 아프겠지요? 어머니가 둘 셋이라도 골치 아픈 일인데 아버지가 둘 셋이라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바로 하나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만사가 하나로 돌아갑니다. 삼천대천세계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하나로 돌아가며 그 하나마저도 공했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내가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내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내면으로도 나 아님이 없고 외부적으로도 나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왜? 보십시오.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데도 직원이 없으면 사장이 없을 것이고 사장이 없으면 직원이 없을 것입니다. 직원과 사장이 어떻게 둘입니까? 네? 이게 없어도 아니 되고 저게 없어도 아니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어도 아니 되고 마음 내는 게 없어도 아니 되고 육신이 없어도 아니 됩니다. 마음 내는 게 없으면 목석이고 생명이 없으면 무효고, 육신이 없으면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또 손가락 하나도 없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아주 쉽게 인식하고 가게 만들려면 아버지 하나면 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면 족하듯이 바로 부처님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수천수만 분이 깨쳤다 하더라도 평등공법 봉, 봉에 같이 모든 마음이 한마음이 돼서 주둔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따로 부처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이 한마음으로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평등하다는 그 뜻으로 바로 여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 한 체 한 체가 여래의 집입니다. 바로 이 속에 있는 모든 자생 중생들이 화하게 되면, 바로 제도가 되면 그 여래 집 안의 여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나 아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깨치면 그냥 여래지요, 여래의 집이고요. 그리고 또 외부로 따진다면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같이 맞물려서 모두가 같이 돌아가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세상을 내다보세요. 하나라도 혼자 살 수 있는 세계인가. 독불장군으로 혼자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북하면 무시무종이라고 했겠습니까.

사람 몸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질문 『대열반경』이라는 책을 보다가 "세간(世間)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 더욱 어려우니, 마치 망망대해 가운데에서 눈 먼 거북이 나무 구멍 만난 것 같구나."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큰스님, 진짜로 사람 몸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요? 그냥 부처님 법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아닌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럼 먼저, 사람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죠. 저도 봤습니다만 어느 사찰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도량에서는 시식을 지내거나 하면, 항상 그 넓은 돌 위에 밥도 덜어다 놓고 과일도 덜어다 놓고 그럽니다. 그럼 그 돌 밑에서 나와서 먹기도 하고 날아와서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꼭 그 생명들을 위해서 갖다가 놓죠.

그런데 큰 구렁이가 돌 밑에서 그걸 받아먹으면서 한 2년 남짓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모두 보면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 찾는 거나 똑같이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나와서 먼 산을 보고 있는데, 그 돌 밑에서 구렁이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스님처럼 저도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거는 도승들이나 듣지 보통 사람은 못 듣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넘기겠느냐?" 그러니까 "죽더라도, 죽더라도 꼭 그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했답니다. 간략하게 그냥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동료…", 즉 말하자면 뱀의 도반이라고 할까요, "… 3백 명을 꼭 교화를 시켜서 이 도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항상, 법당에서 스님이 법을 설하시거나 또는 예불을 올리시거나 할 때 그분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있겠느냐? 셋째는 네가 3년 동안 이슬만 받아먹고 살 수 있겠느냐?" 하셨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한 거라도 하겠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뱀은 주는 것도 그때서부터는 못 먹고, 나와서 항상 이슬만 받아먹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기 동료들을 교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랬죠. 그리고 끄트머리에 가서는 "한 가지 또 있느니라."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장독에 가서 장을 얻어먹을 수 있어야만 된다. 사람이 먹는 장 방울을 얻어먹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항아리를 넘어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다. 장을 뜨러 왔을 때에 떨어지는 방울을 먹어야 마지막에 인간으로 환토할 수 있느니라." 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스님이 말씀하신 거를 새겨 본다면 우리가 노력 안 하고 그 뜻을 배울 수는 없다는 것이니까요. 또 노력하지 않고 차원이 높아질 수도 없고, 노력 안 하고서 내가 스스로 여여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구렁이는 그걸 이겨 냈답니다. 이겨 내서 거길 떠나지 않고 공양주 스님이 간장을 뜨면서 떨어뜨린 거를, 그걸 그냥 기다리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거를 받아먹고, 또 한 번 받아먹고, 또 한 번 받아먹고 세 번을 받아먹는 데 3, 4년이 넘게 걸렸단 얘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은 의지와 깊은 뜻이 거기 서려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렁이는 뼈다귀만 남아 가지고, 너무나 애절하게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벗고 인간으로 환생을 하는데, 그 스님이 인도를 했답니다. 자손 없는 집으로 인도를 했죠. 그거는 부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모두 황당하게 들릴지 몰라도 부처님의 연기법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잘 자라서 어른이 돼서 지금 부지런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 하나 벗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토끼라면 토끼 모습을 벗기가 어렵고, 새라면 새 모습을 벗기가 어렵고, 또 개라면 개 모습 벗기가 어렵고, 소라면 소 모습 벗기가 어려운데, 부처님 경지에 이르러야만이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돼 가지고도 99%는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죠. 육조(六祖) 스님이 오조(五祖) 스님한테 대답하기를 "내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했단 말입니다, 내 불성이.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불성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불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여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두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여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들이고 내고 하는 생활 자체가, 그대로 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는 불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법을 스스로 들이고 내고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마 말로 해서는 실감이 영 안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지만 사람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누구에게나 다 물질과학이 50%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정신과학이라는 걸 거기다 벌충해서 100%를 만들어서 굴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살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고 오래 걸리고 이러는 원인이 정신계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물질계를 다 알아 가지고 이제 정신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기까지 알아야 되니까요. 이게 물질계 속에서 '정신계는 물질계를 리드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빠른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뿌리를 무시하고 그냥 싹이 산다고만 생각을 하고 가니까 이건 50%의 물질계만 알면서 수없는 광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계로 들어서도 또 50% 정신계에서의 수없는 광년이 지나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그지없을 때가 많습니다. 불쌍하다고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이거를. 세상에 사람 사는 것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그건 무(無)의 세계로 인해서 유(有)의 세계가 돼야 하는데, 무의 세계는 저버리고 유의 세계 속에서만 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 이 세상만사,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고
> 내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 어찌 내가 했다고 하며 내가 잘한다고 하며 내가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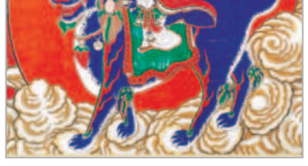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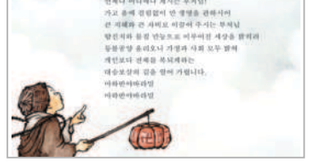
since1973
2016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저렴한 가격!!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121068-56-042256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상호인쇄
미니:상호인쇄
수첩:상호인쇄
12절(벽걸이형)달력 200부 이상 @ 1000 원
• 백부이상 @1,200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 25.8cm × 26.5cm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정가 1800원
• 규격 : 30cm × 63cm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18장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정가 1800원
• 규격 : 26cm × 19cm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규격 : 8.9cm × 9.5cm • 매수:16장